

바로 지금, 여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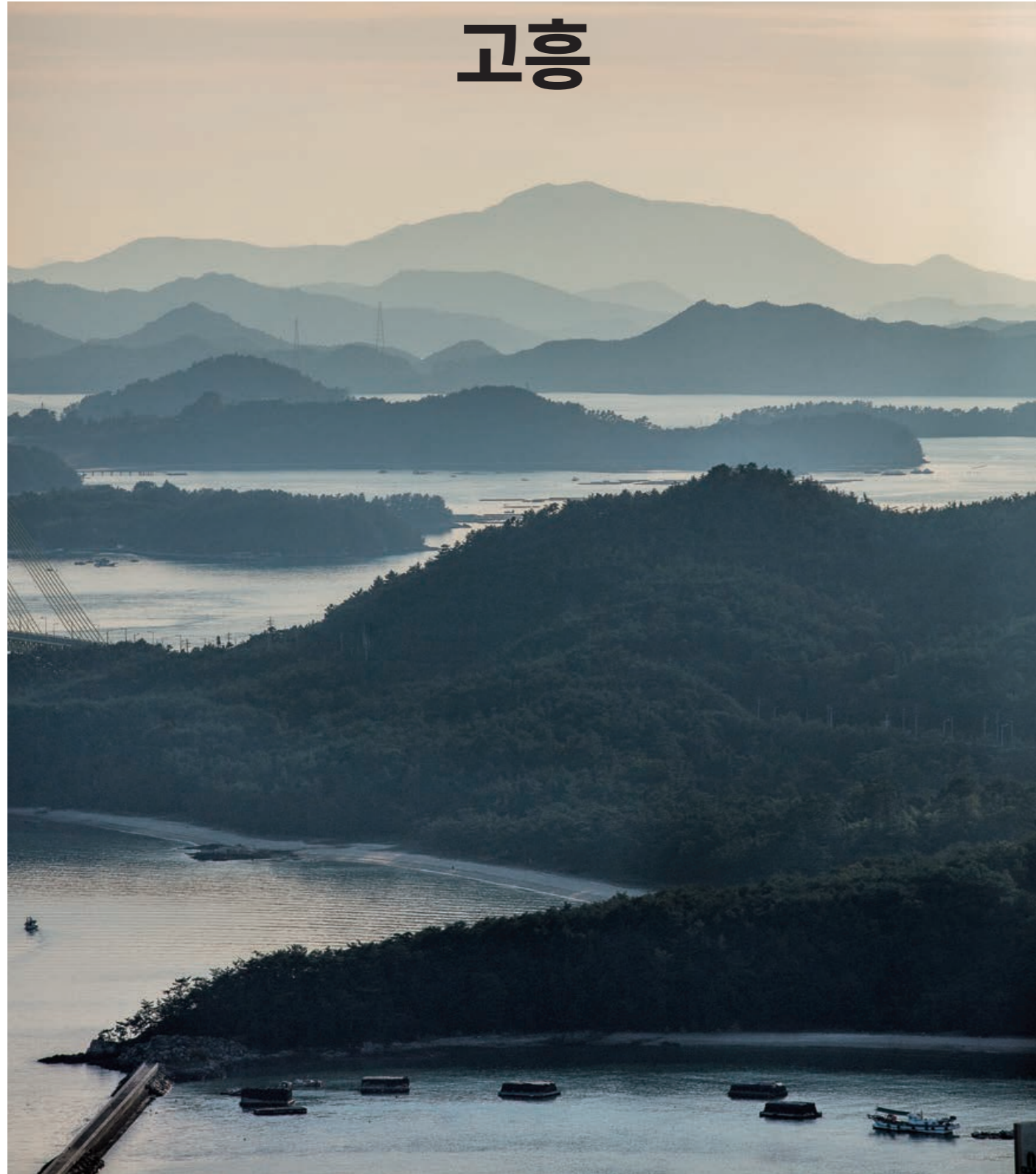
KTX

온라인에서도
<KTX매거진>을
볼 수 있습니다.



KTX 2023.12

고흥



02-799-9116 | 문화관광

주민이 초대하는 여행, 노마드 고흥

KORAIL 한국철도

바로 지금, 여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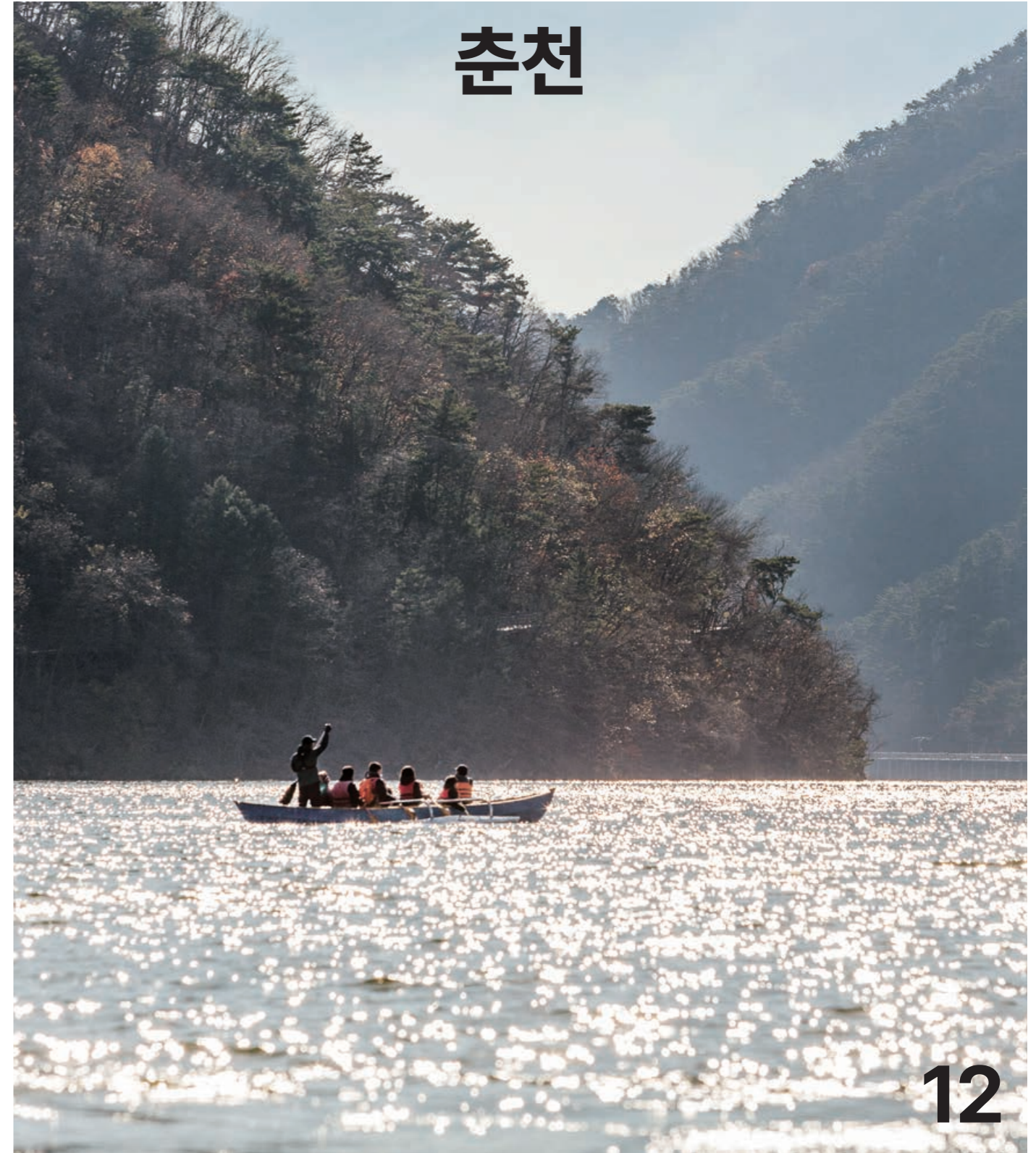
KTX



온라인에서도
<KTX매거진>을
볼 수 있습니다.

겨울 호수에서 보낸 시간, 춘천

춘천



12

겨울 호수에서 보낸 시간, 춘천 | 지역 명사와 함께하는 뜻깊은 문화 여행 | 한국 최북단으로, 고성 DMZ박물관

WARM HEART

우리의 따뜻한 마음이



COOL EARTH

지구의 열기를 식히는 중입니다



명예의 전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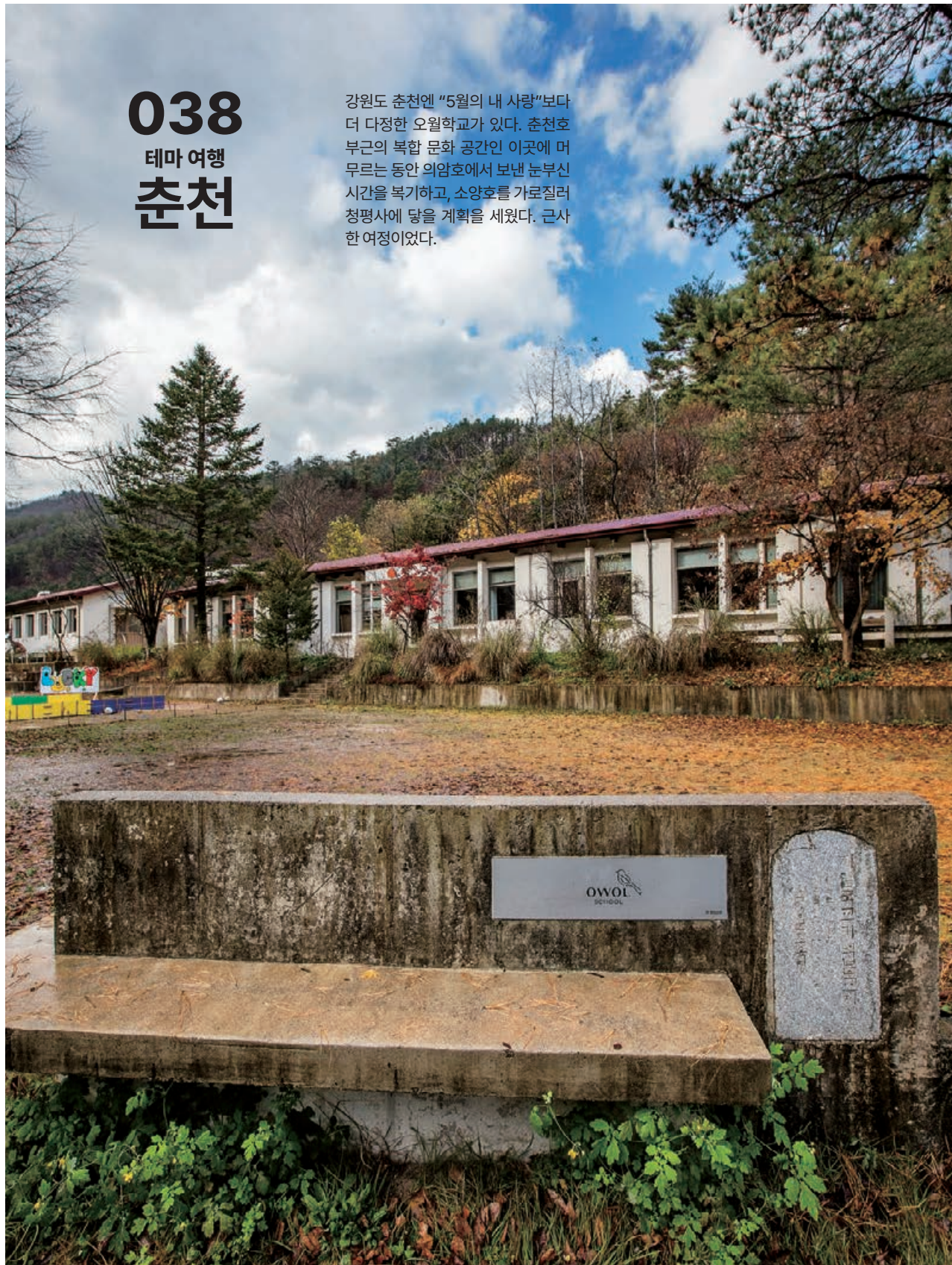
※ 본 캠페인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2023 KSI 1위 기업·KRCA 수상 기업」이 공동으로 마련하였습니다.

CONTENTS

2023.12

038 테마 여행 춘천

강원도 춘천엔 "5월의 내 사랑"보다 더 다정한 오월학교가 있다. 춘천호 부근의 복합 문화 공간인 이곳에 머무르는 동안 의암호에서 보낸 눈부신 시간을 복기하고, 소양호를 가로질러 청평사에 닿을 계획을 세웠다. 근사한 여정이었다.



철에는 판타지가 있다

포스코는 상상합니다

탄소 걱정 없이 물로 철을 만드는
마법 같은 세상을

친환경 철강의 꿈
하이렉스 기술로 이뤄가겠습니다

우리의 내일을 판타스틱하게

POSCO

2023.12



020
맛집 탐방

서울 연신내에서 지역과 이웃을 사랑하는 매력적인 식당과 카페에 다녀왔다.

025
그곳에 가면

반가사유상이 일상으로 들어왔다. 굿즈로 재탄생한 국립박물관 유물을 소개한다.

056
걷기 여행

주민이 기획하는 여행 프로그램, 노마드 고흥의 다정한 안내를 따라 전남 고흥을 거닐었다.

072
이색 여행

시장이 청년 상인과 함께 색다른 변화를 도모한다. 서울 경동시장 청년몰 '서울휘미리' 이야기다.

080
이 계절 이 여행

한 해의 끝, 한국 최북단 강원도 고성으로 의미 있는 여행을 떠났다.

088
기차 타고

경남 하동 악양면 입석마을에 가면 예술이 된 일상, 일상이 된 예술을 만난다.

Book in Book
지역명사 문화여행

이 땅의 전통문화와 자연을 지킨 15인의 명사가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하는 여정을 제안한다.

KORAIL
INFORMATION

110
코레일 소식

118
편의 시설 및 부가 서비스

120
열차 이용 안내

122
비상시 행동 매뉴얼

<KTX매거진>은 시각장애인과 외국인을 위한 '보이스아이'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용 애플리케이션으로 바코드를 스캔하면 글을 읽어서 들려주며, 60여 개 언어로 번역도 지원합니다. 자동 번역기를 사용하기에 번역이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DELIGHT IN THE DETOUR

뜻밖의 여정이 주는 즐거움



NO WASTED DAYS™

들어가는 글



여러분이 시간의 흐름을 가늠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독자님들께 따끈따끈한 여행 정보를 전하기 위해
 매번 한 달 앞서 생각하고 노력하는 <KTX매거진> 제작진은
 여름에 가을을 노래하거나, 겨울에 봄을 상상할 때
 그리고 남들보다 빠르게 한 해를 떠나보낼 때 그 흐름을 느낍니다.
 '걷기 여행' 취재로 전남 고흥 비봉산에 올라서서
 탁 트인 남해와 녹동항 풍경을 바라보며
 올해도 이만하면 잘 견뎠다고 스스로를 토닥였습니다.
 독자님의 2023년은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연초에 목표한 것들을 이루셨나요? 어쩌면 오랫동안 떨어져
 보고 싶던 이와 만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12월엔 어디로든 여행을 떠나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시간의 흐름을 버텨 내느라 고생한 자신을
 여행으로 칭찬하고 위로해 주세요. 저희는 어김없이
 한 달 앞서가 2024년 1월호에서 독자님을 기다리겠습니다.
 각자의 방법으로 2023년을 잘 매듭짓고
 우리 2024년 매거진에서 만나요.

<KTX매거진> 기자 남혜림

KTX

바로 지금, 여행
DECEMBER 2023

2023년 12월호 제20권 제12호 통권 제234호
2023년 12월 1일 발행

발행인 한문희(한국철도공사 사장)

편집
(주)서울문화사 02-3785-0900
 서울시 용산구 새창로 221-19

편집인 심정섭

편집장 김현정 kimhj@seoulmedia.co.kr
부편집장 강은주 unddu@seoulmedia.co.kr
기자 옥송이 ocksong@seoulmedia.co.kr
 남혜림 nhr@seoulmedia.co.kr

교열 오미경 변역 박경리

디자인
아트 디렉터 권영주 kyj@seoulmedia.co.kr
디자이너 임보영 lby@seoulmedia.co.kr
객원 디자이너 엄정윤

사진
 라이트팩토리(LIGHT FACTORY)
 070-4119-3014
디렉터 신규철
실장 이규열 조지영 이철 박정우

광고
팀장 조현익 jony2@seoulmedia.co.kr
부장 심재우 jwshim22@seoulmedia.co.kr
사원 김수연 ktxad@seoulmedia.co.kr

배포 소장 이재우

경영지원실 본부장 정영기

제작팀 팀장 이수행
차장 정승헌 **과장** 정수호

기획팀 팀장 임용욱 **차장** 박선주 **사원** 조소연

인쇄 (주)타라티피에스

<KTX매거진>은 KTX와 ITX-새마을, ITX-청춘 열차 내 전 좌석에 비치하는 월간지입니다. 보신 뒤에는 다음 승객을 위해 제 자리에 꽂아 주시기 바랍니다. <KTX매거진>에 게재된 글과 사진은 사전 동의나 허락 없이 무단 도용할 수 없습니다.

문의 편집 02-799-9338 **광고** 02-799-9175



춘천 오월학교 스테이 & 카페

일과 쉬임이 모두 필요한 당신에게...

ANOTHER OFFICE, in 춘천 춘천 워케이션

숙소

- KT&G 상상마당 스테이
- 오월학교 스테이
- 춘천베어스호텔 / 호텔공지천
- 엘리시안 강촌 / 박사마을 글램핑
- 더 베네치아 스위트

사무공간

- KT&G 상상마당
- 댄싱카페인 카페
- 토이로봇관 갤러리툰
- 오월학교 카페
- 커먼즈필드

프로그램

- 도시가살롱 문화체험
- 원목카빙
- 관광(삼악산호수케이블카 등)
- 스키(엘리시안 강촌 등)

❗ **참가혜택** : 숙박비 30% 상당 지원, 업무공간 제공, 프로그램 무료체험(문의 : 033-256-6655)



내 손안에 펼쳐지는 KTX매거진

SNS에 #KTX매거진을 태그해 올려 주세요.



@ktxmagine

선물 받아 가세요!

'기차 안 SNS'에 선정된 분께는 당류·콜레스테롤·트랜스지방 함량 제로인 초콜릿 간식 **초코헬스 제로넛츠**를 선물로 보내 드립니다. 아몬드, 헤이즐넛, 캐슈너트에 무설탕 초콜릿을 코팅한 제품으로, 벨기에산 리얼 다크 초콜릿 등 높은 품질의 원재료만을 사용했습니다.

제품 문의 02-791-0756

*당첨자에게는 인스타그램으로 메시지를 드립니다.

손안에 펼쳐지는 <KTX매거진>

QR코드를 스캔해 인스타그램과 유튜브로 <KTX매거진>을 만나 보세요!

Leap into GCC GOYANG

새로운 MICE의 매력에 빠져들다!

GCC Goyang(고양 국제회의복합지구)은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지정된 MICE 복합지구로, 국내 최대 전시컨벤션 시설인 킨텍스를 주축으로 숙박, 쇼핑, 식음, 공연 등의 주요시설이 집적된 MICE 전문 복합지구 브랜드입니다.

전문회의시설 및 집적시설로 구성되어 하나의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MICE 주최자 및 참가자들을 위한 원스톱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SAN FERNANDO

Festival GIANT LANTERN

빛, 랜턴 그리고 크리스마스

필리핀 산페르난도는 이맘때 거대한 빛에 휩싸인다. 가장 밝고 아름다운 랜턴을 선정하는 자이언트 랜턴 페스티벌이 올해도 어김없이 돌아왔다.

국민 대다수가 가톨릭 신자인 필리핀은 일찌감치 크리스마스 시즌을 준비한다. 가게는 10월만 되어도 트리와 각종 전구로 꾸며 연말 분위기가 물씬하고, 거리에는 신나는 캐럴이 울려 퍼진다. 이토록 크리스마스를 사랑하는 필리핀에 '크리스마스의 수도'라 여겨지는 곳이 있다. 팜팡가주 산페르난도는 예부터 수공예 랜턴으로 유명한 도시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팜팡가 토착어로 '파울 삼페르난두', 또는 필리핀어로 '파울'이라 부르는 등을 집집마다 다는 것이 이곳의 전통이다. 그 시작점을 찾아 필리핀 역사를 거슬러 올라간다. 스페인 식민지였던 약 300년의 시간, 스페인은 지역 주민에게 랜턴을 들고 행진하며 성모마리아를 기념하라고 명했다. 랜턴은 예수의 탄생을 뜻하는 베들레헴의 별을 상징했는데, 랜턴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이 예수와 사람을 연결해 줄 거라 믿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탄생한 자이언트 랜턴 페스티벌이 산페르난도의 연말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킨다. 축제에는 산페르난도의 8~10개 마을이 참여한다. 전구 수천 개와 카피즈 조개껍데기 등으로 장식해 각 마을의 특징이 드러나는 랜턴은 지름이 무려 6미터에 달한다. 크리스마스캐럴, 행진곡, 현대 크리스마스 음악에 맞추어 4~7분 동안 랜턴이 반짝이고 디자인, 색상 조합, 관객 반응 등을 기준으로 심사를 거쳐 최고 랜턴이 탄생한다. 축제 마지막 날은 결과에 상관없이 모든 랜턴에 불을 밝힌 채 퍼레이드를 진행해 장관을 이룬다. 랜턴에 불이 들어오고 음악이 흘러 나오는 순간, 방문객은 저마다 환호하거나 춤을 추며 황홀한 광경을 감상한다. 사람들의 마음에 같은 소망이 생겨난다. 반짝거리는 저 랜턴처럼 다가올 새해도 빛나기를. 그리하여 모두가 안녕하기를.

자이언트 랜턴 페스티벌은 필리핀 팜팡가주 산페르난도에서 열리는 등불 축제다. 매년 12월 약 2만 명이 랜턴을 보기 위해 모여든다. 엄격한 심사 기준과 규격이 정해진 것은 물론, 안전 수칙도 철저히 지켜 진행된다.



자료: 협조 필리핀 관광청

연말 고객감사 이벤트

파나소닉 안마의자

연말 고객감사 이벤트

구매고객 최대 300만원 할인

언제나 사랑받는 안마의자

88년

선진안마기술집약체

4년 무상보증
1년+3년



MAK1

1 파나소닉 안마의자 연말이벤트

- 기간 : 2023.12.01~2023.12.31



2 고온 살균 스팀 청소기 증정 이벤트

- MAK1 제품 구매고객,
고온 살균 스팀 청소기
MC-S5W 선착순 증정

- 2023.12.01~2023.12.31



판매점 전국 파나소닉 공식 대리점 / 전국 유명백화점 및 대형 전자제품 전문점에서 절찬 판매중 • 파나소닉 코리아 고객 상담실 1588-8452 • 파나소닉 코리아 홈페이지 <http://panasonic.kr>

파나소닉 프라자 서초 분점 (02)542-8452 서울시 서초구 | 파나소닉 HM프라자 (02)755-8452 서울시 중구 | 파나소닉 광안프라자 (051)755-8452 부산시 수영구 | 파나소닉 동아프라자 (053)427-3794 대구시 북구 | 파나소닉 대전프라자 (042)223-8452 대전시 서구 | 파나소닉 수성프라자 (053)421-8452 대구시 중구 | 파나소닉 용인프라자 (051)255-0222 부산시 중구 | 파나소닉 명성프라자 (051)633-8452 부산시 동구 | 파나소닉 HD프라자 (062)522-2000 광주시 북구 | 파나소닉 제주프라자 (064)757-8452 제주도 구남읍 | 파나소닉 원안프라자 (041)522-8452 천안시 동남구 | 롯데 백화점 분점 9층 (02)726-4545 서울시 중구 | 롯데 백화점 잠실 10층 (02)2143-7793 서울시 송파구 | 롯데 백화점 강남 8층 (02)531-2045 서울시 강남구 | 롯데 백화점 입산 8층 (031)909-3091 경기도 고양시 | 롯데 백화점 선텐 7층 (051)730-3330 부산시 해운대구 | 롯데 백화점 대전 B1층 (042)523-5322 대전시 서구 | 롯데 백화점 광주 9층 (062)221-1932 광주시 동구 | 롯데 백화점 인천 5층 (010)5571-530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현대 백화점 무역센터 4층 (02)3467-8348 서울시 강남구 | 현대 백화점 목동 B1층 (02)2163-1843 서울시 양천구 | 현대 백화점 판교 7층 (031)5170-1835 경기도 성남시 | 현대 백화점 여의도 5층 (02)3277-0581 서울시 영등포구 | 현대 백화점 대구 7층 (053)245-2730 대구시 중구 | 갤러리아 백화점 타임월드 10층 (042)720-6050 대전 서구 | 신세계 백화점 분점 신관 2층 (02)310-1678 서울시 중구 | 신세계 백화점 강남 9층 (02)3479-1628 서울시 서초구 | 신세계 백화점 의정부 8층 (031)8082-0854 경기도 의정부시 | 신세계 백화점 대구 7층 (053)661-6723 대구시 동구 | 신세계 백화점 선텐 7층 (051)745-2389 부산시 해운대구 | 신세계 백화점 경기 6층 (031)695-1467 경기도 용인시 | 신세계 백화점 대전 지하1층 (042)607-8659 대전시 유성구 | 신세계 백화점 경기 6층 (031)695-1467 경기도 용인시 | 신세계 백화점 대전 지하1층 (042)607-8659 대전시 유성구



02

몰입 가능한 휴식

하루 동안 정원을 바라보며
머무는 곳이라는 의미를 갖는 유원재

수안보가 품은 아름다운 풍경과 심신에 파스함을 더하는 온천,
진정성이 담긴 공간적 체험을 통해 도심에서 느낄 수 없는
온전한 몰입의 휴식을 선사합니다.



01

온천 문화의 새로운 변화
유원재 호텔&스파에서
53도 자연 용출수를 경험해 보세요.

01.라운지 수 02.노천탕 03.객실 04.실내탕
05.객실 정원 06.카페 07.만이 차림
08.만물(충북의 화반) 09.숙회(오늘의 제철 숙회)
10.운새미로 11.알천 : 한우 구이와 한방 수비드
삼겹살 12.조식 : 13첩 반상

DATA

주소 충청북도 충주시 수안보면 주정산로 6
요금 • 정사가 170만 원~(1박 2식, 2명 1실 기준)
• 할인가 136만 원~
(석식 : 컨템포러리 파인 다이닝 코스요리)

Check-In 15:00
Check-Out 11:00
객실 수 16실
식사 레스토랑(개별실/단체실)
온천 남/여(실내, 야외 노천), 대여탕(유료)
부대시설 라운지 수, 라운지 온, 카페,
테라피(유료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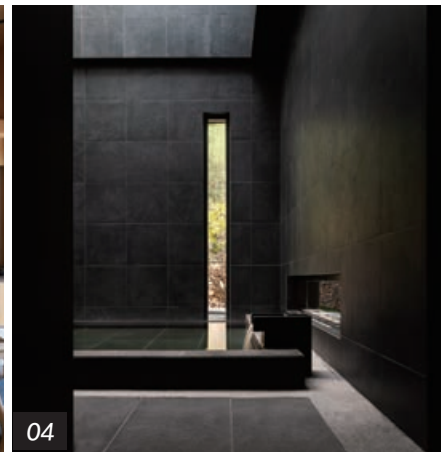
직원 채용 공고

- 객실팀(프런트)
- 접객서비스팀(F&B)
- 주방 Line cook

자세한 사항은 사람인 잡코리아
채용 공고 확인하시거나,
전화 문의 바랍니다.



03



04



05



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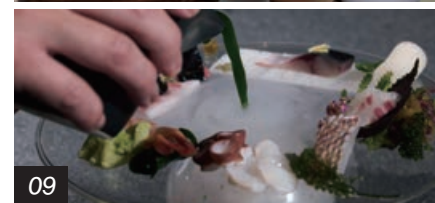
1 석식 : 컨템포러리 파인 다이닝 코스요리



07



08



09



10



11



12

충주시 / 수안보온천

Tel. 043-820-8100



留園齋

유원재 호텔&스파

<https://www.youonejae.com>

온전한 휴식의 정점

유원재의 식사는
오감을 아우르는 다채로운 요소로 구성되어
온천욕과 자연으로 비워낸 여백을 새로운 가치로
채울 수 있도록 준비한 온전한 휴식의 여정의 정점입니다.

원재료 본연의 맛이 녹아든 균형 잡힌 요리는
시각의 아름다움과 미각의 즐거움을 마음껏 만끽할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을 선사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할 때,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할 때
정답은?



푸른 바다와 산, 문화 예술과 짜릿한 체험.
여행에서 원하는 모든 것이 있는
동해안 6개 도시로 떠나요.



♥ 고성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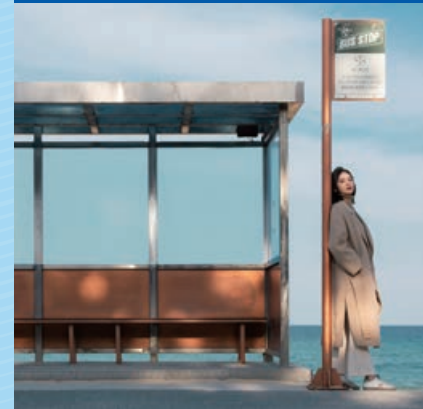
♥ 속초 ...



♥ 양양 ...



♥ 강릉 ...



♥ 동해 ...



♥ 삼척 ...





반가워요,

이웃사촌

동네에 스며들어 주민이 편히 찾는 서울 은평구 연신내의 맛집을 소개한다. 이곳 출신이거나, 우연히 여기 흘러든 주인장들의 공통점은 지역과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이다.

이피플라츠

☞ 스페인 풀포 2만 7000원 마르게리타 피자 1만 8000원 프렌치 토스트 9000원
☞ 서울시 은평구 연서로25길 6-7 ☎ 070-8820-7650

이피플라츠 대표가 추천하는 연신내 마식공간
연신내역에서 수도권 전철 6호선으로 한 정거장만 이동하면 구산역에 닿아요. 그곳의 돼지고기구이 전문점 '옥탑방'을 자주 찾습니다. 짬뽕에 구워 고수와 함께 먹는 고기가 별미랍니다.



이피플라츠 주택가에서 붉은 벽돌 옷을 입은 '이피플라츠'를 마주한다. 외관에 카페, 브런치, 와인, 술, 픽업 등 여러 단어가 적혀 있어 어떤 정체성을 지닌 공간인지 궁금증을 자아낸다. “한 가지 성격으로 정의하지 않았으면 했어요.” 부부인 배민영 실장과 정우연 대표가 말을 건넨다. 토박이인 정 대표의 의견을 따라 연신내에 자리 잡은 두 사람은 살아갈수록 지역에 애정이 생겼다. 동네 사람 누구나 편하게 들르는 공간이 되길 바라며 '이피플라츠'라는 상호를 지었다. 이피는 은평구의 영어 머리글자, 플라츠는 독일어로 '공간'을 의미한다. '은평의 공간' 이피플라츠의 지하는 보틀 스텍, 1층은 베이커리 카페, 2층은 다이닝 공간으로 기능하는데, 때때로 전시도 연다. 부부가 은평구 대조동에서 운영한 보틀 스텍에서 만난 지역 예술가, 은평문화재단 직원들과 연이 이어진 덕분이다. 파티시에와 셰프도 손님으로 왔다가 이곳 직원이 됐다. 사람 냄새 물씬 나는 이피플라츠의 대표 메뉴인 문어 요리 '스페인 풀포'를 맛본다. 질긴 식감을 줄이고자 염선했다는 스페인산 문어가 부드럽게 씹힌다. 무엇보다 피망으로 만든 소스가 문어와 스페인 소시지를 잘 어우른다. 토마토의 풍미와 바질의 조화가 돋보이는 '마르게리타 피자'까지 맛보니 더는 지체하기 어렵다. 와인을 곁들일 수밖에. 정다운 사람들과 맛있는 음식이러니, 자꾸만 놀러 오고 싶다.

TRAVEL TIP
서울 은평구 연신내는 수도권 전철 3호선과 6호선이 교차하는 연신내역 일대를 일컫는다. 행정구역은 불광동이지만 연신내라는 이름으로 널리 불린다. 이는 불광천의 옛 이름인 연서천에서 유래했다. 은평구의 큰 개천에서 마을명을 가져온 연신내가 은평구의 교통 중심지가 된 건 필연이었으리라. 최근에는 연신내 골목 곳곳에 아기자기하고 개성 있는 식당과 카페가 생겨났는데, 다른 지역에서 경력을 쌓고 고향인 연신내로 돌아온 이들의 공간이 많다. 마실 가듯 불광천을 따라 연신내 나들이를 해도 좋겠다.





☞ 돈겔 6500원 비엔나 6500원 퍼지 브라우니 4300원
 ☞ 서울시 은평구 연서로29길 21-8 ☎ 070-7767-0829

YM커피하우스 막다른 골목, 육중한 대문이 존재감을 드러낸다. 안으로 들어서면 문밖과는 다른 세상이 펼쳐진다. 잔잔한 조명 아래 두 개의 긴 테이블 사이로 바리스타가 분주하게 움직인다. 자연스럽게 시선이 그의 손을 따라간다. 마치 관객이 공연을 감상하듯 한 잔의 커피가 완성될 때까지 넋 놓고 바라본다. 커피가 주인공인 매장을 만들고 싶었다는 조용민 대표가 의도한 대로다. 그는 아르바이트로 커피에 입문했다. 유명한 카페에서 일하면 금세 노하우를 깨달으리라 생각했지만, 커피는 어려웠다. 핸드 드립을 배운 뒤 커피 한 잔을 손님에게 내기까지 6개월이 걸렸다. 조 대표는 자세를 바꿨다. 한자리에서 70년 동안 카페를 운영할 수 있을 만큼 진지해지기로. 로스팅을 비롯해 커피를 계속 공부한 이후 고향인 연신내로 돌아왔다. 나고 자란 곳이니 상권 이해도가 높았고, 무엇보다 마음이 편했기 때문이다. 단독주택을 개조하면서 그가 꿈꾸는 매장을 실현했다. 틈틈이 떠난 유럽 여행에서 늘 심과 위로를 주던 성당의 모습을 군데군데 녹였다. 목재 인테리어와 거대한 문이 그 결과다.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커피를 찬찬히 음미한다. 시그니처인 '돈겔'은 홍차와 커피를 배합한 음료로, 홍차의 향긋함과 커피의 씩씩함이 어우러져 매력적이다. 보드라운 크림을 얹은 '비엔나' 커피와 생초콜릿처럼 입안에서 녹는 '퍼지 브라우니'에 미소가 번진다. 커피가 주는 마음의 여유를 만끽한다.

YM커피하우스 대표가 추천하는 연신내 미식공간
 오삼불고기 맛집 '연수식당'을 추천합니다. 진정한 현지인 맛집이랄까요. 주변 지인들이 꼽는 식당이기도 해요. 통통한 오징어와 고기가 살짝 매콤한 양념과 어우러져 젓가락을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YM커피하우스



주다



☞ 연어를 주다(160g 기준) 1만 8000원 참나물 파스타 1만 6000원 소고기 샐러드 1만 6000원
☞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83길 17-16 ☎ 02-353-2030

주다_오후 5시가 되어서야 '주다'는 일과를 시작한다. 주광색 불빛이 가게를 밝히면 하나둘 손님들이 찾아온다. 개개 홀로 술잔을 기울이거나, 두세 명이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눈다. 심야 식당 주다의 풍경이다. 이 식당은 호텔과 레스토랑 셰프 출신인 김우리 대표가 꾸렸다. 우연히 영화 <아메리칸 셰프>를 보고 창업을 다짐했다. 영화 속 인물처럼 진정으로 즐기며 재미있게 요리하고 싶었다. 주다의 음식은 김 대표가 평상시 좋아하는 것들인데, 공통분모는 '건강'을 추구한다는 점이다. "실은 건강 염려증이 있어요. 매일 불광천을 7킬로미터씩 달리는 건 물론 영양제도 챙겨 먹어요. 그런 만큼 건강한 음식으로만 메뉴를 구성했습니다." 김 대표가 겸연쩍게 웃는다. 메뉴 '연어를 주다'는 호텔에서 익힌 유럽식 숙성 연어 요리인 그라블락스를 변형했다. 감칠맛이 뛰어나지만 과한 짠맛이 아쉬웠기에 염도를 조절했다. 두께도 도톰하게 바꿨다. 접시 가득 나온 다양한 연어 부위 가운데 뱃살부터 먹는다. 부드럽고 달다. 살짝 구운 등살은 고소함이 배가된다. 그가 집에서 해 먹던 음식을 메뉴로 개발한 것도 있다. '참나물 파스타'가 그렇다. 직접 만든 참나물 페스토가 핵심이다. 은은한 참나물 향취가 감돌아 계속 먹을 수 있을 것만 같다. 편안함과 기쁨과 위로를 주겠다는 의미의 상호처럼 미식이 준 즐거움에 하루의 피로를 잊는다.

주다 대표가 추천하는 연신내 미식공간
연신내 근처 응암역에 있는 타이 음식점 '아로이 타이'를 소개하고 싶어요. 타이 음식을 좋아해 많은 식당을 가 봤지만, 이곳은 현지에서 먹었던 맛과 같다고 느꼈어요. 홀로 넓어서 쾌적해요.



내 손안의 유물

유물을 본떠 만든 물품이 일상에 품격을 더한다. 여러 국립박물관이 소장한 유물을 굿즈로 만나다.

국립박물관

1 **(국립중앙박물관)** 반가사유상 미니어처 버전 3 반가부좌를 한 미륵보살이 오른뺨에 손가락을 대고 사유하는 자세를 취했다. 반가사유상 중에서도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은 국립중앙박물관을, 나아가 한국을 대표하는 유물이다. 작은 모형 굿즈로 출시한 이후 큰 인기를 끌었는데, 버전 3은 기존보다 약 1센티미터 크게 제작해 완성도를 높였다. 늘 곁에 있는 반가사유상이라니, 상념의 순간 함께해야겠다.
문의 02-2077-9769



문화체육관광부

2 **(국립중앙박물관)** [의궤 전시] 머그 컵 세트 특별 전시 <외규장각 의궤, 그 고귀함의 의미> 관련 굿즈다. <인조장렬왕후가례도감의궤>에 수록된 '반차도' 속 행렬과 화려한 가마의 모습을 단순하고 귀엽게 풀어 내 컵과 접시에 넣었다. 금색과 푸른색을 사용한 뚜껑과 붉은색 머그컵의 색감이 아기자기한데, 이 역시 의궤 속 가마를 본뒀다. 색다른 성탄절 선물로도 손색없다.
문의 02-2077-9769



4 **(국립전주박물관)** 전주반달이 카드지갑 예부터 전주는 전라도 동부 산지에서 가져온 질 좋은 목재로 솜씨 좋은 장인이 만든 수준 높은 가구로 이름난 고장이다. 반달이장이 국립전주박물관의 대표 유물인 이유다. 여기서 착안한 '전주반달이 카드지갑'은 친환경 소재인 한지 가죽으로 만들어 환경오염을 최소화한 데다 가볍고 생활 방수도 잘된다. 전통의 아름다움이 실용적인 패션 소품으로 피어난다.
문의 063-221-2770



3 **(국립경주박물관)** 금관 굵잔 세트 천년 왕국 신라의 유물이 도자 상품으로 다시 태어났다. 반구형 접시에 굵다리가 붙은 유물 '금제 굵다리 접시' 형태를 응용했다. 잔 중앙에는 '천마총 금관' 문양을 양각했다. 술잔. 찻잔으로 쓰기 좋은 양증맞은 크기에 두 가지 유물을 알차게 조합하고 잔 테두리에 금칠을 해 더욱 멋스럽다. 금관 굵잔이라면 물 한잔을 마셔도 특별할 것 같다.
문의 054-744-7540



5 **(국립익산박물관)** 사리외호 자개 스마트톡 미륵사지 서쪽 석탑에서 출토한 '금동제사리외호'는 황금빛 몸체에 덩굴이 꼬이며 뻗어 가는 무늬, 잎맥을 세밀하게 표현한 연꽃 모양이 특징이다. 국립익산박물관 미륵사지관에서 백제 장인들이 남긴 금속공예 유산의 실물을 보아도 좋지만, 꼭 빼놓은 굿즈 '사리외호 자개 스마트톡'을 휴대전화에 부착해 다녀도 의미 있다. 찬란한 유산을 기리는 현대의 방식이니까.
문의 063-831-7494



* 국립박물관의 다양한 굿즈는 온라인 숍 '뭇즈'(muds.or.kr)에서도 만날 수 있다.



몸짓으로 꽃피우는 희망

동물학자 템플 그랜딘의 실화를 풀어낸 연극 <템플>의 주연, 박희정 배우와 대화를 나눴다.

Q. 연극 <템플>에서 맡은 역할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A. 동물학자 템플 그랜딘의 이야기를 소재로 한 <템플>에서 주인공 템플 그랜딘 역할을 맡은 배우 박희정입니다. 템플 그랜딘은 어릴 때 자폐스펙트럼장애 판정을 받았지만 주변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 스스로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현재까지 학계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인물입니다. 이번 연극은 그의 학창 시절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Q. 실존 인물이기 때문에 부담감도 느끼셨을 것 같아요. A. 현존하는 분을 연기하는 건 늘 조심스러워요. 당사자에게 누를 끼치면 안 되니까요. 우선 템플 그랜딘의 자서전부터 읽으며 연구를 시작했어요. 자폐스펙트럼장애 관련 영상을 찾아보고, 이론도 공부했습니다. 사실 제 사촌동생이

자폐성 장애 1급이에요. 사촌동생과 어릴 때 같이 살아서 자폐가 무엇인지 자연스럽게 알게 된 부분도 있고, 가족의 고충과 힘듦도 통감했기에 극을 해석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Q. <템플>로 두 시즌째 연기를 이어 오고 계십니다. 지난 시즌과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요? A. 이 작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연기자의 반응이라고 생각해요. 무대에서 그때그때 느끼는 자극을 연기로 승화하는 것이지요. 익숙함에서 멀어져 낯설음을 느껴야 한다고 할까요. 시즌이 달라진 만큼 팀이 바뀌거나 새로운 분이 합류해 낯설기도 하지만, 그런 점이 오히려 자극이 되더라고요. 전 시즌에는 동작 연습을 하다가 갈비뼈에 금이 가는 바람에 일부 동작을 다른 것으로 대체했어요. 이번엔 다치지 않고 기필코 해내고자 노력하는 중입니다.

Q. 연습하면서 어떤 장면이 가장 인상적이었는지 궁금합니다. A. <템플>은 움직임을 최대한 활용해 인물의 심리나 감정을 전달하는 신체 연극입니다. 자폐인이 겪는 신경 발작을 몸으로 표현한 일명 '줄 산'이 떠올라요. 연기자와 안무가들은 줄을 가지고 퍼포먼스를 하면서 템플이 느꼈을 압박감, 괴로움 등 많은 것을 표현합니다. 빨간 줄은 그를 묶고, 행동을 막거나 방해하죠. 그 움직임을 보고 있으면 자신과 싸우는 템플이 얼마나 힘들까 하는 생각이 단번에 들어요. 인물의 심리를 움직임으로 가장 잘 나타낸 장면 같습니다.

Q. 도전에 보고 싶은 역할이나 작품이 있나요? A. 뮤지컬요! 뮤지컬 <오! 당신이 잠든 사이>로 데뷔했는데, 공교롭게도 그 작품 이후 아직 뮤지컬 무대에 서지 못했어요. 뮤지컬을 안 한 지 오래되다 보니 조금 두렵기도 했고요. 템플 그랜딘을 연기하면서 그와 제가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질문하는 점이 닮았다고 생각했어요. 그 버릇이 때로 독이 되기도 하지만, 템플은 질문에서 얻은 답과 희망으로 다른 세계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믿음은 두려움을 극복하게 하니까." <템플> 중 가장 좋아하는 대사예요. 이번 작품 덕에 저에 대한 믿음이 충만해졌습니다.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뮤지컬에 다시 도전해 보고 싶어요. **K**



<템플> 자폐스펙트럼장애로 힘든 어린 시절을 보낸 템플. 마운틴 컨트리 고등학교에서 칼록 선생을 만나 서서히 자신을 이해한다. 동작으로 인물의 심리를 전하는 신체 연극이다.

장소 서울 서경대학교 공연예술센터
기간 12월 15일~2024년 2월 18일
문의 @theater_ganda

**※<KTX매거진> 인스타그램을 방문해 독자 초대 이벤트 정보를 확인하세요!
이벤트 기간 12월 4일~11일**

남파랑길 따라 떠나는 경남 걷기 여행

탁 트인 바다를 실컷 바라보고, 크고 작은 섬을 온전히 누리고자 경남 남파랑길을 걷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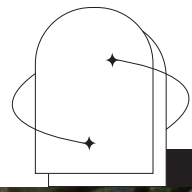


근사한 풍경 속을 자분자분 거닐고 싶어 경상남도 걷기 여행을 계획한다. 찬찬히 발걸음을 옮기며 눈부신 경남 바다의 풍광을 감상하기에는 남파랑길이 제격이다. 그저 발길 닿는 대로 걸을 뿐인데 코스마다 분위기가 색다르다. 어촌과 섬의 소박함이 드러나다가도, 새로운 길에 접어들면 도시의 화려함이 물씬 풍긴다. 어느 코스든 장쾌한 물결이 시선을 사로잡으니 가슴이 뵙 뚫린다. '남쪽의 쪽빛 바다를 따라 걷는 길'을 뜻하는 남파랑길은 동·서·남해안과 DMZ 접경 지역 등 국토 외곽을 구석구석 건도록 설계한 '코리아 둘레길' 가운데 남쪽 한려해상국립공원의 절경을 만끽하는 1470킬로미터 길이의 둘레길이다. 총 90개 남파랑길 코스 중에서 경남 구간은 42개 코스이며, 창원부터 고성·통영·거제·사천·남해·하동에 이른다. 방향 표지판을 따라 정방향으로, 혹은 반대로 가도 된다. 특정 여행지 근처의 코스를 골라 걸어도 좋다. 어떻게 가더라도 멋진 경치 덕에 즐겁다. 걷기 난도를 선택하는 방법도 있다. 남파랑길 28코스는 가볍게 움직이기 알맞다. 이를테면 통영 신촌마을을 둘러머리 삼은 뒤 세사트라썬, 이순신공원으로 이어지는 둘레길을 가볍게 소화하거나, 거제의 남파랑길 21코스를 거닐다가 일명 궁둥이처럼 툭 튀어나왔다 해서 이름 붙은 공곶이에 닿는다. 겨울을 맞아 함박 피어난 붉은 동백꽃이 반갑고, 계단식 산자락과 어우러진 바다에 마음을 빼앗긴다.



<p>01 창원</p> <p>남파랑길 6~11코스</p> <p>89.7km</p> <p>경남 남파랑길에서 여기는 꼭!</p> <p>진해해양공원</p> <p>음지교가 육지와 섬을 잇는다. 진해구의 작은 섬 음지도에 조성한 이 공원은 한국전쟁 퇴역한인 강원함을 전시관으로 활용한다. 남파랑길 7코스와 가깝다.</p>	<p>02 고성 & 통영</p> <p>남파랑길 12~15코스/28~33코스</p> <p>166.1km</p> <p>경남 남파랑길에서 여기는 꼭!</p> <p>통영케이블카</p> <p>동피랑 벽화마을, 세병관, 윤이상 기념관, 해저터널을 차례로 만나는 남파랑길 29코스는 볼거리가 풍성하다. 케이블카를 타고 일대를 조망하면 더욱 짜릿하다.</p>	<p>03 거제</p> <p>남파랑길 16~27코스</p> <p>168.5km</p> <p>경남 남파랑길에서 여기는 꼭!</p> <p>학동흑진주몽돌해변</p> <p>난도가 높은 남파랑길 23코스를 걷다가 지치면 근처 학동흑진주몽돌 해변에 들러 휴식한다. 흑진주를 닦은 몽돌 위로 맑은 물이 넘나드는 소리가 아름답다.</p>	<p>04 사천 & 남해 & 하동</p> <p>남파랑길 34~47코스</p> <p>212.1km</p> <p>경남 남파랑길에서 여기는 꼭!</p> <p>이순신순국공원</p> <p>은빛 백사장 너머 푸른 산과 바다가 눈부신 남해군은 이순신 장군의 순국지다. 남파랑길 46코스인 이순신순국공원을 방문해 외세 침략에 맞선 이순신 장군과 선현을 기린다.</p>
--	--	--	---





what's up



수영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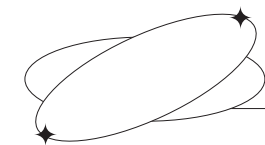
• EXHIBIT •

<지금, 한국을 여행해>

서울 11.29~12.17

때로는 사진 한 장이 여행을 떠나게 한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하는 '2023 대한민국 관광공모전' 사진 부문에서 수상한 작품 약 120점을 서울역 대합실에 전시한다. 작품들은 2023~2024 한국 방문의 해를 맞아 대한민국을 여행해야 하는 이유를 한 컷에 담았다.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 등장해 화제에 오른 경남 창원 의창나무를 찍은 '우영우 팽나무'가 대상을 수상했다.

장소 서울역 3층 대합실 문의 02-6989-9097



what's up



박찬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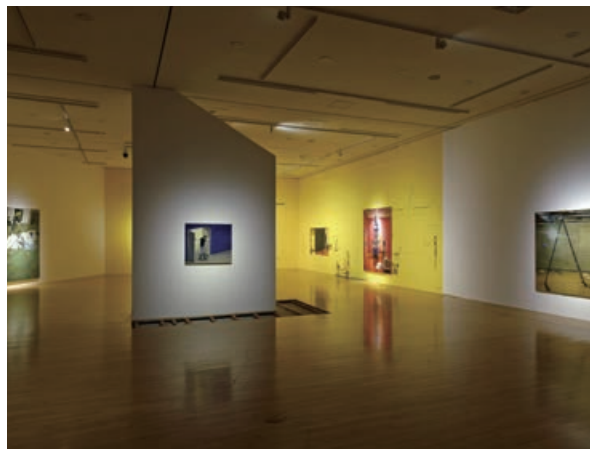
• EXHIBIT •

<구보의 구보>

서울 10.13~2024.01.28

박태원의 중편소설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연재 90주년을 기념한 전시다. 소설 초판본과 1930년대 구인회 문인들의 단행본, 잡지 등 40여 점을 공개한다. 소설 속 구보의 경로를 따라 1934년 식민지 수도 경성을 산책하듯 관람 동선을 구성했다는 점이 매력이다. 하용(이상)의 삽화와 시각 예술가가 재해석한 옛 경성역 풍경을 감상한다.

장소 서울 소전서림북아트갤러리 문의 02-511-2016



• EXHIBIT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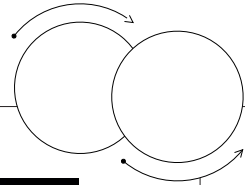
<극장>

부산 09.26~12.17

미술관을 극장에, 전시장을 무대에 비유한다. 극장과 미술관은 시대, 사회, 문화 등 역사적 맥락이 짙게 밴 장소라는 공통점이 있다. 예술의 역할과 미술관, 전시의 기능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는 작가 열세 명이 미술관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던진다. 회화, 설치, 영상 등 각기 다른 개성을 지닌 작품 30점을 선보인다.

장소 부산시립미술관 문의 051-740-4243





what's up



• SHOW •

<세종의 노래: 월인천강지곡>

● 서울 ● 12.29~31

국립극장 서울 남산 이전 50주년을 기념하는 공연이다. 국립창극단·국립무용단·국립국악관현악단과 서양 오케스트라, 합창단까지 약 300명이 출연해 세종대왕이 지은 노래 '월인천강지곡'을 교성곡 형식으로 무대에 올린다. 흔하고도 무거운, 사랑이라는 주제가 마음을 울린다.

장소 서울 국립극장 해오름극장
문의 02-2280-4114



• FESTIVAL •

휴애리 동백 축제

● 서귀포 ● 11.14~2024.01.31

겨울에 꽃을 활짝 피우는 동백을 만끽한다. 길 양옆으로 꽃이 가득한 동백 올레길, 따뜻한 동백 온실, 동백 정원 등 정성스레 키운 꽃을 공원 곳곳에서 감상한다. 웨딩·우정 스탬프, 가족사진 등 인생 사진 찍기에 제격이다. 직접 꿀을 따 가져가는 체험 프로그램도 준비했다. 같은 기간에 유채 축제도 열린다.

장소 제주도 서귀포 휴애리 자연생활공원
문의 064-732-2114



• SHOW •

<보니푸에리>

● 광주 ● 12.21 19:30

1982년 창단한 유럽 정상 소년 합창단이 6년 만에 한국을 찾는다. 공연은 유러피언 클래식, 체코, 전 세계 크리스마스캐럴이라는 세 가지 테마로 채웠다. 합창단은 각 노래에 맞춰 의상을 갈아입는다. 귀여운 안무, 센스 있는 무대연출까지 더해지면 감정이 몽글몽글 피어오른다.

장소 경기도 광주 남한산성아트홀
문의 1522-03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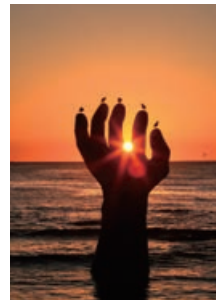
• SHOW •

<볼륨업>

● 서울 ● 10.06~2024.01.28

한때 라이브 클럽의 전설이었던 가게, 볼륨. 하지만 지금은 파리만 날려 볼륨이 없다. 은수, 채은, 타미, 이수, 철봉, 상만이 모여 볼륨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 라이브 밴드를 결성한다. 배우들이 기타, 베이스, 드럼, 피아노 등을 실제로 연주해 뮤지컬이 생동감 넘친다.

장소 서울숲 씨어터
문의 010-2482-6780



• FESTIVAL •

호미곶한민족해맞이축전

● 포항 ● 12.31~2024.01.01

한반도 동쪽, 해가 가장 먼저 뜨는 호미곶에서 새해를 맞이한다. 각종 공연 예술 행사를 감상하고,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해가 떠오르기를 기다린다. 특히 올해는 지역 소상공인과 함께하는 호미곶 마켓, 떡국 나눔 행사 등을 진행해 몸과 마음이 따뜻해진다.

장소 경북 포항 호미곶해맞이광장
문의 054-289-7855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KYWA



www.kywa.or.kr

청소년활동으로 청소년을 행복하게!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KYWA)은
청소년의 균형있는 성장에 필요한 활동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공공기관입니다.



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국립청소년우주센터



국립청소년농생명센터



국립청소년해양센터



국립청소년미래환경센터



청소년활동!
인증마크를 확인하세요!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는 청소년이 안전하고 유익한 청소년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일정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프로그램을 인증하는 국가인증제도입니다.

보다 많은 청소년활동정보를 알고 싶다면? 'e청소년' (www.youth.go.kr)



AI 시대, 청소년 활동은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알쏭달쏭한 AI, 청소년수련활동으로 친해진다.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 청소년에게 보람찬 겨울방학을 보내는 방법을 소개한다.

4차 산업혁명 이후 생활 속에서 인공지능(AI) 기술을 발견하기란 어렵지 않다. 일상에 빈번하게 등장하는 AI 기술은 스마트폰, 자율 주행 자동차, 질병 진단 등 지금도 다양한 분야에서 쓰이는 중이다. 예시로 2023년에는 대화 전문 AI 채팅 로봇 '챗GPT'가 등장해 화제를 불러 모았다. AI가 가져온 세상의 변화는 더욱 가속화할 전망이다. 그렇다면 청소년은 과학기술과 관련된 활동을 어디에서 경험할까? 과학 체험 연계 활동을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가 제안한다.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란 국가에서 일정 기준에 맞춰 청소년 프로그램을

을 심사하는 제도다. 프로그램 신뢰성, 활동 환경의 안전, 관련 분야 전문성 등 여러 요소를 두루 살핀 후 기준에 부합하는 프로그램에만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마크를 부여한다. 꼼꼼하고 엄격한 과정을 거쳐 마크를 허락하는 데다, 인증 절차가 끝난 뒤 사후 관리까지 진행해 활동의 질적 수준을 확보한다. 관련 내용은 청소년 활동 정보 서비스 'e청소년'(www.youth.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AI나 과학과 관련된 체험 외에도 2023년 11월 기준 685개 기관의 3632개 인증 프로그램이 청소년을 기다린다. 유익하고 알찬 겨울방학을 계획할 기회다.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이야기

#1 **중학교 1학년 이준희** 요즘 챗GPT 등 AI를 활용한 기술이 대세인데, 이와 관련된 청소년 활동은 없나요?

지도사 저는 청소년 지도사 이요다입니다. 세란 사고나 학습 등 인간의 지적 능력을 컴퓨터로 구현하는 기술입니다. AI는 우리 일상생활 속에 빠르게 스며들고 있습니다. 용어 자체는 익숙하지만, 컴퓨터·과학·데이터 등 여러 기술을 융합한 AI 분야를 이해하기는 쉽지 않지요. 여러분이 AI 교육을 보다 수월하게 받아들이도록 연천군청소년문화의집이 청소년 활동을 준비했어요.

운영 담당자 연천군청소년문화의집에서는 'AI 스마트 클래스(1일)' 인증 프로그램으로 SW 코딩을 학습한 청소년과 일상생활에 AI를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고민합니다. 그 후 직접 프로그램을 실행하며 AI와 친숙해지세요. AI 개념 및 종류, 머신러닝, 알고리즘, AI 스마트 클래스 등 흥미진진한 프로그램으로 구성했으니 꼭 참여해 보세요. 문의 031-832-7942

#2 **초등학교 5학년 김예준** 농·축·수산업에 IT를 접목한 '스마트 팜'이 활발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와 관련한 청소년 활동을 체험하고 싶어요.

지도사 AI는 생활과 밀접한 기술이기 때문에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지요. 식물, 환경과 맞닿은 농업 분야도 AI를 이해하기 좋은 소재입니다. 인증 프로그램은 대전 대덕구청청소년어울림센터가 소개해 줄 거예요.

운영 담당자 대전 대덕구청청소년어울림센터에서는 '미래 농부 스마트팜(1일)'을 운영합니다. 스마트 팜을 공부하면서 농업 생산 활동이 지닌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고, 사물 인터넷과 연결된 작물 재배 시설 제어부터 수확까지 체험해 도시 농업에 대한 견문을 넓힙니다. 4차 산업혁명을 이해하는 것은 물론, AI 학습 원리까지 배우는 인증 프로그램입니다. 문의 042-626-7728



#3 **고등학교 3학년 이지** 디지털 기술은 발전하지만 윤리적 공백으로 합성사진, AI 보이스 피싱 등 디지털 범죄가 증가하고 있어요. 심지어 저의 반 친구들은 졸업 사진 촬영도 거칩니다. AI 기술이 발전할수록 세상이 무서워지는 것 같아 걱정됩니다.

지도사 밝은 등불의 아랫면이 어둡듯이 사회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은 이런 문제에 대응할 방안을 모색했답니다. AI 교육 전문 기관인 스코프랩스와 함께 'AI 윤리' 판단 역량을 향상하고 디지털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보급형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을 통해 윤리적 행동이 무엇인지 깨달아 스스로 지속 가능한 사회 발전에 참여하도록 돕지요. 2024년 시범 운영을 거쳐 청소년수련활동인증위원회에서 보급할 예정입니다. 문의 02-330-2852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이사장 손연기입니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우리 생활과 사회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디지털 기술이 삶을 어떻게 바꿀지는 기술의 사회적 영향과 책임, 즉 그 기술을 이용하는 사람의 몫입니다. 새로운 기술을 사회 구성원이 합의한 윤리와 규범에 어긋나게 사용하거나 기술 발달이 누군가의 희생을 전제로 하고 라인, 자연을 착취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지는 않는지, 기술 발달의 혜택에서 소외되는 사람은 없는지 등을 두루 살펴야 합니다. 정보사회가 '정보 파놉티콘'이라는 오명을 벗고 '디지털 유토피아'로 거듭나길 희망합니다.

이런 프로그램도 있어요!



프로그램 명 인증 11065호 'AI 스마트 화분 체험'
대상 중학생
운영 기관 (주)아이디융합교육개발원
주요 내용 블록형 프로그램으로 코딩해 AI 스마트 화분 프로그래밍하기
운영 담당자 연락처 062-512-3307

프로그램 명 인증 11468호 '창의·융합 프로그램 도시 농장 스마트 팜(4일)'
대상 초등학생, 중학생
운영 기관 아산시청소년교육문화센터
주요 내용 스마트 팜 기술과 관련한 이론 수업, 메이커 활동으로 4차 산업 기술 이해하기
운영 담당자 연락처 041-539-6600

프로그램 명 인증 10951호 '인공지능 스마트 팜(10일)'
대상 초등학생
운영 기관 연천군청소년수련관
주요 내용 스마트 팜으로 미래 농업 기술 체험, 미래 농업에 대한 이해와 식물 성장 관찰
운영 담당자 연락처 031-834-8785

2023 대한민국 지속가능성대회

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2023 대한민국 지속가능성대회가 열렸다. 의미 있는 수상 결과가 선한 영향력을 전한다.

	<p>명예의 전당 헌정 시멘트 산업 부문 10회 1위</p>	 
---	-------------------------------------	---



ESG 경영 비전 'Green 2030' 실천으로 새 도약 발판 마련

쌍용C&E는 1962년 창업 이래 국가 기간산업의 기본 자재인 시멘트를 생산·공급하면서 한국 건설 산업의 기술 발전을 주도하고, 각종 사회간접자본 확충은 물론 국민 주거 생활 향상 등 경제 발전의 초석을 다지는 데 다각도로 기여해 왔다. IMF 외환 위기 당시 쌍용그룹 해체라는 큰 위기를 겪기도 했지만, 2016년 한연 컴퍼니로 대주주가 바뀌면서 새 역사를 이어 가고 있다.

술선수범하는 자세로 선진 경영을 실천하고자 지난 2020년 국내 시멘트업계 최초로 ESG 경영을 도입했고, 이듬해 ESG 경영 비전 'Green 2030'을 선포했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높은 평가를 받았다. 쌍용C&E는 Green 2030에 종합 환경 기업으로 도약, 기후 변화에 적극 대처해 지속 가능 발전 기업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시멘트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을 최소화하는 설비 투자 또한 확대한다. 저감 설비 도입을 통해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현재 수준 대비 30퍼센트 이상 감축하면서 내부 관리 기준을 법적 기준보다 강화하고자 한다. 나아가 배출 먼지는 집진 효율이 높은 여과 집진기를 활용해 처리하며, 비산 먼지 발생 가능성이 있는 시설은 단계적으로 옥내화 또는 밀폐화할 계획이다.

꾸준하고 적극적인 사회 공헌 활동을 통해 투명한 경영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일에도 앞장선다. 시멘트 산업 지역 사회 공헌 상생 기금을 마련해 공장이 위치한 강원도 동해와 영월 지역에 교육 지원, 주민 환경 및 복지 증진 행사를 추진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특히 동해 시민이 500명 이상 참여한 ESG 플로깅 캠페인 지원 사업은 지역 환경보호 및 보전에 대한 시민 의식을 향상해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효했다. 쌍용C&E의 ESG 경영 혁신은 현재진행형이다. 지난 60여 년 동안 수많은 위기를 극복한 저력은 종합 환경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는 동력이 될 것이다.



“대한민국 시멘트업계 최고 기업으로서 자부심과 자신감으로 활력 넘치는 조직 문화 기틀을 마련하고 윤리 경영과 사회 공헌, 환경 보전 등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는 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현준 대표집행임원 사장

쌍용C&E가 걸어온 길



- 한국 최고 시멘트 기업으로서 순환 자원 사용 확대해 탄소 저감 노력
- 환경 영향 최소화 위한 지속적 설비 투자
- 교육 지원, 복지 증진, 지역 행사 등 지역사회 상생 발전 모색



	<p>지속가능경영 최고경영자 선정</p>	  
---	------------------------	---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선구자적 ESG 경영 추진

기후 위기와 급변하는 경영 환경 속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구하며 글로벌 친환경 종합 사업 회사로서 정체성을 확립해 온 포스코인터내셔널은 2023년 'Green Energy & Global Business Pioneer' 비전 선포와 동시에 친환경 에너지, 소재, 식량 바이오 분야를 3대 핵심 사업으로 선정해 집중 육성하고 있다. 특히 에너지 사업의 밸류 체인을 연결해 시너지를 창출하고, 시장 및 산업 간 경계를 넘어선 사업 기회를 발굴하면서 무한한 가능성에 도전하는 중이다.

정택 부회장은 지속 가능성을 경영 활동의 최우선 가치로 삼아 ESG 경영 추진 체계를 대대적으로 강화했다. 회사의 최고 의결 기구인 이사회 산하에 ESG 위원회를 신설하고 사외 이사를 초대 위원장으로 선임해 국제사회에서 요구하는 이사회의 ESG 경영 관리·감독 역할을 체계화하는 한편, 지배 구조의 독립성과 자율성은 한층 강화했다. 더 나아가, 정 부회장은 모든 C-Level 경영진과 함께 주요 ESG 현안을 심의하고 ESG 전략을 수립하는 등 추진력을 높이는 중이다.

또한 세계적으로 기업의 환경 경영 역량을 중시하는 가운데 정부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부합하는 '2050 탄소중립 기본 로드맵'을 수립, 포스코그룹의 2050 탄소중립 선언에 동참하며 재생에너지 개발 사업에 적극 앞장선다. 정 부회장은 향후 국제적 기준을 충족하는 수준으로 로드맵을 단계적으로 강화해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탄소중립 실행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 임직원이 모든 경영 활동을 수행할 때 인권, 노동, 환경과 반부패에 관한 유엔글로벌콤팩트(UNGC)의 10대 원칙을 준수하도록 경영 전략에 내재화하고,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UN SDGs)를 달성하기 위한 목표를 수립해 회사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한다. 최근 국제사회가 강조하는 지속 가능한 공급망 관리에 대한 책임감을 바탕으로 전 사업장 및 협력사와 ESG 경영을 추진하겠다는 메시지도 전했다.



“공정한 기회를 통해 창의적 도전을 지원하며, 공감과 배려로 서로를 존중하는 기업 문화를 만들어 왔습니다. ‘더불어 함께 발전하는 기업시민’이란 경영 이념에 따라 세상에 가치를 더하는 ESG 경영 선구자로 발돋움할 계획입니다.”
정택 대표이사 부회장

포스코인터내셔널이 걸어온 길



-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구조적 경쟁력 강화
- 환경과 사회에 대한 사회적 책임 완수 노력
- 유엔글로벌콤팩트 10대 원칙 준수 내재화





레코드에서 확장한 서클러 패션, 제로웨이스트 패션 지향

판매 시점이 지난 재고를 활용하기 위해 꾸준하고도 다양한 노력을 해 온 기업이 있다. 바로 코오롱인더스트리 FnC부문(이하 코오롱FnC)이다. 코오롱FnC의 ESG 경영 지침인 '리버스(REBIRTH)'에 기반해 탄생한 업사이클링 패션 브랜드 '레코드'는 판매하지 못하는 의류에 디자인이라는 가치를 더해 전에 없던 독창적 제품으로 재탄생시키고, 놀라운 가능성을 드러내고자 한다.

지난해 코오롱FnC는 리버스라는 ESG 경영 지침을 패션 산업 생태계 전체로 확장하는 여러 시도를 선보였다. 우선 소셜 벤처기업 'KOA(케이오에이)'를 인수했다. KOA는 KOICA(한국국제협력단)와 협력해 몽골 캐시미어 산업 가치 사슬 강화 사업을 시행한 바 있다. 코오롱FnC는 KOA를 통해 지난 9월 KOICA와 다시 한번 손을 잡았다. 몽골·베트남 폐의류·재고 서클레이션 시스템 구축 사업을 준비하는 MOU를 체결한 것이다. 이로써 코오롱FnC는 자회사가 된 KOA의 전문성을 활용, 몽골에 폐캐시미어를 재생하는 서클레이션 센터를 구축한다. 캐시미어 단일 소재의 폐의류·재고 상품을 수거하고 물리적 공정을 거쳐 캐시미어 실을 재활용하는 획기적인 프로젝트다. 이와 동시에 순환 패션에 대한 현지 인식 개선 교육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지속 가능 패션을 향한 코오롱FnC의 분투는 다방면으로 펼쳐진다. 최근 공모를 시작한 '코오롱FnC 패션 임팩트 챌린지'도 그중 하나다. 20대 초반 팬데믹과 엔데믹을 경험하면서 '에코웨이킹(eco-waking, 자연 파괴에 대한 사람들의 경각심이 커지는 현상)'을 겪는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한 ESG 패션 토론 토너먼트 대회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지식을 공유하며 자율적인 토론을 통해 아이디어를 구체화한다. 나아가 코오롱FnC와 이들의 멘토가 해당 아이디어를 솔루션으로 고도화하는 작업도 거친다. 앞으로 이 세계를 살아갈 미래 세대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는 의지가 느껴진다.



"서클러 패션은 미래 패션 산업에 필수불가결합니다. 코오롱FnC는 리버스 경영 철학을 통해 서클러 패션을 예비하고, KOICA와 MOU를 체결해 청사진을 더욱 선명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미래 세대를 위한 ESG 경영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유석진 대표이사 사장

코오롱FnC가 걸어온 길



- ESG 경영 지침에 기반한 업사이클링 패션 브랜드 레코드 론칭
- 소셜 벤처기업 인수 및 KOICA와 협력해 폐소재 재활용 공정 구축
- 청년 세대와 솔루션 공유하는 ESG 패션 토론 토너먼트 대회 개최



초코헬스 제로넛츠로 건강한 초코 생활

당류·콜레스테롤·트랜스지방 함량 제로인 초코 스낵 제로넛츠가 맛있는 하루를 만든다.



초콜릿 간식을 사랑하지만 건강을 위해 참아야 했던 이들에게 희소식이다. 견과류와 무설탕 초콜릿을 조합한 데다 영양 성분까지 완벽한 제로넛츠가 고민을 해결할 테니까. 초콜릿 전문 제조사 주식회사 씨앤지가 자체 브랜드 초코헬스의 신제품 제로넛츠를 출시했다. 아몬드·헤이즐넛·캐슈넛을 무설탕 초콜릿으로 코팅한 제품으로, 당류·콜레스테롤·트랜스지방이 무려 0그램이다. 무설탕 초콜릿이라고 맛을 의심하면 서운하다. 제로넛츠의 강점은 맛이다. 초콜릿 가공품에 흔히 쓰는 저품질 식물성유지를 배제하고, 카카오버터를 넣은 벨기에산 리얼 다크 초콜릿과 알맞게 로스팅한 견과류 등 높은 품질의 원재료만 사용했다. 오독오독한 견과류의 식감과 깊은 풍미를 자아내는 초콜릿에 자꾸만 손이 간다. 포장도 예뻐 연말 선물로도 제격이다. 신제품 출시를 기념해 초코헬스 몰과 브랜드 공식 스마트스토어에서 12월 31일까지 15퍼센트 할인 행사를 진행하니, 제로넛츠로 부담 없는 초코 생활을 시작하자.

문의 02-791-0756 홈페이지 chocohealth.co.kr(초코헬스 몰), smartstore.naver.com/chocohealth(네이버 스마트스토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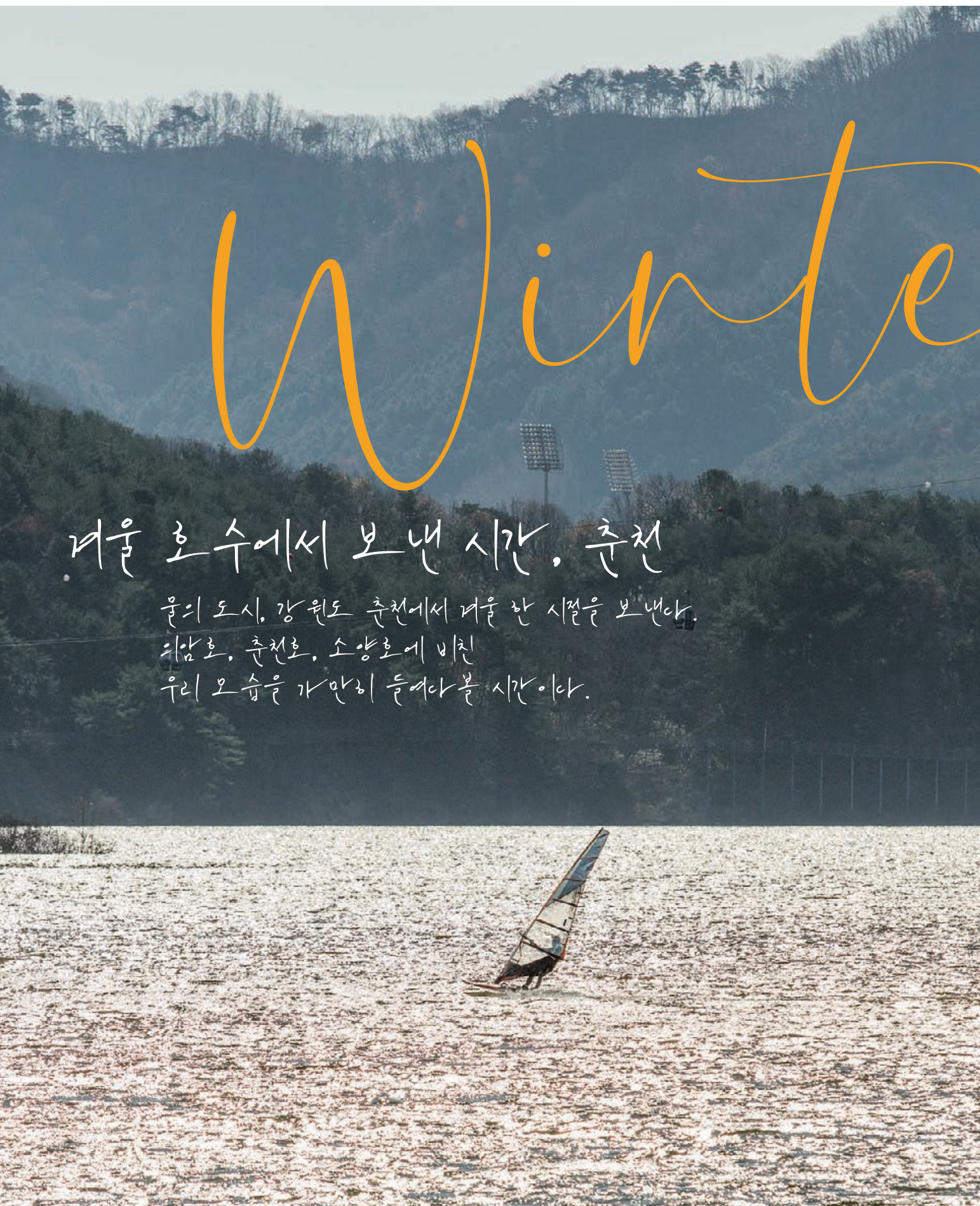
구입 링크



Winter Lak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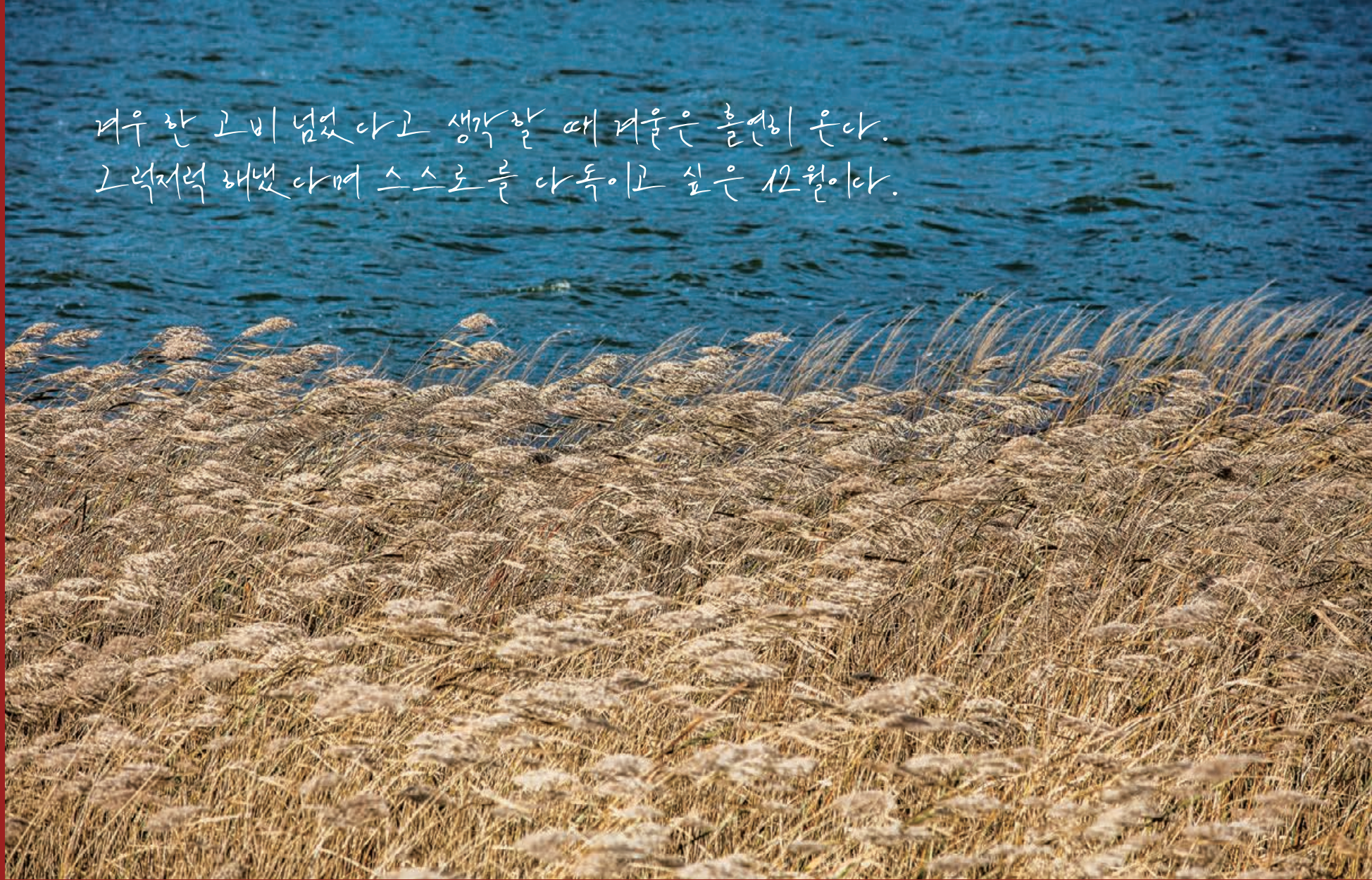
겨울 호수에서 보낸 시간, 춘천

울의 도시, 강원도 춘천에서 겨울 한 시절을 보낸다.
의암호, 춘천호, 소양호에 비친
우리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볼 시간이다.





겨우 한 고비 넘었다고 생각할 때 겨울은 훌연히 온다. 올해도 잘 버텼다, 그럭저럭 해냈으며 스스로를 다독이고 싶은 12월이다. 고요한 성찰과 온기 어린 위로가 필요한 지금, 춘천이란 두 글자를 떠올리면서 용기를 낸다. 낭만적인 철도 관용구, '춘천 가는 기차'에 몸을 싣고 조촐한 송년의 시간을 계획해 본다. 한 해를 갈무리하는 맺음말, 오롯한 마침표가 될 여정이다.



겨우 한 고비 넘었다고 생각할 때 겨울은 훌쩍이 온다.
그럭저럭 해냈 다며 스스로를 다독이고 싶은 12월이다.



어안은 장소다. 하중도란 의암호 한가운데 자리한 섬인 중도의 남쪽 부분으로, 중도의 북쪽은 자연히 상중도라 부른다. 이 섬은 오랜 세월 춘천 시민이 사랑한 소풍 명소이자 나들이 코스다. 무엇보다 선사시대 유적을 품은 역사적 공간이기도 하다. 하중도 생태계의 명맥을 이어 온 공원엔 옛 춘천의 향취가 짙게 배어 있다. 둘러보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다. 물가를 따라 난 돌레길은 호반 도시의 면모를 한껏 느끼게 하고, 섬 안쪽으로 이어진 길은 자작나무와 버드나무 등 여러 수종으로 이루어진 싱그러운 숲을 감상하게 한다. 공원 전체를 살피는데 넉넉잡아 한 시간 정도 걸리니, 두 길을 자유로이 오가며 느긋하게 산책을 즐겨도 좋다. 섬 끄트머리에선 삼악산 호수케이블카가 상공을 수놓은 모습도 맛닥뜨린다. 마침 액자 모양 구조물이 이 절묘한 풍광을 포착한 채 우뚝 섰다. 저 멀리 첩첩 능선에 잠시 마음을 놓아둔다.

의암호, 춘천이라는 삶

춘천 하면 떠오르는 장면이 하나 있다. 새벽빛 머금은 안개와 깊고 푸른 의암호다. 춘천의 아스라한 안개는 수많은 이를 매혹해 왔다. 이 도시에 살았거나 여기서 한 시절을 보낸 문인 스물아홉 명의 이야기를 묶은 문집 <춘천, 마음으로 찍은 풍경>을 우연히 발견하곤 여행에 앞서 뒤적거리다 깨달은 사실이다. 소설가 한수산은 “안개가 있었다. 그것은 내 청춘을 적서준 춘천의 상징이었다”라는 문장으로 안개를 예찬했고, 시인 이승훈은 “가을부터 끼기 시작하는 안개는 겨울을 지나 봄이 되어서야 서서히 물러가곤 했다”라고 쓰며 시

간과 더불어 흘러가는 안개의 심상을 표현했다. 내심 안개를 기대한, 걸음을 재촉한 이유다. 의암호에 다다른 아침은 예상과 달리 짓궂을 만큼 대기가 맑고 투명했다. 구름마저 밀어내는 겨울바람 때문이다. 그 덕에 호수는 어느 때보다도 완전한 파랑으로 물들어 두 눈을 시리게 했다. 습윤한 강풍이 불어와 이따금씩 수면을 흐트러트렸고, 물결은 하얀 햇살을 난반사해 맹렬히 빛났다. 시야엔 거칠 것이 없었다. 삼악산과 드림산은 물론, 춘천의 주산인 오봉산 능선까지 손에 닿을 듯 또렷해 이곳이 분지 지형임을 새삼스레 실감했다. 명징한 아침, 죽비처럼 정신을 내리치는 아침이었다. 하중도 생태공원은 의암호의 모든 광경을 아낌없이 끌

의암호 1967년 의암댐 건설로 생겨났다. 삼악산 자락에 펼쳐진 호수로, 춘천 시내와 맞닿아 있다. 중도, 고슴도치섬, 봉어섬 등을 거느렸다. 겨울엔 상고대가 아름답다.



다산의 자취 따라 물길 유람

의암호 물길을 따라 삼악산과 드림산, 봉어섬이 이루는 조화로운 풍경을 만난다. 춘천의 자연환경과 역사, 문화를 막힘없이 들려주는 인솔자 킹스맨과 카누를 타고 뱃놀이의 즐거움을 만끽한다. 문의 033-251-9600(킹카누 나루터)

호수를 바라보는 데서 나아가, 기꺼이 몸을 던져 물살을 느껴 볼 차례다. 맨몸과 호수 사이를 완충해 주는 건 다름 아닌 카누다. 송암 스포츠타운 빙상 경기장 옆 수변에 위치한 킹카누 나루터에 가면 춘천 물길의 역사와 문화에 해박한 뱃사공 '킹스맨'과 의암호를 누비는 기회가 주어진다. 바람이 제법 거셴데, 박보영 대표이사의 사려 깊은 인솔하에 마음을 다잡고 승선했다. "우리는 이제 정약용 선생의 자취를 밟아 물길을 여행할 겁니다. 선생은 몸소 북한강 지류를 따라 춘천을 탐사한 뒤 <산수심원기>란 책을 남기기도 했죠." 그의 설명이 설렘을 증폭시켰다. 뱃머리가 먼저 향한 곳은 삼악산 용화봉과 드림산 의암봉 쪽이다. 멀리 신연교가 어른거렸다. "지금은 의암호에 흡수됐지만, 소양강 아래 흐르는 이 강을 예부터 신연강이라 불렀습니다. 경춘국도가 없던 시절, 춘천 사람들은 서울로 가기 위해 신연나루에서 배를 타거나 저 너머 석파령을 지나야 했어요." 이 물길을, 산길을 헤치며 나아갔을 옛사람들의 고단한 뒷모습을 상상한다. 녹록지 않은 여정이었을 것이다. "다산도 신연나루를 거쳐 춘천으로 흘러들었는데, 이때 시를 한 수 짓습니다. 제목이 '신연도화길백도', 즉 '신연나루에서 두보의 <길백도>에 화운하다'란 뜻이에요. 다산은 이 물길을 무릉도원에 비유하며 찬탄했지요." 그의 말 한마디에 신연강과 협곡의 풍광이 한결 입체적으로 다가온다. 수만 년 시간 동안 자연이 조각한 벼랑은 과연 그 어떤 조각품보다 아찔하고 아름답다. "드림산 아래 우뚝 선 이 바위의 이름은 문암입니다. 춘천의 관문 역할을 하는 암석이죠. 다산은 이 바위를 '석문'이라 부르며 시를 붙이기도 했답니다." 춘천을 다시 찾는 날, 물안개에 앞서 떠오를 또 하나의 장면을 아로새긴다.

신연강과 협곡의 풍광이 한결 입체적으로 다가온다.
수만 년 시간 동안 자연이 조각한 벼랑은 과연 그 어떤
조각품보다 아찔하고 아름답다.





춘천호, 오월리에서 지낸 한때

의암호에서 북한강을 거슬러 올라가다가 춘성교를 지나면 오월리라는 작은 마을에 접어든다. 춘천 사람 사이에선 오월유원지로 익숙한 동네다. 이 고장에서 손꼽는 피서지이자 피한지인 이곳은 화악산에서 내려온 계곡물이 춘천호로 흘러드는 지점이기도 하다. 여름엔 맑고 시원한 물을 찰방이며 놀다가, 겨울엔 팡팡 언 수면을 얼음 썰매로 가로지른다.

우리는 여기서 조금 더 깊숙이 걸음을 옮기기로 한다. 아담한 학교 건물과 단출한 캠프 사이트가 나타나자, 목적지 오월학교에 다다랐음을 알리는 작은 표지석이 눈을 잡아 끈다. '지암국교 가덕분교장' '춘성군 교육청'. 세로로 쓴 글씨를 소리 내어 읽어 본다. 1982년 폐교한 지암국민학교 가덕분교장은 춘천시와 통합된 춘천군을 아직 춘성군이라 부르던 1969년 문을 열어 첫 학생을 맞았다. 분교이니만큼 아이들이 많지 않아 학제는 4학년까지만 시행했고, 고학년이 된 학생들은 본교로 전학을 가야 했다. 말하자면 졸업생은 없으면서 입학생만 존재하는, 이상하고 아름다운 학교다. 복합 문화 공간 오월학교는 이 건물을 재활용해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정다운 놀이터로 거듭났다.

“가끔 지암국민학교를 기억하는 분이 오월학교를 찾아와요. 여기서 찍었던 사진을 들고 와 옛 모습과 현재 모습을 대조해 보는 분도 계시죠.” 오월학교의 수장인 최상희 대표는 이 건물을 카페와 레스토랑, 스테이와 공방으로 꾸며 모든 세대가 한데 어우러지는 공간을 완성했다. 가구 브랜드 ‘비플러스엠’이 운영 주체이니만큼 곳곳에 나무 테이블과 의자, 찬장 등을 배치해 온기를 불어넣는 것도 잊지 않았다. 카페에서는 아이도 먹을 수 있도록 부드러운 우유와 생오렌지를 조화한 ‘참새라테’를 마련하고, 레스토랑 ‘오월/밭’에서는 춘천의 밭에서 자란 작물로 정성스럽게 만든 메뉴를 선보인다. 봉명리 농가에서 공수한 한돈으로 요리한 ‘오월 떡갈비 덮밥’과 오음리에서 재배한 들깨를 저



춘천호 시내 북쪽에 위치한 인공 호수로, 1965년 춘천댐 완공으로 조성됐다. 신북읍 용산리와 서면 오월리 사이에 자리한다. 호수를 낀 도로는 춘천 최고의 드라이브 코스다.

오월리에 위치한 지암국민학교 가덕분교 건물이 복합 문화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카페, 레스토랑, 스테이, 공방 등 다채로운 공간으로 구획해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머물며 편안한 시간을 보낼 수 있다. 문의 033-253-2111(오월학교)

은 압착한 들기름으로 볶은 ‘들기름 파스타’가 심신에 포만감을 안긴다. 이곳에 조금 더 오래 머물고 싶은 이라면 학교라는 이름이 아깝지 않은 ‘우드 카빙 클래스’를 수강해 본다. 우드 카빙 초심자는 손바닥만 한 디저트 접시를 깎는 것부터 시작한다. 접시 다음은 숟가락과 포크, 그다음은 컵받침이다. 난도는 큰 물건에서 작은 물건으로 갈수록 높아진다. “사포를 쓰지 않고 나무를 깎아 형태를 이루어 나가는 과정이 참 매력적이에요. 같은 목재에서 출발하지만 결과물은 저마다 다른 모양을 갖추게 되거든요.” 최 대표의 설명이 호기심을 자극한다. 학교에 저녁이 찾아오니 곧 캠프파이어가 어둠을 밝힌다. 모닥불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자 스테이 투숙객이 하나둘 둘러앉기 시작하고, 군불 같은 정담이 청명한 겨울 공기를 훗훗하게 덥힌다. 이제 지친 몸과 짓무른 마음을 꺼내어 말릴 시간. 맑고 까만 하늘엔 별빛이 흩어진다.

QR코드를
스캔해 보세요



<KTX매거진> x MBC 라디오 <노중훈의 여행의 맛>
춘천에 다녀온 <KTX매거진>이 MBC 표준FM <노중훈의 여행의 맛>을 통해 독자, 청취자 여러분과 만납니다. 취재 뒷이야기, 지면에 미처 소개하지 못한 여행 정보를 함께 들려 드립니다.
* 12월 2일 오전 6시 5분(수도권 95.9MHz)
* QR코드를 스캔하면 방송을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소양호, 춘천의 내밀한 아름다움

겨울 같은 소양호를 건너 청평사까지 한달음에 달려간다. 신비로운 전설이 깃든 회전문을 보고 싶어서 마음이 들쭉거렸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남 부러울 것 없어 보이는 당나라 공주다. 한 청년이 공주에 대한 사랑을 이루지 못한 채 죽어서 뱀이 되었고, 공주의 옥체를 휘감아 떨어지지 않았다. 기이한 일 때문에 집을 떠난 공주는 한반도 깊은 산중의 절 청평사에 닿는다. 지친 공주가 절에서 밤을 얻어 오겠다고 나서자 뱀이 거짓말처럼 몸에서 떨어졌는데, 이윽고 밤을 얻어 나왔더니 뱀은 번개를 맞아 문 앞에 스러져 있었다. 죽은 뱀과 공주 사이 결계가 된 이 문을 회전문이라 불렀다는 설이 전해 내려온다. 환희령에 올라선 삼층석탑의 별칭 '공주탑'도 바로 이 전설에서 기인했다.



드라마틱하고 환상성 짙은 옛이야기와 달리 청평사의 새벽은 호젓하기만 하다. 오봉산 아래 가만히 절집이 마치 가부좌를 튼 불자의 자세를 닮았다. 영현 선사가 973년 창건한 청평사는 승려 같은 삶을 추구한 고려 중기의 학자 이자현이 문수원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중창하면서 지역을 대표하는 큰 사찰로 주목받았다. 수차례 전쟁으로 아름다운 전각들이 소실되긴 했지만, 천년 사찰의 고즈넉한 정취는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도 여전할 것이다. 윤희전생의 섭리를 깨우치는 회전문을 지나 팔작지붕을 갖춘 2층짜리 누각인 경운루를 맞닥뜨린다. 누각 위층 창틀에 걸린 풍경은 그 자체로 살아 숨 쉬는 산수화다. 몸을 낮추어 조심스레 마당에 들어서니 왼편에 관음전, 오른편에 나한전, 맞은편에 대웅전이 자리한다. 오묘한 기운에 압도되어 절로 고개를 조아린다. 바닥에 아무렇게나 쌓은 듯한 돌담도 예사롭지 않다.

소양호 강원도 춘천, 양구, 인제를 아우르는 호수다. 1973년 소양강댐을 축조하면서 만들어졌다. 저수 용량이 약 29억 톤에 달한다. 유람선을 타고 소양호를 가로질러 청평사 입구까지 닿는다.



윤희전생의 섭리를 깨우치는 회전문을 지나
경운루를 맞닥뜨린다. 누각 위층 창틀에 걸린 풍경은
그 자체로 살아 숨 쉬는 산수화다.

오봉산 자락에 자리한 사찰 청평사는 보물로 지정된 회전문을 비롯해 유려한 전각과 부속 시설, 자연환경을 거느린다. 소양호에서 청평사로 올라가는 등산로엔 계곡물이 흘러내려 눈과 귀가 즐겁다.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은 청평사의 낮과 밤을 온전히 경험할 기회다. 문의 033-244-1095(청평사)





☞ 서울 출발을 기준으로
용산역에서 ITX-청춘을 타고
춘천역까지 1시간 20분 정도
걸린다.



합장하고 나와 돌아가는 길. 무수히 많은 이가 청평사를 사랑한 이유는 오봉산에서 소양호까지 이어진 유려한 산길에 있다. 낙엽을 떨구어 맨몸으로 우뚝 선 나무들과 잘생긴 돌병풍, 거침없이 흐르고 또 흐르는 계곡물. 조선 시대부터 “아홉 그루 소나무 아래 폭포”라 하여 구송폭포라 부르기도 하고, 아홉 가지 소리가 뒤섞여 난다 해서 구성폭포라는 별칭을 얻기도 한 이 폭포는 청평사 등산로의 하이라이트다. 전생의 번뇌까지 씻어 낼 듯 팔팔 쏟아지는 물을 보며 정든 해를, 과거가

된 모든 시간을 떠나보내야겠다고 마음먹는다. 안녕, 2023년. 소양호 수면에 내린 아침 햇살을 마주하는 동안, 춘천에서 만난 누군가가 해 준 이야기가 떠올랐다. 춘천은 우리말로 ‘봄내’라 하는데, 실은 겨울이 길고도 추워서 봄을 기다리는 간절함을 투영한 지명이라고. 달리 말하면 춘천이야말로 겨울다운 겨울을 간직한 도시라는 것 아닐까. 그러니 춘천의 진정한 봄은 겨울인지도. 이 땅에 도착한 눈부신 계절을 기꺼이 맞는다. 안녕, 겨울 춘천. 🍁



춘천이야말로 겨울다운 겨울을 간직한 도시가 아닐까. 그러니 춘천의 진정한 봄은 겨울인지도. 이 땅에 도착한 눈부신 계절을 기꺼이 맞는다. 안녕, 겨울 춘천.



Chuncheon, Winter by the Lakes

I am spending this winter in Chuncheon, the city of water, in Gangwon-do Province. Uiamho Lake, Chuncheonho Lake, and Soyangho Lake offer a time of reflection.

Winter has crept up on us once again. I acknowledge my growing need for quiet introspection and warm comfort is growing, and the word “Chuncheon” gives me courage. I plan a modest year-end celebration as I board the “train to Chuncheon,” which has become a romantic set phrase.

Uiamho Lake: Life in Chuncheon

The morning that arrives at Uiamho Lake is surprisingly clear and transparent. The wind seems to have pushed away even the clouds. The lake is dyed in a more complete blue than ever before. This clear morning has caught my attention

like how a bamboo clapper keeps alert a zen practitioner. I decide to go beyond simply gazing at the lake. The canoe is the perfect buffer between my body and the waters. King Canoe Quay, located next to the Songam Sports Town Ice Rink, gives you the opportunity to explore Uiamho Lake with the knowledgeable boatman known as “Kingsman.” The waves are quite rough, but I feel reassured under the guidance of CEO Park Bo-yeong. “Now, we will travel the waterways following the footsteps of the great scholar Jeong Yak-yong. He explored Chuncheon along the tributaries of the Bukhangang River and even left a book called *Sansusimwongi*.” His explanation intensifies my excitement.

Owol-ri, a Village by Chuncheonho Lake

As you ascend along the Bukhangang River and pass Chunseonggyo Bridge, you enter a small village called Owol-ri. The cultural complex Owol School, once an abandoned school, is a charming playground befitting the new era. CEO Choi Sang-hee has opened a café, restaurant, stay facility, and studio, transforming the building into a space for all generations. If you are there, don’t miss the Wood Carving Class. Beginners in wood carving start by sculpting a dessert plate the size of their palm. Next, they move on to carving a spoon and fork, and then a cup coaster. As evening approaches, a campfire shines in the darkness. The guests start gathering around the bonfire, and share delightful stories that warm the crisp winter air. Now is the time to rejuvenate tired bodies and weary minds. The clear, dark sky is studded with twinkling stars.



Soyangho Lake: Chuncheon’s Inner Beauty

I cross the mirror-like Soyangho Lake, and head towards Cheongpyeongsa Temple. Passing through a Hoejeonmun Door that awakens the cycles of reincarnation, I come across the two-story Gyeongunru Pavilion, with an hipped and gable roof. The landscape framed in the upper window of the pavilion is a living painting in itself. Lowering my body, I cautiously enter the courtyard. To the left, there is Gwaneumjeon, to the right, Nahanjeon, and across, Daeungjeon. Overwhelmed by a mysterious energy, my head instinctively bows down. I pay my respects at the altar. The trail connecting Obongsan Mountain to Soyangho Lake is one of the many reasons why so many people love Cheongpyeongsa Temple. The naked trees are standing tall, the rocks are neatly lined up like a folding screen, and the stream flows endlessly. Gusong Waterfall, a highlight of the hiking trail, was named as such because of its location under nine pine trees. It also goes by the name of Guseong Waterfall, where “guseong” means “a mix of nine sounds.” The gushing waters seem to wash away the troubles of past lives, and I’m ready to bid farewell to 2023. Adios. 🇰🇷





춘천에서 여기도 가 보세요



즐길 거리



삼악산 호수케이블카 의암호를 즐기는 또 하나의 방법, 창공을 가로지르는 것이다. 삼천동에서 출발해 의암호를 건너 삼악산까지 닿는, 장장 3.61킬로미터에 달하는 케이블카로 춘천의 산수를 유람한다. 66대 캐빈 중 20대는 바닥을 투명하게 만들어 풍광을 조금 더 선명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크리스털 캐빈이다. 함박눈이 내려앉아 하얗게 변한 겨울의 도시를 바라보는 건 색다른 즐거움을 안긴다. 케이블카 정차장도 그 자체로 전망 명소다. 삼악산 정차장에서는 도시 풍경을 내려다보고, 의암호 정차장에서는 병풍 같은 삼악산을 마주한다.

문의 1588-4888



소양강 스카이워크 174미터 길이로 시원스레 뻗은 다리를 거닐며 노래를 흥얼거린다. "해 저문 소양강에 황혼이 지면..." 소양강 스카이워크는 의암호와 소양강을 조망하는 최적의 장소다. 투명한 강화유리로 일부 구간을 설계한 덕분에 수면을 걷는 듯 짜릿한 기분을 느낀다. 광장과 포토 존, 마스크트 '쏘가리상'이 자리해 특별한 경치를 누리고, 여행의 추억을 사진으로 기록하기 좋다. '소양강 처녀' 가사처럼 해가 저문 뒤엔 야경을 감상해야 한다. 근처 소양정에 올라 소양강과 스카이워크, 소양2교와 소양강처녀상을 한눈에 굽어본다.

문의 033-240-1695

먹거리



페티앵 프랑스어로 '페티앵(petillant)'은 탄산감 있는 액체가 소리를 내며 거품이 이는 모습을 뜻하는 형용사다. 샴페인을 비롯해 다채로운 와인을 취급하는 파인다이닝인 이곳은 그야말로 춘천 속 작은 프랑스다. 독특한 색감과 입체적인 질감으로 장식한 인테리어부터 눈길을 사로잡는데, 소믈리에가 섬세하게 큐레이션을 한 와인이 목구멍을 타고 흘러드는 순간엔 온몸의 감각세포가 깨어나는 기분이 든다. 가리비 관자, 캐비아, 가시발새우, 모델 버섯 등 최고급 재료를 아낌없이 사용한 음식은 술맛을 한층 돋운다. 코스와 단품으로 두루 즐길 수 있다.

문의 033-252-8283



전통주조 예술 예술이란 상호는 여러 가지 뜻을 함축한다. 예부터 내려온 술, '단술 예(醴)'자와 술을 합친 말, 술을 빚는 행위 그 자체. 신동면 실례마을에 자리한 이곳은 쌀과 전통 누룩을 근간으로 천연 재료만 사용해 맛 좋고 속 편한 술을 빚는 공간이다. 53도를 자랑하는 증류식 소주 '무작 53'은 목 넘김이 부드럽고 꽃 향이 흐드러지는 제품으로 전통주조 예술을 대표하는 술이다. 쌀과 복분자를 원료로 했으면서도 드라이한 풍미가 조화로운 '동짓달 기나긴 밤'은 이 계절과 더없이 잘 어울린다. 고운 빛깔과 은은한 향내에 취흥이 한껏 끓어오른다.

문의 033-261-1525



건강한 겨울 나기, 파나소닉 안마의자

온기 어린 마사지로 매서운 겨울바람을 이겨 낸다. 최대 300만 원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연말 고객 감사 이벤트로 파나소닉 안마의자를 경험할 시간이다.

아침마다 기온이 영하를 기록하는 요즘, 찬 바람에 어깨가 움츠러들고 목직한 외투에 목덜미가 빠근해진다. 살을 에는 한기가 옷깃을 뚫고 들어와 체온을 떨어트리니, 면역력이 저하하는 것은 물론 잦은 피로와 무기력증에 심신이 지친다. 각별한 건강관리가 필요한 계절이니만큼 적극적으로 헬스케어 가전을 활용해보는 건 어떨까. 파나소닉 안마의자라면 겨울을 맞은 우리의 몸과 마음에 활기를 불어넣어 줄 것이다.

하이엔드 안마의자 EP-MAK1은 기민한 건강관리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다. 마사지 볼에 가해지는 압력을 감지해 사용자에게 최적화된 맞춤형 안마를 선보이기 때문이다. 문제 부위에 효과적으로 접근해 지압·두드리기·스트레칭 등 여러 기능을 실행하고, 터치 패널 컨트롤러를 탑재한 덕에 취향에 맞는 마사지 메뉴도 고를 수 있다.

헬스케어 가전 분야에서 안마의자 기술을 이끌어 온 파나소닉은 88년 세월 동안 부단한 연구와 생산 인프라를 구축해 최고 수준의 제품력에 도달했다. 파나소닉 안마의자 기술력의 정점을 보여 주는 것은 마사지 볼이다. 세밀하게 압력을 전달해 피로를 해소하는 마사지 볼은 다채로운 주무르기 기능으로 입체적인 안마 코스를 수행한다. 몸 구석구석 뭉친 근육을 전문가의 손길로 공들여 풀어 주는 EP-MAK1이 당신의 건강한 겨울을 보장한다.



EP-MAK1(아이보리) EP-MAK1(베이지) EP-MAK1(블랙)

[1] 파나소닉 안마의자 연말 고객 감사 이벤트

안마 기술 집약체, 파나소닉 안마의자 구매 고객에게 최대 300만 원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감사 이벤트를 연다. 행사 대상 품목은 EP-MAJ7, MAF1, MA32, MAC9, MA22, MA05로 취향껏 고를 수 있도록 제품 선택의 폭을 넓혔다. 기간 12월 1일~31일

[2] 고온 살균 스팀 청소기 증정 이벤트

EP-MAK1 제품 구매 고객에게 파나소닉 고온 살균 스팀 청소기 MC-S5W를 선착순으로 증정한다. 가볍고 날렵해 사용하기 간편한 본 제품은 강력한 130도 스팀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을 깔끔하게 제거해 준다. 기간 12월 1일~31일

파나소닉 프리미엄 안마의자 EP-MAK1 마사지 전문가의 지압 패턴을 분석해 그대로 재현한 하이엔드 안마의자 EP-MAK1은 문제 부위에 효율적으로 접근해 지압, 스트레칭, 문지르기, 주무르기 등 방대하면서도 정교한 마사지 코스를 수행한다. 나아가 마사지 볼이 받는 압력을 탐지하는 정교한 기술로 사용자의 키와 신체 유형에 최적화된 맞춤형 안마를 선보인다.

주민이 초대하는 다정한 여행, 고흥

고장의 여행 자원을 주민 여행 기획단이 직접 발굴하는 프로그램 '노마드 고흥'.
그들의 손길이 닿은 여행 코스를 따라 전남 고흥을 거닐었다.

Nomad Gyoheung





고흥과 가까운 역은 순천역이다. 서울 출발을 기준으로 용산역에서 KTX를 타고 순천역까지 3시간 정도 걸린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고,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는 어느 시구처럼 전남 고흥을 애정 가득한 눈으로 들여다보는 사람들이 있다. 지역 주민이 직접 고장의 여행 자원을 발굴하는 프로젝트 ‘노마드 고흥’의 주민 여행 기획단이다. 한 고장에 거처를 마련해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곳의 매력을 느끼기 마련이다. 노마드 고흥은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 간다. 미처 주목받지 못한 여행지를 서로 공유하고 답사한 후, 장소를 이어 코스로 만든다. 이렇게 탄생한 코스는 여행자에게 고흥 구석구석을 안내하는 새로운 지표가 된다. 섬, 미식, 청년, 걷는 길, 탐조 총 다섯 팀이 다섯 가지 주제로 코스를 이끌어 선택지도 다양하다. 그 고장의 주민이 추천하는 여행지라니, 고흥 풍광을 눈에 담고 싶어 마음이 분주하다. 서울 용산역에서 KTX를 타고 재빠르게 남쪽으로 달린다. 전남 순천역에서 내려 자동차로 갈아탄 후 한 시간 정도 지났을까, 고흥에 도착했음을 알리는 표지판이 보인다.

숨은 보물섬, 진지도

섬 팀과 걷는 길 팀 모두 단번에 반해 입을 모아 추천하는 진지도가 첫 번째 목적지다. 진지도에 가려면 옥금도와 백일도를 거쳐야 한다. 반도와 100개가 넘는 섬으로 이루어졌다는 지리적 특성 때문에 섬과 섬 사이를 연결한 다리가 종종 보인다. 두 섬 역시 연륙교를 이용해 오갈 수 있어 사실상 육지에 가깝다. 백일도 북쪽 선착장에서 이동 수단을 바꾼다. 저 멀리 조그마한 배가 천천히 마중을 나온다. 시야를 가린 진도를 지나니 금세 진지도가 드러난다. 작은 배를 타고 물살을 가르며 가는 길. 바다는 손을 뻗고 싶을 만큼 온화하고 잔잔하다. 오늘은 바다가 얇전한 편이라는 선장의 이야기를 들으며 5분가량의 짧은 항해를 마친다.

진지도의 이름은 고려 시대 섬 정상에 진지를 구축해 왜적의 동태를 살피곤 했다는 구전 때문에 지어졌다. 지금은 진지 대신 아담한 전망대가 자리한다. 고흥 사람마저 잘 모르는 미지의 섬에도 사람이 산다. 선착장 근처에 네 가구가 모여 있으니 큰 소리를 내지 않도록 유의한다. 여행자의 방문이 낯선 것인지, 돌담 너머 누렁이가 킁킁 짖는다. 그 소리를 뒤로한 채 본격적으로 섬을 탐방한다. 섬이 남북으로 길쭉한 모양이라 선착장에서부터 한 시간 반 정도 걸으면 북쪽 끝인 진지머리에 닿는다. 화창한 날에는 진지머리에서 여수까지 보인다고 하니, 트레킹하듯 즐겁게 발걸음을 옮긴다.

숲길로 들어가려는 순간, 길 옆으로 고요한 해변이 나타난다. 검은 바위가 부서져 형성된 모래사장의 색이 독특해 잠시 머무르는데, 섬 팀 주민 여행 기획단 송주민 씨가 담담한 목소리로 말을 건네 온다. “진지도로 처음 답사를 왔을 때 가장 인상 깊었던 장소예요. 큰 바위에 가만히 앉아 바다를 응시하니 복잡한 세상에서 벗어나 자연에 치유받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풍경에 집중하자 그의 말처럼 마음이 편안해진다. 조용하고 깨끗한 환경이 분위기를 형



지역 문화 활력 촉진 지원 사업의 일환인 노마드 고흥은 주민 여행 기획단이 여행 작가와 함께 고흥의 숨은 여행지를 발견하고, 주민이 주도적으로 여행 코스를 만드는 프로그램이다. 다섯 가지 테마의 코스를 모아 가이드북도 제작한다. 문의 061-830-4938

성하는 데 한몫한다. 진지도 숲길 역시 마찬가지다.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오직 나와 자연만 존재하는 환경. 나무 사이로 문득문득 비치는 푸른 남해 풍경이 다리에 힘을 실어 준다. 걸음을 돌려 섬 초입의 전망대에 오른다. 마침 쏟아지는 햇빛 덕에 바다가 반짝반짝 빛난다. 인내심을 가지고 바다를 잘 살피면 수면 근처에서 오르락내리락하는 물고기도 눈에 띈다. 저쪽에서 방금 등을 보인 녀석은 어떤 물고기일까. 진지도가 내어 주는 선물 같은 풍경에 한동안 전망대에서 걸음을 떼지 못한다.

녹동항을 한눈에 담는 방법

고흥을 방문할 때 녹동항은 빼놓으면 아쉬운 장소 중 하나다. 생선은 물론 김, 미역, 다시마 등 신선한 해산물이 모여 고흥의 맛을 응축한

곳인 데다 녹동항 바다정원, 소록대교 등 낮밤으로 반짝이는 볼거리가 풍부하기 때문이다. 또 녹동신항연안여객선터미널에서 배를 타고 3시간 40분을 달려 제주도에 닿기도 하니, 이 고장의 여행지로 손꼽을 만하다.

그런 녹동항의 모습을 보려면 어디로 가야 할까. 정답은 비봉산에 있다. 비봉산은 녹동항 인근에 자리해 등산로 입구에서 조금만 가도 남해가 빼꼼히 드러난다. 높이도 해발 220미터라서 금방 정상에 도착할 것 같지만 알았다가는 큰코다친다. 전국의 이름난 산처럼 높지는 않아도 경사가 급해 그에 버금갈 만큼 단단히 준비하고 나서야 하기 때문이다. 솔잎이 바닥에 소복이 깔려 솔향기 은은한 산책로를 지나자 곧 나무가 우거지고 아찔한 경사가 펼쳐진다. 한 걸음씩 집중하다 보니 빼질빼질 땀이 흐른다. 온몸이 열기로 후끈해져 찬 바람도 두렵지 않을 즈음, 드디어 비봉산 정상에 도착한다.

숨 고르고 땀 닦을 새도 없이 감탄사가 터져 나온다. 발아래에 녹동항의 모습이 온전하다. 손톱만 한 배들이 항구를 떠나 바다를 향해 나아가고, 웅장한 소록대교와 거금대교가 눈에 들어온다. 바다 위에 조성한 녹동항 바다정원의 동그란 모양도 발견한다. 머리카락을 적시던 땀은 녹동항 구석구석을 뜯어보는 새에 이미 마른 지 오래다. 두 다리를 열심히 움직여 다다른 보람이 있다며 웃음을 터트리다가, 휴대전화 화면 꺼내 사진을 찍는다. 품을 들여 찾은 답을 오래도록 남겨 두고 싶어서다. 그림처럼 펼쳐진 하늘에 곧 겹겹이 붉은색이 칠해진다. 고흥에도 밤이 오려나 보다. **K**

COURSE

1



섬 코스

고흥군에서 난 김의 3분의 1을 생산하는 시산도를 소개합니다. 거금도 남동쪽 끝 오천항에서 여객선을 타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일출 명소, 몽돌로 이루어진 해변과 탕자나무 가득한 해변까지! 청정한 고흥의 자연을 만끽하세요.



- **살푸섬**
- **신기름해변**
- **용지공원**
- **전망대**
- **납대기 탕자탕자해변**

COURSE

3



청년 코스

내 안의 에너지를 소진한 날, 고흥 청년이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한 이들에게 남도의 끝 고흥으로 오길 권합니다. 치친 일상에서 로그아웃하고 기운을 충전하는 여행을 떠나세요. 이 고장의 심장, 고흥군청에서 시작해 고흥의 거금도까지 둘러봅니다.



- **고흥읍 권역**
존심당, 옥하공원, 음성둘레길
- **고흥만방조제 권역**
고흥만방조제 드라이브길, 고흥만수변노을공원
- **녹동항 권역**
녹동시장, 녹동항 바다정원
- **거금도 권역**
거금도

2023 Nomad Goheung

노마드 고흥이 제안하는 고흥 테마 여행

COURSE

2



미식 코스

식도락 여행을 사랑하는 분에게 추천합니다. 제철을 맞아 맛이 오른 삼치를 회와 구이로 즐기고, 장어 한 마리를 몽텅몽텅 썰어 넣은 뜨끈한 장어탕으로 몸을 덥힙니다. 나로도항에서 품미 깊은 커피를 맛보는 것도 잊지 마세요.



- **갑재민속전시관**
- **일조식당**
- **산티아고 커피**
- **고흥분청문화박물관**
- **팔영대교**
- **다도해회관 삼치회**
- **나로도 썩섬**
- **녹동항 장어탕**
- **평화국밥**

COURSE

4



걷는 길 코스

고흥 땅을 직접 밟으며 이 고장의 매력을 느껴 보세요. 바다와 맞닿은 길을 거닐고, 섬 속에 우거진 숲길을 살피면 그동안 몰랐던 새로운 고흥의 모습을 발견할 거예요. 거리는 약 6.3킬로미터, 소요 시간은 약 2시간 10분입니다.



- **신곡리**
- **화덕마을회관**
- **독대마을회관**
- **백일도**
- **진지도**

COURSE

5



탐조 코스

사람뿐 아니라 새들도 고흥을 찾는다든 사실을 아시나요? 고흥 득량만에서 만날 수 있는 새들 중 국제멸종위기종과 천연기념물만 10종이 넘는답니다. 특히 1, 2월에는 조성천 저류지와 고흥호에서 펼쳐지는 가창오리의 군무가 장관입니다.



- **대서면 조성천 저류지, 장선포 갯벌**
- **송림저류지와 주변 갯벌**
- **두원면 동촌·신월갯벌, 고흥호 간척지**
- **관찰 가능한 조류**
노랑부리저어새, 큰기러기, 가창오리, 큰고니, 황새, 재두루미, 흑두루미 등

© 송재권

황금빛 단양을 고스란히 담은 술, 단양 황금마늘

밭길 닿는 곳마다 수려한 경관이 펼쳐지는 충북 단양에서 자란 특별한 마늘로 만든 술 단양 황금마늘을 맛본다.

단양의 색

아름다운 여행지가 많은 단양은 사계절 사랑받지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빛깔은 역시 황금색이다. 총면적의 80퍼센트를 차지하는 산을 물들인 울긋불긋 화려한 색, 맑은 계곡에 햇살이 떨어질 때의 반짝거리는 색이 황금 도시를 연상시킨다. 단양에서 재배한 흑마늘로 빚은 '단양 황금마늘'은 계절마다 고운 색을 자랑하는 단양의 풍경처럼 은은한 금빛을 띠는 술이다. 제품명에 '황금'을 붙인 이유다. 로고는 단양을 대표하는 특산물인 마늘을 본떠 제작했다.

단양의 맛과 멋을 담다

고원생대부터 고생대·중생대·신생대 지질을 관찰할 수 있는 단양은 그 의미가 커 도시 전체가 국가지질공원으로 지정되었다. 지질 명소가 25곳에 달할 정도이며, 각종 퇴적암을 비롯해 테라로사도 빼놓을 수 없는 특징이다. 석회암이 풍화돼 생긴 이 적갈색 토양은 지질학적 가

치는 물론 농업에서도 유의미하다. pH가 6~7이라 작물을 키우기 적합해 이 토양에서 일교차가 큰 단양의 기후 조건을 견디고 자란 마늘은 단단하고 저장성이 뛰어나다. 맛과 향도 좋아 마늘은 단양을 대표하는 농산물로 자리매김했다.

마늘로 담근 단양 황금마늘은 알싸함을 줄이고 마늘의 단맛을 극대화해 한 번 맛보면 자꾸만 손이 간다. 이는 특유의 자연 풍광에 반한 이들을 다시 발걸음하게 하는 단양을 닮았다. 이제 맛으로도 이렇듯 매력적인 단양을 기억하게 됐다.

지금은 단양 황금마늘을 나눌 때

오늘날 슈퍼푸드로 꼽히는 마늘의 효능은 고서에도 드러난다. 허준은 <동의보감>에서 "성질이 따뜻한 마늘은 냉과 풍증을 제거하고 비장을 튼튼하게 하며 위를 따뜻하게 한다"라고 설명한다. 추운 겨울, 소중한 이들과 단양 황금마늘을 나누며 기운을 북돋아 보자.



단양 황금마늘

향기 깊은 단양 흑마늘로 담근 약주다. 단양 황금마늘이라는 이름처럼 술 빛깔이 황금빛을 띠며, 도수는 16%다. 흑마늘을 술로 가공하는 과정에서 항산화 물질인 폴리페놀이 증가한다. 매운맛은 줄어들고 단맛은 극대화한 것이 특징이다. 단양 황금마늘과 함께 깊고 풍부한 단양의 맛을 음미한다. 문의 043-420-2906

단양 황금마늘

Danyang Black Garlic Wine

ALC. 16% | VOL. 375ml



언제나 활짝 열린 국립극장에 오세요

서울 국립극장이 로비를 개방하는 등 손님맞이 준비를 마쳤다. 박인건 극장장과 국립극장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이야기했다.



Q. 2023년은 국립극장이 남산으로 이주한 지 50주년을 맞는 해였습니다. 기세를 이어 2024년 6월까지 국립극장의 새 레퍼토리가 이어지지요. 극장장님이 여는 첫 시즌, 어떤 내용인가요? A. 국립극장은 1950년 서울 태평로 부민관에서 창립된 이후 1973년 남산 장충동으로 이전하며 전문 제작 시스템 등을 갖춘 제작 극장으로 거듭났습니다. 우선 12월에는 이를 기념하기 위해 국립극장 남산 시대를 함께 열었던 세 분의 예술가를 모셔 <세종의 노래: 월인천강지곡>을 무대에 올립니다. 사랑과 화합을 주제로 하는 공연이라 연 말 분위기와 잘 어울리지요. 2024년 상반기에 눈여겨볼 공연으로 국립창극단·국립무용단·국립국악관현악단의 작품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3월에는 국립국악관현악단이 <관현악시리드III-한국의 숨결>을, 4월에는 국립무용단이 <사자의 서>를, 6월에는 국립창극단이 신작 <만신: 페이퍼 샤먼>을 준비했으니 이번 시즌도 기대해 주세요.

Q. 국립극장의 작품이 세계 무대에도 진출하고 있습니다. 국립극장이 한국 문화를 알리는 데 어떤 기여를 하고 있나요? A. 국립창극단이 영국 에든버러 인터내셔널 페스티벌에 초청된 것을 빼놓을 수 없지요. 창극 <트로이의 여인들>이 2016년 초연 이후 2017년 싱가포르 예술축제, 2018년 영국 런던국제연극제, 네덜란드 홀란드 페스티벌 등에 초청되어 작품성과 대중성을 동시에 인정받았습니다. 창극이 세계 공연 예술계에서 뚜렷한 존재감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이죠. 국립무용단 역시 지난 10월 북미 투어를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대표 레퍼토리 중 하나인 <목향>이 캐나다 오타와 국립예술센터, 미국 워싱턴 존에프케네디센터 무대에 올랐습니다. 국립국악관현악단도 한국 문화 예술을 세계에 알리는 사절단 역할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올해 9월 카자흐스탄 알마티극장에서 한-카자흐스탄 상호 문화 교류의 해 기념 공연



<Into the Light(인 투 더 라이트)>로 뜨거운 박수갈채를 받았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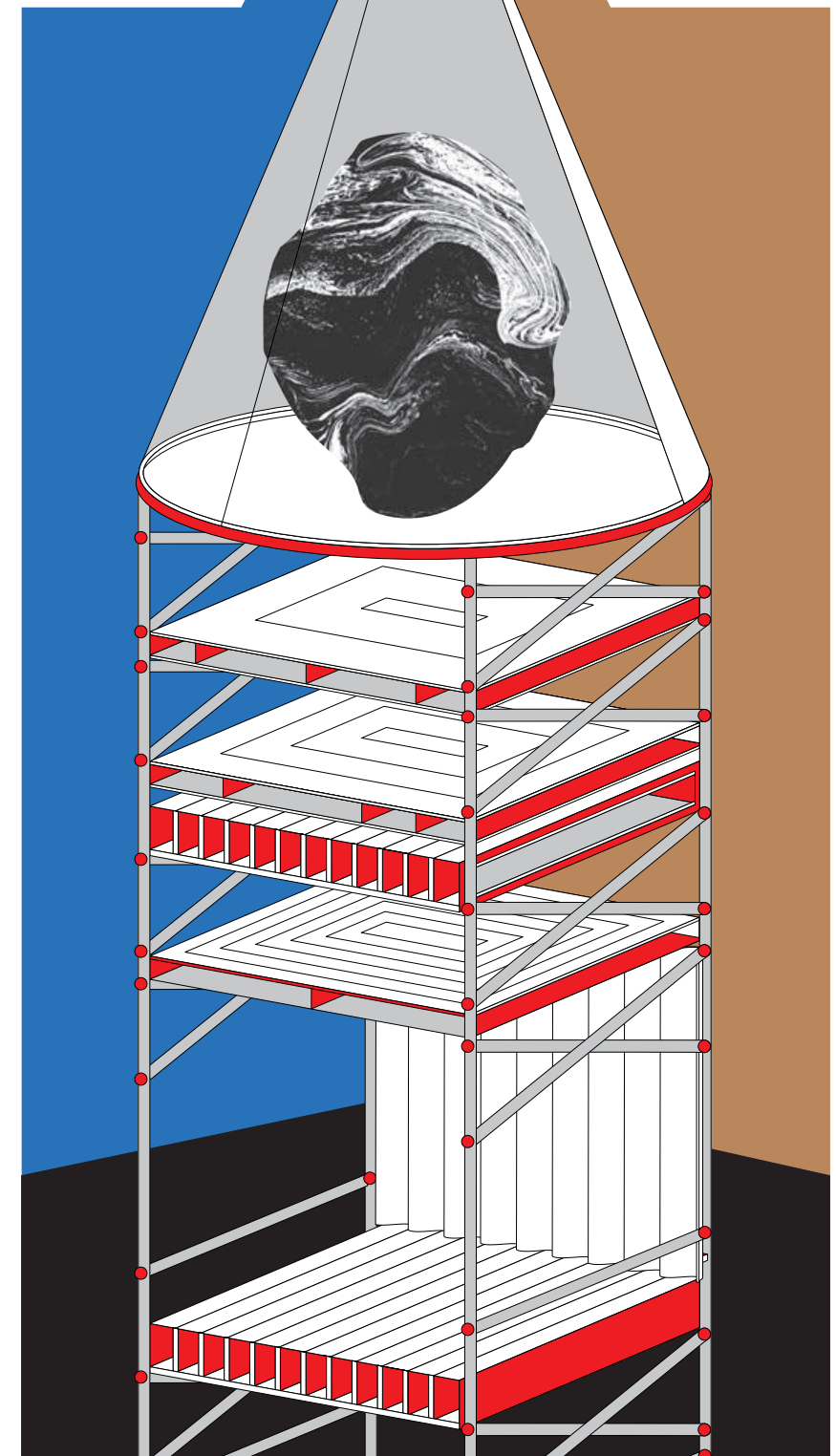
Q. 지난 8월 해오름극장 로비를 개방하고 2층에 북라운지도 운영하기 시작하셨지요. A. 극장은 관객이 방문할 때 생명을 연습합니다. 1년 365일 누구나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고, 일상에서 여유를 느끼는 장소를 제공하는 것이 국립극장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실천에 옮겨 극장 로비를 전면 개방하고 문화광장에 휴게 공간을 마련했는데 예상보다 반응이 좋습니다. 남산 산책길에 오르는 분이 도중에 들려담소를 나누고 인근 주민이 아이, 반려견과 함께 해오름극장 전면 미디어 글라스 앞에서 즐거운 표정으로 기념사진도 찍으시더라고요. 극장 개방이 관객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첫 걸음임을 느꼈습니다. 해오름극장 2층의 해오름 북라운지는 남산 전경과 따뜻한 채광을 만끽하며 책을 읽는 공간입니다. 직접 방문하니 탁 트인 전경이 뛰어난 데다 공간도 아늑하더군요. 극장에 오셔서 예술가가 추천한 책을 읽고, 여유를 충전하는 시간을 가져 보세요.

Q. 한국은 물론 세계에 보여 줄 국립극장의 행보가 궁금합니다. A. 취임 후 국립극장이 제작 극장으로서 탄탄한 시스템과 수준 높은 예술적 역량을 지녔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앞으로 세계 무대에서 결코 밀리지 않을 작품을 계속 배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립극장에 많은 관심 보내 주시길 바랍니다.



국립극장 레퍼토리시즌 NATIONAL REPERTORY SEASON 2023-2024

2023 09/01 → 2024 06/30
FRI SUN
국립극장 해오름/달오름/하늘 ntok.go.kr



2024 상반기 주요공연		
1월 Jan.	2024 신년 음악회 New Year's Concert 국립국악관현악단 National Orchestra of Korea	01/12
2월 Feb.	축제(祝·祭) Festival 국립무용단 National Dance Company of Korea	02/07 — 02/11
3월 Mar.	한국의 숨결 Korean Choral Music 국립국악관현악단 National Orchestra of Korea	03/29
	리어 Lear 국립창극단 National Changgeuk Company of Korea	03/29 — 04/17
4월 Apr.	플리백, 숨겨진 힘, 시련 Fleabag, The hidden force, The Crucible 엔톡 라이브 플러스 NTOK Live+	04/17 — 04/21
	2024 함께, 봄 The Spring Companion 국립극장 기획공연 National Theater of Korea Program	04/13
	사자(死者)의 서(書) Book of the Dead 국립무용단 National Dance Company of Korea	04/25 — 04/27
	어린이 음악회 노래놀이 별별 땅땅 Twinkling over the Land 국립국악관현악단 National Orchestra of Korea	04/25 — 05/05
5월 May.	에브리우먼 Everywoman 국립극장 해외초정작 Schaubühne Berlin	05/10 — 05/12
	절창IV Peerless Pansori IV 국립창극단 National Changgeuk Company of Korea	05/17 — 05/18
	소년소녀를 위한 소소 음악회 Youth Concert 국립국악관현악단 National Orchestra of Korea	05/24 — 05/25
6월 Jun.	야의 음악회 애주가(愛酒歌) Aejuga - Tunes and Wines 국립국악관현악단 National Orchestra of Korea	06/01 — 06/02
	맥베스 Macbeth 국립극장 기획공연 National Theater of Korea Program	06/13 — 06/16
	탄생, 명작의 생생 Birth, the Life of a Masterpiece 국립국악관현악단 National Orchestra of Korea	06/14
	만신 : 페이퍼 샤먼 Paper Shaman 국립창극단 National Changgeuk Company of Korea	06/26 — 06/30
	신선 Sinsun 국립무용단 National Dance Company of Korea	06/27 06/29
	몽유도원무 Mongyudowonmoo 국립무용단 National Dance Company of Korea	06/28 06/30

공연 예매·문의 02-2280-4114
자세한 내용은 국립극장 홈페이지
(www.ntok.go.kr)에서 확인 가능

프로모션



© 시인문학예술정보연구소



© (주)퍼즐랩



© 영덕군(주)메이드인피플



Re-challenge Project

재도전 프로젝트

지방 시대, 지역의 가능성을 탐색하다

더 많은 기회, 더 큰 가능성이 잠재된 지역을 찾아 모험을 떠날 때다. 지역에서 새로운 삶을 펼치는 의미 있는 시도, 재도전프로젝트를 소개한다.



+ 2023년 재도전포럼 다시 보기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개최한 2023년 재도전포럼은 유튜브를 통해 전체 내용을 시청할 수 있다. 재도전 프로젝트의 다양한 사례를 만나고 경험할 기회다.



다시 활작



시원스러운 동해의 절경을 곁에 낀 트레킹 성지, 경북 영덕 블루로드. 이 눈부신 길에 오른 주인공은 다름 아닌 '신중년'이다. 신중년이란 주된 일자리에서 물러나 재취업을 시도하며 노후를 준비하는 5060세대를 일컫는다. 영덕군에서는 신중년을 대상으로 블루로드를 트레킹하면서 다양한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여행 프로그램을 운영해 큰 반향을 이끌어냈다. 그런가 하면 전남 여수에서는 수도권 출신의 신중년과 여수 지역 청년의 만남을 주선해 일주일 동안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신중년은 자신들이 살아 온 풍부한 인생 경험을 공유하고, 로컬 청년은 여수살이 노하우와 지역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화합의 장을 이룬 것이다.

다시 도약! 지역에서 기회를 찾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4월부터 11월까지 영덕과 여수를 비롯해 충남 공주, 전북 완주 등 12개 시·군·구에서 지역 맞춤형 재도전 사업 '2023년 재도전프로젝트'를 시행했다. 앞서 소개한 사례처럼 수도권 바깥에서 인생의 전환점을 경험하게 하는 지역살이 프로그램부터 청년과 신중년 등 생애 주기별 재도전 지원 프로그램에 이르는 여러 가지 기획이 펼쳐졌다. 대상은 제2의 인생을 준비하는 중·장년과 청년으로, 다채로운 지원책을 통해 실질적인 지역살이 및 재도전 기회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영덕군청·영덕시장상인협대회

추진단·한국재도전중소기업협회·경력있는여자들협동조합·(주)퍼즐랩 등 총 17개 기관과 단체가 운영한 지역별 특화 프로그램이 수많은 참가자에게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제시했고, 지역은 인적 자원이 지닌 잠재력을 성장 동력으로 치환할 수 있었다.

지방 시대! 지역에서 새로운 활력을 찾다

지난 10월,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개최한 '2023년 재도전포럼'도 2023년 재도전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펼쳐진 행사다. 지방 시대 실현을 위해 재도전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방 소멸에 대응해 온 민간·공공 사례를 공유하고, 지역 정착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이번 포럼의 목표다. '지역과 함께 하는 삶'을 주제로 진행된 첫 번째 시간은 장민영 건축공간연구원 부연구위원이 발제한 '인구 감소 시대의 지방 생활'에서 시작해 공주의 청년마을 사례, 강원도 정선의 한·일 로컬 크리에이터 교류 및 나비캠퍼스 사례, 전북 남원의 생활 인구 유입 사례 등을 소개했다. 이어 두 번째로는 '지속 가능한 로컬'이라는 주제 아래 전영수 한양대학교 교수가 '지속 가능한 로컬 비즈니스 모델을 제안해 영덕, 강원도 강릉, 세종 거점 사업의 사례를 토대로 지속 가능한 상업성·생산성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우리의 미래, 지방 시대에 희망을 걸어 볼 때다.



지금 떠나요, 온천 여행

따뜻한 것이 생각나는 계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온행' 코스를 소개한다.



【 대한민국 온천도시 】

온천을 사랑하는 여행이라면 눈이 번쩍 뜨일 소식, 대한민국 1호 온천도시가 탄생했다. 행정안전부는 온천 성분의 우수성, 온천 여행 활성화 우수성, 온천 산업 육성 기여도 등을 기준 삼아 모든 지표에서 가장 뛰어난 세 지역, **충북 충주·충남 아산·경남 창녕**을 온천도시로 선정했다.

충남 아산

온양온천, 도고온천, 아산온천

온양온천은 문헌상 한반도에서 가장 오래된 온천이다. 삼국시대부터 탕정, 온수, 온창이라 부르다가 1442년 세종대왕이 이곳에 행차한 이래로 온양이라 한다. 왕들이 온욕으로 건강을 관리하기 위해 설립한 요양소 온양행궁으로도 유명하다. 유황 온천인 도고온천은 신라 시대부터 몸에 좋은 약수로 널리 알려졌고, 알칼리성 온천인 아산온천은 무기질을 다량 함유해 입소문을 모았다. 오늘날 아산시는 보양온천에 특화된 온천 치유 도시로 거듭나고자 한다.

충북 충주

수안보온천, 능암온천

조선 태조가 피부병을 치료하고 숙종이 휴식을 취했던 수안보온천의 또 다른 별칭은 '왕의 온천'. 자연 용출 온천으로 오랜 세월 맑고 깨끗한 수질을 자랑해 왔다. 양성면의 능암온천은 이산화탄소가 녹아 있는 천연 탄산천으로 명성이 자자하다. 혈액순환 효과가 뛰어나다는 입소문 덕에 수많은 온천 애호가들이 이곳을 즐겨 찾는다. 충주시에서는 중앙 관리 방식으로 온천수를 공급해 수질을 유지하며, 온천 족욕길과 온천 명상 프로그램 등 온천 콘텐츠를 마련한다.

경남 창녕

부곡온천

한국 최초 워터파크 '부곡하와이'를 기억한다면 부곡이라는 이름이 낯설지만은 않을 것이다. 가마솥처럼 생긴 골짜기라는 뜻을 가진 부곡면에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78도의 수온을 자랑하는 부곡온천이 있다. 물이 얼마나 뜨거운지 냉각탑이 필요할 정도다. 창녕군에서는 이 부곡온천의 열 에너지를 활용해 스마트 팜을 운영하고 지역 난방에 활용하는 계획을 수립했다. 온천 일대를 특구로 지정해 온천장은 물론 호텔, 콘도, 온천수가 흐르는 분수 등을 조성했다.



건강하게 즐겨요, 보양온천

35도 이상 온천수와 건강 관련 및 숙박 시설을 갖추고 주변 환경을 정비한 온천 이용 시설을 국민보양온천 제도로 관리한다. 강원도 속초의 설악 워터피아와 동해의 동해보양온천컨벤션호텔, 경남 창원원의 마금산원탕보양온천, 거제의 거제도해수보양온천, 경북 울진의 덕구온천리조트스파월드, 충남 아산의 파라다이스스파고, 예산의 스피라스 리솜, 전남 화순의 도곡온천지구 등이 보양온천으로 지정되어 여행자를 기다린다.

부산에 반하다 빛 축제 모음ZIP

TRAVEL & TRAIN CENTER

KTX 공식 협력 여행사 | 문의사항 1899-2550 | 카톡채널상담 '기차여행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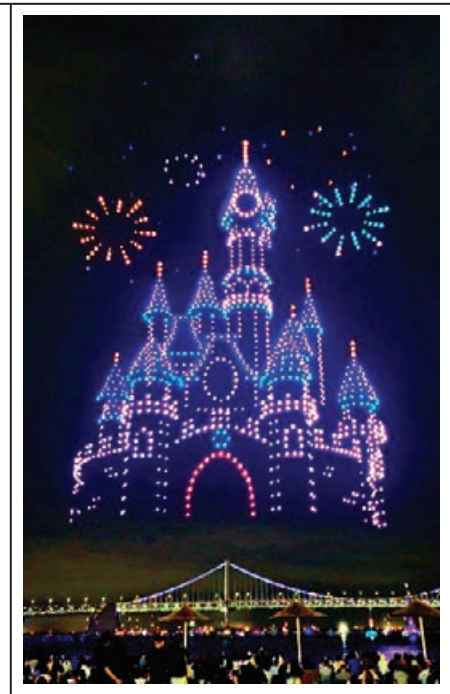
광안리 M 드론라이트쇼

전국 최초, 최대의 상설 드론라이트쇼인 광안리 M 드론 라이트쇼는 매주 토요일 광안리 해변에서 진행되며, 관람은 광안리 해변에서 가능합니다. 상설 공연은 드론 600대, 특별 공연은 기존 1,500대에서 한국 신기록인 2,000대로 규모가 확대 상영되니 광안리에서 잊지 못할 밤을 경험해 보세요.

행사 일시
매주 토요일 2회 공연
- 하절기(3월~9월) 20시, 22시
- 동절기(10월~2월) 19시, 21시

행사 장소
광안리 해변 일원

행사 문의
검색 : 광안리 M 드론라이트쇼 사이트



KTX 편도+렌터카

포함 내역
서울 - 부산 1인 편도 KTX 승차권, 렌터카

불포함 내역
여행자 보험, 식대, 개인 기타 경비 등

렌터카
- 대여 지점 안내 : 유카 부산역 아스티호텔점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214번길 7-8 아스티호텔 1층 106호
- 차종 : 아반떼, K3
차량 업그레이드 (쏘나타, K5) : +30,000원
- 자차 보험 : 현장 결제

해운대 빛 축제



해운대 빛 축제

BUSAN

해운대의 대표적인 겨울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제10회 해운대 빛 축제'가 2023년 12월 2일부터 2024년 1월 31일까지 개최됩니다. 올해 특히 백사장 미디어존은 미디어아트 작가들과의 협업을 통해 더욱 창의적이고 신비로운 빛의 향연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빛 조형물 포토존들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기면서 해운대에서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축제 기간
2023. 12. 2.(토) ~ 2024. 1. 31.(수)
61일간

행사 장소
해운대해수욕장, 해운대광장, 해운대시장, 온천길 일원

점등 시간
17:30~24:00

주요 내용
빛 시설물 전시, 포토존, 시민 참여 프로그램 등

CONTACT



기차여행센터
QR로 해당 상품을 확인해 보세요!



이색 여행

서울

editor. 옥승이 photographer. 신규철



www.kyobobook.com



시장으로 온 청년들

×



서울 경동시장 청년몰



시장이 젊어졌다. 전통시장에서 청년이 색다른 도전을 펼치도록 돕는 '청년몰' 사업 덕분이다. 청년 상인들을 따라 시장 나들이에 나선다.



취재 협조 청년상인 옥승이





청년몰 찾아 시장으로 가요

여행지의 속살을 만끽하러 시장에 간다. 싱싱한 식재료와 지역 특산품이 준비한 데다, 사람이 모이니 활기가 넘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지원공단이 펼치는 청년몰 사업은 청년 상인들의 도전을 뒷받침한다. 만 39세 이하 청년을 선발해 창업 및 역량 교육, 창업 지원, 제품 개발 및 판매 촉진 등 사업 시작부터 사후 관리까지 실질적 도움을 준다. 창업을 꿈꾸는 청년은 해당 지원 사업을 통해 경영 지식을 배운 뒤 전문가의 현장 컨설팅을 받으며 점포를 연다. 전통시장에서 청년들이 개성 있는 가게를 꾸리자 시장이 한층 매력적인 여행지로 거듭나 색다른 즐거움을 찾는 이들의 방문이 늘어난다. 의미 있는 선순환이다.

+ 청년몰

청년들의 창업을 지원하고자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지원공단이 펼치는 사업이다. 전통시장 안에 조성한 청년몰에 가게 자리를 내주는 것이 큰 골자인데, 창업을 위한 경영 교육부터 제품 개발과 점포 운영 등 사업 전반을 돕는다. 청년몰 사업으로 청년은 기회를, 시장은 활력을 얻는다. 문의 042-826-5930



경동시장 청년몰, 우리는 '서울헤미리'

달콤쌉싸름한 한약재 향기가 거리 곳곳을 휘감는 서울시 동대문구 경동시장을 거닌다. 1960년에 생겨 올해로 50세가 넘는 이 시장은 한약재 전문 시장일 뿐 아니라 대형 시장답게 각종 물품이 넘친다. 복새통을 이루는 시장의 정다운 분위기에 미소가 피어난다. 사람과 물건 구경도 재미나지만, 이번 여정의 목적지는 건어물과 의류가 밀집한 경동시장 신관 하고도 3층이다. 화훼 전문상가였던 이곳은 지난 2019년 청년몰로 탈바꿈했다. 현재는 청년 상인들의 식당과 디저트 가게, 공방이 들어서 전통과 트렌드가 공존하는 공간으로 자리 잡았다. 이른바 '서울헤미리'라는 이름을 가진 경동시장 청년몰에서 정성스러운 음식으로 든든히 배를 채운 뒤 디저트로 입가심하고, 청년 상인들과 이야기 나누며 행복한 시장 나들이를 즐겼다.



중소벤처기업부



청산제과

청산처럼 풍요로운 자연을 디저트로 표현하고 싶어 '청산제과'라는 상호를 지었다. "화과자를 오래 만들었는데, 색소 쓰는 게 점점 꺼려졌어요." 15년간 제과업에 종사하며 언젠가 건강한 디저트 가게를 선보이리라 다짐한 이지는 대표가 말했다. 청산제과를 상징하는 메뉴는 팥빵인 달빵. 팥소는 질 좋은 고창 팥을 삶아 직접 만들고, 고소한 맛과 식감을 고려해 구운 호두를 넣는다. 달걀 또한 무항생제만 사용해 건강하다. 시행착오를 거듭하면서 조금 비싸더라도 좋은 재료를 쓸수록 맛에서 큰 차이가 난다는 걸 깨달은 결과다. 청년몰 입점 5년 차에 접어든 이 대표는 이제야 장사가 재밌어졌다. "장사 얼마나 오래 하겠느냐 하시던 주변 상인들이 이젠 제법 장사꾼 같다고 인정해 주실 때 가장 보람차요. 최근에는 청년 상인 도약 지원 사업으로 청산제과를 브랜드화하고 있고, 더 많은 메뉴도 구상 중이에요." 이 대표의 청산이 나날이 풍성해진다.

☞ 달빵 오리지날 2300원 달빵 양버터 2300원 물고기빵 2500원
 @cheongsan_official

01



파도식탁

속성한 연어와 각종 채소가 상 위에 올랐다. 고명 사이에 숨어 있는 색다른 양념은 윤지훈 대표가 개발한 된장 소스다. "2023년 전국 청년 상인 요리대회에 출전했어요. 주제가 전통시장 특산품이었죠. 시장 상인들이 바쁜 시간 짬 내 된장찌개 한 그릇 놓고 식사하시는 모습에서 착안해 된장 소스를 개발했습니다." 대회를 목표로 개발한 '미소 연어 덮밥'은 최우수상을 수상했을 뿐 아니라 '파도식탁'의 시그니처 메뉴가 됐다. 요리를 전공하고 호텔을 거쳐 주나이지리아 한국 대사관 총괄 셰프로 근무한 윤 대표는 앞서 청년몰에서 공방을 운영한 아내의 지지에 힘입어 청년몰에서 창업했다. "사업 경험이 부족한 청년에게 창업 아이템 테스트 공간을 지원하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린오프닝부터 지원받아 경동시장 청년몰에 왔어요. 1년간 점포를 잘 꾸린 이후 메뉴도 더욱 구체화했죠." 쓱쓱 비빈 덮밥을 한 술 크게 뜬다. 가게 이름대로 행복감이 파도처럼 밀려든다.

☞ 미소 연어 덮밥 1만 4000원 회덮밥 9000원
 오늘의 초밥 1만 1000원 ☎ 070-8808-9500

03



청년한식

뚝배기에 가득 담긴 김치찌개 바글바글 끓는다. 고소한 차돌박이와 매콤한 김치를 함께 먹으니 찰떡궁합이다. "대량으로 폭 끓여 둔 김치찌개를 소분해 바로바로 상에 내는데, 우삼겹을 따로 구워 불 향을 입혀요. 육즙이 더해져 국물이 더욱 진해지죠." 전문 대표가 메뉴를 설명한다. 전통시장 특유의 사람 냄새 나는 분위기를 좋아해 막연히 시장에서 사업하길 꿈꾸던 전 대표는 청년몰 내 핵심 점포를 조성하는 취지의 핵심포 사업에 지원해 면접과 요리 테스트 등 심사를 거쳐 2021년 12월에 경동시장 청년몰에 입점했다. 전문가의 컨설팅에 따라 시작한 김치찌개지만, 영업 3년 차에 접어든 지금은 차별화된 음식을 고민하는 진지한 상인으로 거듭났다. "김치찌개 더불어 특색 있는 한식을 선보이고 싶어요. 삶은 돼지고기와 아삭한 숙주가 어우러진 고기 국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수 한 그릇에 추위도 녹을 것 같다.

☞ 우삼겹 김치찌개 8000원 돼지고기 김치찌개 8000원
 ☎ 02-594-4634



아워오후

삼삼오오 모인 사람들이 케이크 자태에 탄성을 지른다. 곰과 토끼, 눈사람을 닮았다. 홀로 각종 케이크를 만드는 김경선 대표의 '아워오후' 풍경이다. "하루 중 가장 나른하고 피곤한 때가 오후잖아요. 디저트로 달콤한 오후를 보내길 바라는 마음에서 지은 상호예요. 케이크 실물을 본 손님들이 즐거워하시면 제 업무 시간도 달콤해집니다." 김 대표는 열성적으로 좋아하는 분야의 일을 직업으로 삼는 이른바 '덕업일치'로 창업에 이르렀다. 미대를 졸업하고 패션 디자이너로 일하면서 레터링 케이크를 배웠다. 평상시 케이크를 좋아해서다. 제과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자 점차 창업으로 마음이 기울었다. 마침 시청 홈페이지에서 청년몰 입점 공고를 보고 지원해 2021년 10월에 입점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원 사업으로 케이크와 쿠키 포장 상자를 개발했어요. 12월에는 성탄절 맞춤 케이크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눈사람 케이크가 먹기 아까울 정도로 양증맞다.

☞ 입체 동물 케이크 2만 8000원 미니 토끼 케이크 3만 5000원
 곰돌이 도시락 케이크 2만원 @ourohu



‘오감을 만족시키는 꽃과 같은 디저트를 만드는 집’을 위해 조리고등학교 출신 청년 세 명이 의기투합했다. 천범준 대표를 필두로 그의 연인과 절친한 친구가 함께하는 ‘오화당’은 지난해 11월 청년몰에 들어섰다. “양식을 전공했어요. 해외 호텔 셰프가 되고자 유학 생활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사업으로 성공하는 사례를 많이 보면서 저 역시 창업을 꿈꾸게 됐어요. 친구들의 조언을 받아 약과 등 한과 전문으로 아이템을 결정했죠.” 천 대표는 곧장 한국으로 돌아와 청년 지원 사업을 알리고 멘토링 교육을 이수했다. “프로그램으로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경영 지식을 쌓을 수 있었죠. 더불어 중소벤처기업부가 1년간 매장의 보증금과 월세를 지원하는 리오프닝 점포였기에 자리 잡아 나갈 수 있었어요.” 천 대표가 갖 만든 주악을 선보인다. 전통 개성주악에 계피를 빼고 유자를 넣은 것이 특징이다. 바삭한 첫입 뒤로 상큼한 유자와 달콤한 조청이 조화롭다.

☞ 주악 2500원 커약과 3000원 약과크림블루키 4000원
 @o_hwadang



올해 새롭게 서울웨미리에 발을 들인 조순호 대표는 경동시장과 연이 깊다.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운영하는 이모부를 도우며 일을 배우던 중 이곳 청년몰을 알게 돼 입점했다. “사업 기회가 주어져서 기뻐요. 청년몰을 찾는 손님이 늘고 있고, 무엇보다 청년 상인들과 함께 일하는 게 즐거워요.” 새내기 상인이 수줍게 웃는다. 그의 가게는 돈가스 전문점. “경동시장 근처에 돈가스 가게가 없어서 늘 아쉬웠어요. 제가 좋아하는 음식으로 점포를 준비한 이유입니다.” 조 대표는 추억의 경양식 돈가스를 선보인다. 누구나 안심하고 먹도록 신선한 식재료 구하기에 공들인다. 경동시장 내에서 공수한 채소와 고기를 사용하고, 인위적인 맛을 내는 조미료는 쓰지 않는다. 그 대신 고기 반죽과 정에 마늘과 생강을 더해 잡내를 잡는다. 기름으로 사워하고 나온 돈가스의 노릇노릇한 자태에 감탄하고 한 입 베어 문다. 바삭바삭하고 고소하다. 소스의 감칠맛도 그만이다.

☞ 돈가스 정식 1만 2000원 돈가스 9000원 생선가스 8000원
 ☎ 070-7727-1623



청산제과 · 이지은

청년몰 한가운데의 ‘웨미리움’은 공유 주방인 동시에 여러 용도로 쓰여요. 요리 수업이나 세미나, 생일 파티, 온라인 강의, 모임 등 각종 행사를 위한 대관도 가능합니다.



청년한식 · 전훈

청년몰에 오셨다면 ‘경동1960 야시장’에 꼭 들러 보세요. 같은 건물 4층 옥상에서 매주 금·토·일요일 오후 6시부터 11시까지 야시장이 열린답니다.



파도식탁 · 윤지훈

서울웨미리에서 식사한 뒤 2층 앤 라운지를 방문해 보는 건 어떨까요? 카페와 작은 도서관, 실내 놀이터가 있어 아이들과 함께 방문하기도 좋습니다.



경동시장 청년몰



더 알차게 이용해 보세요



아워오후 · 김경선

경동시장 신관 지하 2층에 주차장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시장 내부로 들어와 주차한 뒤 승강기를 타고 청년몰로 올라가면 한결 편리하답니다.



오화당 · 천범준

청년몰에서 성탄절 이벤트를 마련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청년몰에 문의해 주세요. 지난해에는 5000원 이상 구매한 분께 글라스 와인을 증정했답니다.



청년레시피 · 조순호

본관에도 즐길 거리가 많습니다. 본관 3층에 자리한 ‘스타벅스’ 경동시장 1960점은 1960년에 개설한 경동시장의 의미를 되짚고, 옛 경동극장 형태도 엿볼 수 있습니다.



끝에서 시작을

끝이라 끝으로 갔다. 한 해의 마지막이 다가온 즈음,
대한민국 최북단 강원도 고성으로 의미 있는 여행을 떠났다.




DMZ

취재 협조: 한국관광공사

SOUTH LIMIT
DEMILITARIZED ZONE:
DO NOT ENTER
비무장지대
남부한계선
통입금지
非武装地區南界



 한국관광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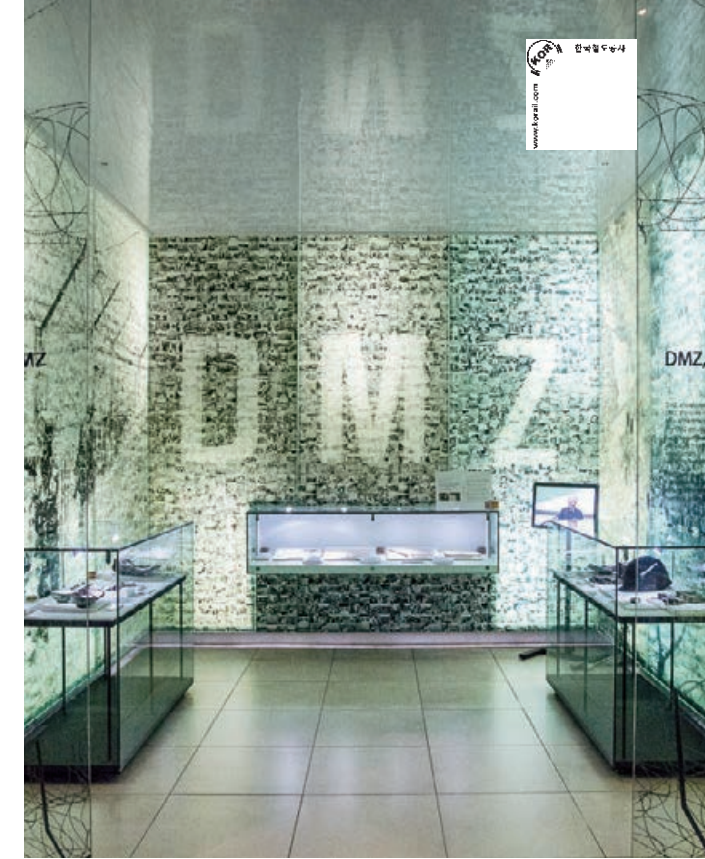
DMZ 생태·평화관광 활성화 사업 한국관광공사는 비무장지대 여행지를 알리기 위한 'DMZ 생태·평화관광 활성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인천 옹진군 백령도부터 강원도 고성에 이르기까지 DMZ 접경지는 바다와 숲, 들판과 역사 유적지가 어우러진 비경을 자랑한다. 대립의 상징에서 평화와 생태의 상징으로. 눈과 가슴이 함께 감동하는 여행이 기다린다.



열리고 2년 동안 얼마나 지난한 논의가 필요했는지는 잘 모른다. 누렇게 바랜 군사정전위원회 회의록의 엄청난 두께에서, 회담 모형에서 긴박함이 읽힌다. “쌍방에 막대한 고통과 유혈을 초래”했다는 정전협정문 서언처럼 한국군·유엔군만 77만 명 넘는 전사자·부상자·실종자를 낳은 전쟁, 남북한 민간인을 합해 450만여 명 인명 피해를 기록한 끔찍한 전쟁이 그날 그쳤다.

총탄 구멍이 난 철모, 녹슨 탄환, 임춘수 소령의 수첩과 가족에게 보내는 편지 같은 전시물이 전쟁을 전한다. 슬픔이 가슴을 스친다. 어느 관람자에게는 바람처럼 잠시 머물다 지나가는 슬픔이겠으나, 누군가에게는 평생을 찌르는 아픔임을 생각한다. 품에 가족사진을 안은 채 전사하셨다는 소령님께, 그분을 비롯한 모든 피해자에게 눈을 감고 명복을 빌었다.

남북 대치 역사를 정리한 제2전시실은 초반에 사진 자료가 흑백에서 1980년대 말 컬러로 바뀐다. 이만큼 시대가 변하고도 대립은 해소하지 못했다. 지뢰 매설 모형을 놓은 곳에 서자 갑자기 폭발음이 들려와 가슴을 쓸어내렸다. 지뢰 종류가



고성에도 기차역이 있다. 동해선은 북한과 연결되는 철길로, 2007년 5월 17일 북한 금강산역을 출발한 열차가 제진역까지 시범 운영을 실시하기도 했다. DMZ박물관 오가는 길에 역을 볼 수 있다.

채광이 환한 로비를 지나 전시장에 들어서자 어둠이 밀어닥쳤다. 적응하기 위해 잠시 멈추어 서서 눈을 감았다 떴다. 전쟁이란 이런 것일 터다. 짙은 암흑. 해가 뜨든 지든 앞이 보이지 않는 듯한 두려움. 벽에 걸린 한국전쟁 당시 사진을 보면서 조심스레 걸음을 내딛다 시선이 우연히 천장에 닿은 순간 숨이 막혔다. 천장 한쪽에 뚫린 구멍에서 군인 세 명이 총을 들고 관람자를 겨냥하고 있다. 모형이라도 가슴이 선뜩하다. 70여 년 전 그날엔 일상의 공간에서, 피란 간 지역에서 실제 일어났을 일이다. 강원도 고성 DMZ박물관은 내가 밟고 선 이 땅이 어떤 곳인지, 분단국가인 대한민국의 기원을 알려주는 곳이자 한국 최북단의 박물관이다. 한 해의 끄트머리, 민간인에게 허락된 북쪽 땅 끝으로 떠났다.

가장 아름다운 건 바다와 산, 그리고 평화

DMZ박물관은 민간인 통제선 안에 있다. 남과 북을 가르는 군사분계선을 중심으로 각각 2킬로미터를 비무장지대 곧 DMZ로 정하고, DMZ가 끝나는 남방한계선에서 약 5~20킬

로미터 거리에 민간인 통제선을 설정했다. ‘통제’라는 단어가 붙은 만큼 입출국할 때처럼 출입 신고를 거쳐야 들어간다. 생소한 이 과정부터가 평범하지 않은 여행의 시작을 알린다.

긴장되는 마음을 안고 민통선을 지나 불과 10여 분 만에 DMZ박물관에 도착했다. 로비엔 북한 이탈 주민이 타고 내려온 배가 눈길을 끈다. 고기 잡는 데 썼을 법한 5.7미터 길이 통통배에 인생을 걸었을 막막함이 눈물겹다. 전시는 네 개 주제로 구성했는데, 제1전시실은 DMZ의 ‘축복받지 못한 탄생’을 다룬다. 사진, 참전 군인의 물품 등 다양한 자료는 물론 DMZ를 낳은 정전 협상 과정을 자세히 보여준다. 우리는 1953년 7월 27일이 휴전일이고 DMZ가 설정되었다는 결과만 기억하지, 1951년 7월 10일 첫 회담이

동해안 최북단, 민통선 내 DMZ박물관은 비무장지대 탄생 과정, 한국전쟁 유물, 이후 대립의 역사를 비롯해 화해하기 위한 노력, DMZ의 생태·역사까지 망라한 전시관이다. ‘빠라라 부르던 전단, 북한 이탈 주민이 타고 온 배, 대북 선전용으로 쓴 방송 장비 등 볼거리가 다양하다. 문의 033-681-0625





360여 종, 남한 내 지뢰 피해자가 무려 1만 명. 전쟁과 지뢰는 실제 생명을 꺼트린다. 삶의 치열함을 전쟁이라고, 일상 속 숨은 위험 요소를 지뢰라고 빗대어 말하지 않겠다고 다시금 다짐했다.

분단과 대립의 비극이 가져온 의외의 결과가 DMZ의 자연 생태 환경이다. 사람이 갈 수 없는 땅에서 생명이 피어났고, 더 이상 싸우지 말아야 할 명확한 이유가 되었다. 제3전시실에서 이를 확인하고, 남북 철도 연결 사업 같은 협력의 역사도 반추한다. 전시장 마지막에는 관람자가 쓴 소원지를 주렁주렁 매단 소원나무가 숲을 이루었다. 적어도 이곳에서는 개인의 욕심을 내려놓고 평화와 생명이라는 소원을 앞에 두게 된다. 아니, 욕심을 실현하려면 평화가 무엇보다 우선 조건이다. 전쟁은 개인의 꿈도, 생명도 파괴하므로.

집경 인근에서 워케이션을 경험하는 것, '맹그로브 고성'에서는 가능하다. 맑고 푸른 고성 바다를 배경으로 일하고 휴식한다. 워크라운지에서 일에 집중하고, 숙소를 나서는 곧바로 바다다. 다양한 강연과 라이브 공연, 명상과 요가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문의 mangrove.city/locations/goseong



박물관 건물 밖도 거대한 전시장이다. 남방한계선 폐철조망과 철주를 소재로 평화의 아이콘을 만든 빅터 조 작가의 '피스!' 등 예술 작품을 설치했고, 그 옆 초소는 강릉 사천해변에 있던 것을 옮겨 놓았다. 벽의 '초병 일반 수칙'도 그대로라 긴장감을 더한다. 고성 삼포해변에서 사용하다 여기로 가져왔다는 철조망을 따라 건다가 언덕 위, 대북 선전 방송 장비가 눈에 띄었다. 2004년 6월 심리전을 중단하자는 논의 끝에 철거해 지금은 '유물'이 되었다. 조용한 방송 장비는 역설적으로 평화를 말하는 것 같다. 박물관 옆 바다가 시리게 아름답다. 내친김에 이 바다를 오른쪽에 두고 북을 향해 조금 더 달려 고성통일전망타워에 간다. 1980년대에 지은 2층짜리 옛 전망대는 2018년 12월 문을 연 34미터 높이 새로운 전망타워에 역할을 내주고 은퇴했다. 과연 전망대라는 이름값을 해 웅장한 전망이 감탄사를 내뱉게 한다. 조선 후기 화가 겸재 정선의 작품을 비롯한 수많은 그림이나 사진으로 익숙한 금강산이 저편에 고개를 내밀고, 푸른 동해가 눈을 꼭 붙들어 맨다. 도로는 해안선과 나란히 이어지건만 가로등은 어느 지점에서 멈추었다. 거기가 바로 남과 북의 경계다. 금강산만큼 빼어나다는

해금강, 부처바위·사공바위·복선암... 뻥뻥 보이는데 절대 다가가지 못한다는 사실이 실감 난다. 남과 북의 바다는 경계가 없었다. 색도 똑같이 푸르고, 똑같이 맑았으며, 정말 똑같이 아름다웠다.

끝의 땅, 시작을 꿈꾸는 땅

전망타워에서 나와 앞마당을 거닐었다. 351고지 전적비, 한국 공군의 옛 주력 전투기, 통일 염원을 담은 해수관음상과 십자가 예수상을 차례로 만났다. 태양은 땅과 바다에 고루 빛을 보내고, 파도 소리가 잔잔히 들려왔다.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풍경이었다. 북한 사람도 동의할 것이다. 남과 북은 DMZ의 모든 동식물, 미생물, 흙 한 줌까지 함께 사랑하고 보살필 책임자다. 이 산과 바다, 강과 들판, 역사 유적을 가진 DMZ를 대립의 상징에서 평화의 상징으로. 끝은 또 다른 시작이라 했다. 2023년이 끝을 향해 가는 지금, 끝의 땅에서 시작을 꿈꾼다. 의미 있는 마무리, 새로운 내일을 향한 걸음을 땀다. **1**

DMZ 평화 여행



인천·경기



인천 응진군

서해 최북단 섬 백령도에서도 북서쪽 끝, **두무진**. 하늘을 향해 쪽쪽 뿜은 기암괴석이 마치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는 장군들을 닮았다 하여 이런 이름이 붙었다. 바다에서 솟아난 듯한 바위 병풍이 신비로운 명승지다. 백령도 바다를 즐기는 또 다른 방법으로는 **콩돌해변** 산책을 추천한다. 흰색·회색·적갈색·청회색 등 다양한 빛깔의 조약돌이 아기자기어쁘다. 콩돌은 천연기념물 제392호로 지정되었다.

인천 강화군

한민족 시원의 전설을 간직한 강화는 육지와 다리로 이어져 접근하기 편리하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고인돌을 비롯해 수많은 역사 유적·유물도 강화 여행의 이유. **강화역사박물관**은 선사 유적지와 고려 왕릉 출토 유물 등을 전시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강화평화전망대**에서는 한강과 임진강, 예성강이 서해와 만나는 바다를 사이에 두고 북한과 마주한다. 맑은 날엔 송악산과 개풍군 들판이 선명하다.

김포

1978년 문을 연 애기봉전망대를 철거하고 **애기봉평화생태공원**을 조성했다. 평화·생태·미래를 주제로 꾸민 평화생태전시관을 관람하고, 조강전망대에서는 불과 1.4킬로미터 떨어진 북한 개풍군과 조강 일대의 풍경을 조망한다. **김포국제조각공원**은 평화통일을 기원하는 예술 작품과 문수산자연휴양림이 어우러진 공원이다. 세계적 조각가 조반니 안셀모를 비롯해 국내외 작가 30인의 작품 30점을 전시한다.

파주

일반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DMZ를 미디어아트와 VR 체험으로 생생하게 만나는 **DMZ 생생누리**가 지난해 8월 문을 열었다. 잘 보존된 생태 환경, 그곳에서 사는 동식물, DMZ 역사와 유적까지 최첨단 기술로 선보여 남녀노소 흥미로워하는 곳이다. **평화누리길 공원**은 분단의 상징인 임진각을 화해와 상생, 평화와 통일의 장으로 바꾸기 위해 만들었다. 바람개비 3000여 개가 도는 풍경이 평화의 메시지를 전한다.

연천

태고의 이야기가 숨 쉬는 연천에서 **재인폭포**는 절경 중 절경이다. 먼 옛날 화산이 폭발하고 용암이 한탄강 지류에 흘러들어 호수를 형성했다가 이것이 굳은 뒤 하천에 침식되면서 폭포가 되었다. 자연의 걸작에 감탄이 절로 나온다. **호로고루**는 고랑포 주상절리 적벽 위에 있는 고구려의 보루로, 남한에 드문 고구려 유적이라 더욱 의미 있다. 전쟁은 지나가고, 넓은 들판도 성벽을 오르는 계단도 그림 같기만 하다.



추천 여행지



강원도

철원

철원한탄강주상절리길은 협곡에 30~40미터 높이 주상절리가 펼쳐져 눈을 사로잡는다. 순담계곡에서 드르니마을까지 약 3.6킬로미터 거리를 걸으며 웅장한 자연의 일부가 된다. 한때 북한이 통치한 철원의 역사를 둘러보는 데에는 **철원역사문화공원**이 제격이다. 한국전쟁으로 무너진 극장 등과 남북 분단으로 사라진 철원역까지 복원했다. 역에서 모노레일을 타고 소이산 전망대에 올라 철원평야도 감상한다.

화천

이름부터 **화천산소100리길**. 사람은 24시간 산소를 들이마시지만 맑은 공기에 자부심을 가진 화천은 길에 산소라는 단어를 넣었다. 물의 도시 화천에서 북한강 물줄기를 따라 조성한 왕복 42킬로미터 길은 자전거를 타거나, 일부 구간을 골라 걸어도 좋다. 유명한 '평화의 댐'도 화천에 있다. 2.12킬로미터 길이 **백암산 케이블카**로 해발 1178미터 정상 의 전망대에 오르면 평화의 댐과 북쪽 금강산담이 모두 보인다.

양구

사람은 금강산에 가는 길이 끊겨도 물은 여전히 금강산에서 남한까지 흘러 내려온다. **두타연**은 금강산 계곡물이 깊고 푸른 소를 이루는 곳이다. 멸종 위기 야생동물인 열목어와 산양이 서식하는 지대로, 거닐다 보면 풍경만큼 마음도 깨끗해진다. 이런 자연이 키운 예술가가 박수근 화백이다. 그의 고향에 **양구립박수근미술관**이 들어섰다. 선생의 그림과 유품을 전시하며, 건물 또한 그림을 닮아 인상적이다.

인제

흰색 껍질, 가느다란 몸의 자작나무는 언제 봐도 낭만적이다. 인제 하면 곧바로 떠오르는 원대봉 능선의 **속삭이는 자작나무 숲**은 한국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일곱 개 코스 가운데 골라 40만 그루 자작나무 숲을 누린다. 승려이자 독립운동가 만해 한용운 선생이 시 '님의 침묵'을 쓴 **백담사**는 정갈한 아름다움이 빛나는 사찰이다. 내설악의 고요한 풍경과 더불어 명상하고 쉬어 가는 템플스테이도 찾는 이가 많다.

고성

동해안 최북단 군사분계선에 가까운 민통선 내 **DMZ박물관**은 한국전쟁의 아픈 이야기에서 시작해 DMZ의 생태·문화·역사, 나아가 평화를 이루기 위한 노력까지 담은 곳이다. 야외에는 실제 사용하던 철조망 등을 옮겨 와 분단의 현실을 체험하게 한다. 해발 70미터 언덕에 34미터 높이로 세운 **고성통일전망타워**에서는 북한 땅이 그야말로 코앞이다. 금강산 마지막 봉우리인 구선봉과 해금강 풍경이 파노라마로 펼쳐진다.





정찬호, '세오'

삶 속 예술, 예술 속 삶

하동읍석마에
마을미술프로젝트 이야기



'최참판댁'으로 이름난 경남 하동 약양면의 작은 부락, 입석마을. 미술가 하의수와 박인봉 이장, 주민 이성심 도슨트를 따라 마을 구석구석에 스민 예술을 만났다.

봄에 뿌린 것은 가을에 거둔다. 품 넓은 지리산 자락에 안긴 경남 하동 악양, 하고도 입석마을에 가면 자연의 질서에 순응하는 선한 이들을 만난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고사리와 찻잎, 매실과 감이 나는 비옥한 땅에 언제인가부터 낫설고도 아름다운 조형물이 하나둘 놓이기 시작했다. 마을 입구엔 손님을 반기는 나팔수 입상이, 길목엔 날개를 팔랑이는 부엉이 삼 형제 조각이, 마을회관 맞은편엔 ‘선들’이란 옛 지명을 가져다 붙인 아담한 미술관이 올라섰다. 말간 도화지 같던 마을에 알록달록한 빛깔이 스며드니 주민들의 표정도 한결 화사해졌다. 예술의 힘이다.

마을미술프로젝트, 입석마을이 맞이한 변화의 바람

입석마을이 위치한 하동군 악양면은 드라마 <토지>의 최참판댁 촬영장과 그림 같은 평사리 소나무로 이름난 고장이다. 지역을 대표하는 명소이니만큼 해마다 20만 명 가까운 여행자가 이곳을 찾았지만, 악양면의 작은 부락 구석구석까지 발길이 닿진 못했다.

변화의 계기는 홀연히 다가왔다. 2018년 악양 일대가 마을미술프로젝트 공모에 당선되었고, 미술가이자 예술 단체 ‘예술행동’을 이끄는 하의수 대표를 주축으로 재능 있는 작

가들이 집결한 것이다. 이들은 최참판댁 촬영장 입구부터 하평마을, 대촌마을, 봉대마을, 하덕마을을 지나는 길에 작품을 설치해 자연과 미술이 어우러지는 근사한 장면을 연출했다. 애석하게도 시간이 흐르면서 작가들은 자연히 악양을 떠났고, 작품만 덩그러니 남아 마을 곳곳을 지켰다. 2020년, 지속 가능한 예술 공동체를 고민하던 예술행동은 입석마을을 중심으로 마을미술프로젝트에 또 한 번 도전한다. 대봉감을 수확하고 꽃감 만드는 일로 생활을 이어가던 평화로운 입석마을은 신석기 유물인 선돌과 유구한 역사를 품은 곳으로, 예술의 싹을 틔우기에 더할 나위 없었다. 예술행동과 하 대표는 우선 창고를 개조한 작업실 겸 마을미술 프로젝트 사무국 ‘대촌상회’를 베이스캠프 삼아 마을 사람들과 깊은 교분을 나누는 데서 출발했다. 그리고는 마음을 내준 사람들에게 조형적 미감이 무엇인지, 나아가 예술이란 무엇인지 차근차근 설파했다.

입석마을의 마을미술프로젝트는 2020년 첫 시도엔 낙방했으나 2022년과 2023년에 걸쳐 당선되어 11점의 작품을 설치하는 성과를 이뤘다. 예술이 지닌 환한 기운에 매료된 마을 사람들은 도슨트를 자처했고, 작품과 일대일 관계를 맺으며 애정을 키웠다. 예술은 작품과 미술관에만 머무르지 않았다. 가면을 쓰고 등불을 든 채 신명 나는 사물놀이 한마



백철호, '자연의 품속으로'



심준섭, '입석, 평사리를 깨우다'



서울 출발을 기준으로 용산역에서 KTX를 타고 순천역에 내려 무궁화호로 환승하면 하동역까지 3시간 50분 정도 걸린다.



이정형, '심진, 비치다'

당을 벌여 마을 전체가 축제 분위기에 물들기도 했다. 예술을 파종한 마을은 문화콘텐츠라는 싹을 틔워 하루하루가 다르게 성장해 나갔다.

한 걸음, 마을을 수호하는 예술

이제 입석마을을 둘러볼 시간. 지명 유래를 새겨 넣은 비석 위에 나팔을 치켜 든 사람의 형상이 스테인리스스틸 소재로 우뚝 섰다. 심준섭 작가의 ‘입석, 평사리를 깨우다’는 고요한 들녘에 울려 퍼지는 시원스러운 관악기 소리를 떠오르게 한다. 골목에 접어들자 부엉이 세 마리의 날개가 펄럭이는 모습을 맞닥뜨린다. 정찬호 작가가 제작한 ‘세오다. “안녕하세요” “안녕히 가세요” 중 반복되는 음절인 “세오”에서 착안한 제목처럼 마을을 오가는 이들에게 반가운 인사를 건넨다. 얼마나 걸었을까, 제단처럼 쌓은 돌무더기 앞에서 잠시 멈추어 선다. 김상일 작가



김상일, '심수상, 세오의 기억, 민들기'



정만영, '구술 전화기'



이정형, '비치다'



김경화, '마을을 지키는 새'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 예술위원회가 주관하는 마을미술 프로젝트는 일상과 미술의 공존을 꿈꾸는 공공 미술 사업이다. 약양면에서는 2018년 처음으로 공모 사업에 당선되었고, 입석마을은 하동군의 지원하에 2022년과 2023년 두 해에 걸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단단한 마을 예술 공동체를 꾸렸다.

는 헐어 버린 돌담을 재활용해 탑을 만들곤 '심수상응, 새로운 기억 만들기'란 이름을 붙였다. 주민의 마음과 작가의 손이 감응해 또 하나의 추억을 덧댔다. 마을 사람들이 앉아 쉬는 정자에도 예술은 스며 있다. 정만영 작가의 다매체 작업 '선돌과 매달린 돌'은 천장에 센서를 설치하고 스피커를 내장한 돌을 매달아 입석마을에서 채록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정자에 걸터앉아 당산나무를 바라보니, 나무 그늘 아래 시멘트로 빚은 오리 떼가 종종거리며 발을 거닌다. 김경화 작가의 '마을을 지키는 새'가 겨울 햇살처럼 포근한 정경을 이룬다.

두 걸음, 예술이 된 마을 광장

좁은 골목길을 뒷짐 지고 오르다 보면 탁 트인 빈터에 다다른다. 사방에서 길이 모여든 이곳은 선돌광장이다. 지리산 걷기꾼의 사랑방 '형제봉 주막'과 '마을미술관

선돌', 마을회관이 광장을 등글게 둘러싼다. 광장 한편으로 이어진 돌담 너머엔 독특한 형상을 한 바위가 딱하니 자리한다. 이름하여 잔대바위. 마을을 사이에 둔 두 산, 형제봉과 구재봉의 신선들이 장기판 앞에서 실랑이를 하다가 잔대 위 잔을 들어 던졌는데 이때 내던진 잔은 신선대 바위, 잔이 놓였던 잔대는 잔대바위라 부른다는 설화가 전해 온다. 문병탁 작가는 바위 주변에 아카시아 목재로 사슴을 제작해 '잔대바위 지킴이'란 역할을 부여했다. 선돌광장의 구심점인 마을미술관 선돌은 이곳 사람들의 삶을 녹여 낸 질박한 작품을 소개한다. 거창한 철학이나 사조를 외치기보다는 일상과 자연을 진솔하게 노래한 작품이 환영받는다. 전시실 한편엔 소쿠리, 베틀, 낫그릇, 맷돌, 화로, 저울, 상여 등 등 주민이 직접 쓰던 물건을 수집해 펼쳐 놓았다. 말 그대로 삶이 예술로 환원하는 풍경이다. 공동 작업장이자 창고로 쓰던 옛 건물을 업사이클링한 미술관 외벽엔 반사율이 좋은 알루미늄 패널 조각이 원을 이루며 걸렸다. 이정형 작가의 작품 '비치다'다. 섬진강이 거느린 넉넉한 산천 풍경을 빨아들인 이 작품은 일종의 대지 미술이자 미디어 파사드인 셈이다.

세 걸음, 골목과 담벼락에 스민 예술

지리산둘레길 14길이 지나는 입석마을엔 더러 산꾼이나 뜨내기 여행자가 발을 들인다. 낮선 객에게 숨 돌리고 쉬었다 가라며 말을 거는 작풍이 하나 있다. 파란색 담벼락 위에 색색으로 사람 형상 조형물을 엮어 놓은 '일상, 잠시 내려놓다'. 먼 옛날 씨감자와 누에, 뽕잎을 이고 진 주민들이 오가던 이 길에 유재현 작가만의 감각적인 색깔과 위트, 여유가 깃들었다. 한편 배철호 작가는 스테인리스스틸 소재로 배꽃이 활짝 핀 나무를 조각해 '자연의 품속으로'라는 제목을 붙였다. 이 마을에선 눈 닿는 곳 어디든 다 자연이다. 언덕 윗녘에선 입석마을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자리한 작품인 정만영 작가의 '구술 전화기'를 만난다. 마을 초입 정자에 설치한 '선돌과 매달린 돌'처럼 마을 주민들의 목소리를 채록했고, 나아가 자연의 소리까지 담아 낸 공중전화 부스다. 지정된 전화번호를 누르면 천장 스피커에서는 당산나무 새소리와 새벽 섬진강 물소리가, 수화기에서는 삼 삼고 베 짜던 시절이나 당산제와 나룻배 이야기가 육성으로 흐른다. 오래도록 가슴 한편에 재생하고 싶은 소리다. **k**

입석마을로 놀러 오세요

박인봉 입석마을 이장 "지리산 자락의 멋진 풍광은 우리 입석마을의 큰 자랑입니다. 귀촌 인구와 원주민이 허물없이 어우러져 살아가는 모습에도 자부심을 느끼지요. 5년 동안 마을미술프로젝트를 물심양면으로 지원하면서 자연스레 미술에 관심이 생겼는데, 작품 중 유독 마음에 드는 것은 미술관 외벽에 걸린 '비치다'입니다. 마을 사람들의 얼굴과 자연을 두루 비춰 아름답지요."

이성심 입석마을 도슨트 "고향 하동읍을 떠나 수도권에서 40년 넘게 살았지만, 약양 땅이 좋아 귀촌한 지 벌써 2년이 되었네요. 입석마을에 집을 짓고 보니 예술행동과 마을 미술프로젝트의 움직임이 눈에 들어왔고, 차츰 이 활동에 녹아들었지요. 작품 '심수상응, 새로운 기억 만들기'를 일대일로 담당하며 남다른 애착이 생기더군요. 지금은 누구보다 자신 있게 이 작품을 설명해 드린답니다."



유재현, '일상, 잠시 내려놓다'

프로모션



경기 광주에 공명하는 관악 선율 제20회 WASBE 세계관악컨퍼런스

풍부한 문화 자산을 보유한 도시 경기도 광주가 세계 관악의 중심으로 우뚝 선다. 2024년 세계관악컨퍼런스가 펼쳐진다.



 20TH WASBE 2024
세계관악컨퍼런스 경기 광주



광주를 넘어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유산인 남한산성이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10년을 맞이하는 2024년, 광주가 세계 문화 예술 도시로 한 걸음 더 나아간다. '관악의 올림픽'이라 하는 '제20회 WASBE 세계관악컨퍼런스'가 2024년 7월 16일부터 20일까지 열린다. 세계 유명 관악 연주팀이 광주를 방문해 도시 곳곳의 아름다운 자연을 무대로 공연을 선보이니, 황홀한 관악 선율을 따라 광주를 여행해도 좋겠다.

광주, 세계적인 문화 예술 도시를 꿈꾸다

세계관악협회(World Association for Symphonic Bands and Ensembles, WASBE)는 국제 음악 교류를 목적으로 1981년 영국에서 출범했다. 50개국 지휘자와 작곡가, 교수 등 음악인 1000여 명과 음악 단체가 교류하는데, 2년마다 개최지를 선정해 WASBE 세계관악컨퍼런스를 연다. 올해로 20회를 맞은 이 컨퍼런스가 한국 최초로 경기도 광주를 택한 배경에는 광주시의 노력이 숨어 있다. 광주시는 체코 프라하에서 개최한 2022 세계관악컨퍼런스와 미국 시카고 세계관악협회 총회에 참석해 활발한 홍보 활동을 벌인 끝에 유치를 확정했다. WASBE 회원과 2만여 명의 관람객이 모일 것으로 추정하는 이번 대규모 행사를 계기로 광주시는 음악과 연계한 지역 문화 콘텐츠를 점차 늘릴 계획이다.

야생화처럼 피어난 한국 관악

광주에서 열리는 세계관악컨퍼런스의 주제는 '야생화'다. 완벽한 조건이 아니더라도 개성 있고 아름답게 자라나는 야생화처럼 자연스럽게 성장해 온 한국 관악을 널리 알리고자 정한 주제다. 방문객이 야생화 같은 한국 관악의 매력에 빠지는 동시에 광주의 풍요로운 자연과 문화 예술 현장을 누리도록 도시 곳곳에서 행사를 진행한다. 주 행사장인 남한산성 아트홀을 중심으로 남한산성 인화관 및 행궁, 곤지암 도자공원, 중대물빛공원, 청석공원에 관악 소리가 울려 퍼질 예정이다. 이번 컨퍼런스의 메인 콘서트는 세계관악협회가 선정한 미국 브루클린 윈드 심포니, 프랑스 OHJS 스트라스부르 관현악단, 독일 바덴뷔르템베르크 밴드, 한국 제주 서귀포 윈드 오케스트라 등 10개 팀이 연주에 나선다. WYWO(WASBE Youth Wind Orchestra) 공연과 프린지 페스티벌 공연도 이어진다.



© 최남웅

Hot Spot

관악으로 꽃피는 광주

2024년 광주 전역에 음악이 울려 퍼진다. 공원 등 열린 공간에서도 공연을 진행하니 누구나 자유롭게 감상하기 좋다.

남한산성과 남한산성 아트홀



광주를 대표하는 문화유산 남한산성은 2014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됐다. 산책로를 따라 유서 깊은 역사의 흔적을 발견하고 계절마다 모습을 달리하는 풍광을 만끽한다. 남한산성의 문화적 가치를 기리는 남한산성 아트홀에서는 다양한 장르의 공연이 열린다.

곤지암 도자공원



조선 시대 왕실에 납품할 백자를 생산하는 관요가 있던 자리에 들어선 도자 테마파크다. 약 11만 7500제곱미터(3만 5543평) 규모에 달하는 부지에는 조각공원과 경기도 자박물관, 도자 상점을 비롯해 복합문화홀 등 부대시설과 구석기시대 유적, 체험 마당 등 볼거리도 다양하다.

청석공원



유유히 흐르는 경안천 주변에 조성한 청석공원은 시민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는 안식처다. 산책로와 잔디광장을 거닐고 체육공원에서 휴식을 즐긴다. 이 공원은 사시사철 다채로운 행사가 열리는 문화 향유의 장이기도 하다. 마음에 심표를 선사하는 풍경에서 한껏 여유를 부린다.

일상에 심표를 찍는 시간 강진 푸소

전남 강진에서 푸소 체험으로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랜다. 다정한 농촌의 삶이 묵은 스트레스를 풀어 준다.

Feeling-Up
Stress-Off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과 소음 가득한 환경, 경쟁이 끊임없는 도시. 생각만 해도 가슴이 답답하다. 치열한 일상에서 벗어나고 싶을 때 우리는 여행을 떠올린다. 일상과 다른 환경에서 해방감을 느끼다 보면 지친 몸과 마음을 다스릴 여유가 생기기 때문이다. 여행의 즐거움에 따뜻한 정까지 덩으로 안겨 주는, 휴식에 맞춤형 프로그램이 전남 강진에 있다.

농촌에서 나누는 정

푸소는 강진의 농가에서 일정 기간 머물며 다양한 체험을 하고 농촌의 삶을 경험하는 생활 관광 프로그램이다. 필링 업, 스트레스 오프(Feeling-Up, Stress-Off)의 영문 머리글자를 따 이름 붙인 것으로 '감성을 채우고 스트레스는 비운다'는 의미다. 청정한 자연과 다채로운 볼거리를 품은 고장이건만, 강진은 다른 지역보다 숙박 시설이 부족하다는 이유 하나로 여행 경유지라는 인식이 강했다. 그런 이미지를 바꾸어 보자는 의지가 프로그램의 싹을 틔웠다. 강진이 지닌 자원을 활용하면서 주민에게도 보탬이 될 방법을 고민한 결과 탄생한 것이 푸소다.

첫 시도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수학여행 프로그램이었다. 날로 치열해지는 경쟁에서 벗어나 학생들을 쉬어 가게 하려는 강진군의 따뜻한 마음을 녹였다. 텃밭에서 수확한 농작물로 함께 저녁 밥상을 준비하고, 빛나는 별을 보며 주인장과 친숙한 이야기를 나눈다. 밤이 깊어질수록 은은한 풀벌레 소리를 가만가만 듣다가 스르륵 잠이 든다.

폭 자고 일어나 건강한 식재료를 차린 아침을 먹은 뒤엔 감자·옥수수 수확, 염소젖 짜기, 낙지 잡기 등 각 농가의 특징이 담긴 농촌 체험으로 강진을 느낀다. 체험자는 고즈넉한 분위기와 넉넉한 인심, 농촌의 감성에 푹 빠진다. 자녀들을 도시로 떠나보내고 적적했던 강진 주민들은 손주 같은 아이들과 정을 나누며 삶에 새로운 활기가 도니, 모두의 가슴속에 소중한 추억이 생긴다.

활짝 열린 문, 강진 푸소

2015년 5월부터 2023년 6월까지 푸소 참여자는 무려 5만 3000명에 달한다. 올해로 9년 차에 접어든 체험은 적적하던 농촌에 활기를 불어넣었다. 체험 대상을 직장인 혹은 가족 등으로 확대한 후 고장에 한 달 이상 머물다 가는 '생활 인구'가 늘었다. 지역 주민과 정을 나눈 인연을 맺은 사람들도 다시금 강진을 찾아왔다.

이 기세를 등에 업고 푸소 시즌 2가 막을 올린다. 빈집을 리모델링하고 전원주택 단지를 조성해 강진에 정착할 은퇴자나 귀농인을 맞이한다. 이들이 푸소 체험 운영자로 합류하니, 체험은 더욱 다채로워진다. 강진군 역시 힘을 보탠다. 노후한 농가 시설을 손보는 것은 기본, 다양한 연령대의 체험자를 유치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정비하고 푸소 체험 운영자에게 역량 강화 교육도 진행한다.

1박 2일 또는 2박 3일간 머무르는 일반 푸소부터 일주일 살기 푸소, 학생 푸소 등 여러 체험 프로그램 중 마음에 드는 것을 골라 강진으로 떠나자. 푸근하고 따뜻한 이 고장은 언제나 여행자에게 열려 있다.

푸소(FU-SO)란?

강진의 농가에 머물며 농촌의 정과 감성을 느끼는 체류형 농촌 체험 프로그램이다. '마음 푸소' '스트레스 푸소'처럼 전라도 사투리로 '떨어내다'라는 뜻도 있다. 개인 체험자는 일반 푸소와 일주일 살기 푸소, 단체는 학생 푸소를 비롯해 공무원 청렴 푸소, 시티 투어 푸소 중에서 선택 가능하다.





우리가 춘천을 사랑하는 이유

강원도 춘천 태생으로 고향에 남다른 애정을 지닌 육동한 춘천시장은 그가 말하는 춘천의 특별한 역사와 문화, 자연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본다.

Q. 고향을 생각하는 마음이 각별하시지요. 토박이로서 춘천을 소개해 주세요. 색다른 겨울 여행지도 안내 부탁드립니다. A. 감히 이렇게 말해 봅니다. 춘천은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예요. 구봉산, 용화산, 북배산, 삼악산, 대룡산이 소양호와 의암호를 감싸 안았으니 계절마다 이 고장만의 독특한 빛깔을 느낄 수 있죠. 지금은 ITX-청춘 열차를 타고 타지에서 춘천을 방문하시는데, 철도 노선이 확대된 이후엔 더 많은 분이 이곳의 아름다움을 발견하시리라 기대합니다. 올겨울 춘천을 여행하신다면 의암호를 따라 늘어선 명소를 살피셔야 해요. 춘천 여행의 핵심 콘텐츠이기도 한 이 일대엔 한국 최장 길이를 자랑하는 삼악산 호수케이블카,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모두가 사랑하는 레고랜드, 서면의 애니메이션 박물관과 토이로봇관, 글램핑장이 자리하지요. 특히 레고랜드는 올해부터 동계 운영을 개시합니다. 크리스마스 와 새해 테마로 여러 가지 이벤트와 행사도 마련한답니다.

Q. 누군가는 먹거리를 여행의 이유로 꼽습니다. 시장님이 추천하는 춘천의 먹거리가 궁금합니다. A. 춘천의 상징, 닭갈비와 막국수를 빼놓을 순 없겠습니다. 다만 저는 지금 수준에서 머물지 않을 생각입니다. 다양한 조리 방법과 재료를 활용해 전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는 국제적인 요리로 발돋움하게 하는 것이 춘천시의 목표입니다. 춘천을 대표하는 축제 '막국수닭갈비축제'를 눈여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배불리 드신 후엔 커피 한잔으로 입가심

을 해야겠죠. 혹시 알고 계셨나요? 춘천이 대한민국 커피 역사의 출발점이란 사실 말입니다. 한국 최초 로스터리 카페가 춘천 공지천에 있습니다. 1968년, 에티오피아 한국전 참전 기념비 준공식에 하일라 셀라시에 황제가 참석했는데 그때 하사한 황실 원두가 한국 원두 커피의 시작이지요. 그리고 지금 춘천엔 서면과 소양강댐, 구봉산 등지에 카페 거리가 생겨났고 무려 카페 700여 곳이 성업 중입니다. SNS 해시태그 검색만 살펴봐도 #춘천카페가 닭갈비와 막국수를 훨씬 앞선 상황이에요. 참, 커피와 즐기기 좋은 감자빵도 춘천에서 탄생했습니다. 따뜻한 커피 향과 춘천의 겨울 정취, 꼭 한번 느껴 보셔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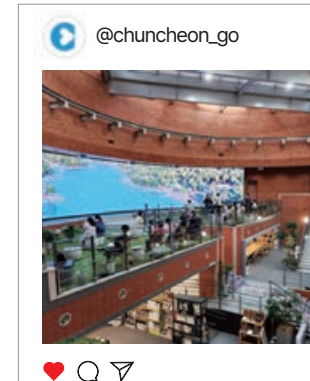
Q. 많은 여행자가 춘천에서 머물고 즐기도록 '체류형 도시'로 거듭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지요. A. 현재 춘천 위도에 대규모 관광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1000여 실의 프리미엄 숙박 시설과 인공 해변을 만들 계획입니다. 이로써 춘천 여행 코스의 선택지가 대폭 늘어날 것이라 예상합니다. 아간 여행 콘텐츠도 발 빠르게 개발해 왔습니다. 춘천 중심인 의암호 일원에 아간 경관 조명을 설치하고, 밤하늘을 아름답게 수놓을 드론 라이트 쇼를 마련했지요. 공모 사업으로 선정된 특성화 야시장 역시 활발하게 운영합니다. 관광지와 전통 시장을 잇는 아간 시티 투어로 콘텐츠 간 시너지 효과까지 일어나는 중입니다. 철도 상품과 춘천 주요 관광지를 연계한 콘텐츠 또한 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Q. 호반 도시 춘천의 정체성을 강화할 특별한 계획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A. 우리 춘천은 1965년 춘천댐, 1967년 의암댐, 1973년 소양강댐을 차례로 완공하면서 호반 도시라는 이미지를 얻었습니다. 그런 만큼 물과 호수가 가진 또 다른 가치를 활용하려 합니다. 춘천이 한국에서 유일한 정원소재실용화센터를 건립하는 이유입니다. 실용화센터는 정원 조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는 주요 시설로, 지방정원 지정 후 국가정원 승격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상중도 일대를 거점 공원으로 조성하고, 봉어섬과 위도에 이르는 단계별 그린 인프라를 확

올겨울 춘천을 여행하신다면 의암호를 따라 늘어선 명소를 살피세요. 한국 최장 길이를 자랑하는 삼악산 호수케이블카, 서면의 애니메이션 박물관과 토이로봇관, 글램핑장이 자리하지요.



PHOTO PICK 춘천 여기서 한 컷



주말에 여기 어때? 📷 국립춘천박물관 🏛️
계단을 따라 펼쳐지는 영상 전시!
박물관 자체가 포토 존!
다양한 전시와 아이들 체험관이 있고,
카페에서 차 한잔 하기도 좋은
국립춘천박물관! 📍
주말 나들이 장소로 추천! 🍷

#춘천 #춘천시 #춘천시청 #춘천핫플
#춘천여행 #춘천놀거리
#춘천가볼만한곳 #좋아요

대할 계획입니다. 상중도는 북한강-의암호-소양강을 잇는 호수 안의 섬이라는 특수성을 지녔을 뿐 아니라, 독특한 생태계를 이루는 습지를 품고 있습니다. 생태 습지로서 보전 가치가 매우 높지요. 호수와 산림의 가치를 부지런히 가꾸어 나가는 정원 도시가 되겠습니다.

Q. 호수와 정원을 동시에 거느릴 춘천 시민의 삶이 궁금해집니다. 춘천은 지역 소멸 위기 속에서도 인구가 증가하는 몇 안 되는 도시 중 하나이기도 하죠. A. 올해 10월 기준, 춘천시 인구는 29만 1028명입니다. 강원대학교와 한림대학교 등 6개 대학이 소재하고 종합 의료 시설까지 자리한 덕입니다. 게다가 호수·산림 자원이 풍부한 도시 곳곳은 춘천 시민이 사랑하는 삶의 휴식처이지요. 수도권 접근성도 훌륭합니다. 서울춘천고속도로, 경춘선 전철, ITX-청춘이 춘천과 서울을 연결하는 데다 향후 철도 노선을 연장한다면 인구는 더욱 늘어나겠죠. 춘천이 인구 30만을 넘어 대도시 특례를 획득하면 도시 인프라, 행정 등 모든 서비스의 질이 한결 높아질 겁니다. 시민과 사회단체, 교육기관, 기업이 한마음으로 인구 30만을 위해 노력하는 까닭입니다.

Q. 올해 세계태권도연맹(WT) 본부 유치에 성공하고 태권도문화축제까지 개최하면서 국제적인 스포츠 도시로 도약했지요. 레저 도시 춘천의 미래를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A. 지난 10월 춘천레저·태권도조직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춘천을 스포츠로 융합하고 발전시키겠다는 의지입니다. 춘천의 국제레저대회와 춘천코리아오픈국제태권도대회는 춘천 스포츠의 커다란 두 축입니다. 올해 WT 본부 유치, 국제레저대회, 태권도문화축제로 춘천의 저력과 시민의 열정을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관내 대학, 교육기관과 연계해 스포츠 교육 기반을 다진다면 시민의 체력 향상은 물론 국제적 안목을 갖춘 미래 인재를 기르는 데도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 성과를 토대로 스포츠 문화 공연, 테마 관광, 관련 기업 유치를 통해 산업을 선도하는 도시로 거듭나려 합니다. 국제 레저 스포츠 도시 춘천의 활기찬 모습도 지켜봐 주세요. 📌

로봇 역무원과 미래 기차역에서 만나요

지난 11월 경기도 광명역에 로봇 역무원이 나타났다.
이를 기획하고 연구한 한국철도공사 최성필 책임연구원과 대화를 나눴다.



Q. 로봇 역무원을 직접 기획하고 연구하셨다고요. 우선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철도공사에서 로봇, 스마트 내비게이션 개발 연구 등을 맡아 책임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연구 과제는 철도 수송 수요 예측 연구와 공사 내의 현안을 해소하는 자체 R&D, 미래 철도를 구현하기 위한 국가 R&D로 나뉩니다. 최근에는 국가 R&D로 '철도 역사 내 안내 및 수하물 이송 자율 주행 로봇 개발-검증' 과제, 그리고 한국산업기술진흥원 R&D인 '교통 약자를 위한 도시 철도 역사 내 맞춤형 스마트 내비게이션 개발' 과제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로봇 역무원은 앞서 설명한 국가 R&D 과제를 거쳐 나온 중간 단계의 연구 성과물이지요.

Q. 지난가를 로봇 역무원이 광명역을 떠들썩하게 했죠. 로봇 역무원은 어떻게 탄생했나요? A. 최근 디지털 경향이 뜨거운 관심을 받으며 경영 정책의 새로운 대안으로 떠올랐지요. 사람이 하던 단순 반복 업무를 로봇이 대체해 여러 비용을 절감하는 겁니다. 사실 로봇 역무원은 2019년 초부터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광명역의 거대한 규모 때문에 출입구나 길을 찾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안내 로봇을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한 것이지요. 다만 고객으로 붐비는 역사에 로봇을 도입했다가 동선 방해나 부딪힘 등 안전 문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 잠시 보류했습니다. 그러던 2021년, 한국 최대 로봇 박람회인 로보월드를 참관했습니다. 한국 로봇 기술 동향을 살피던 중 기차역처럼 많은 사람이 모이는 대형 병원과 쇼핑몰에서 안전성을 검증해 ISO 국제 인증을 받은 자율 주행 로봇을 마주했지요. 이때 영감을 얻어 본격적으로 철도 역사에 로봇을 도입하는 방안을 궁리했습니다.

Q. 로봇 역무원이 실제로 한 일은 무엇인가요? A. 역사 내 경로 동반 안내와 수하물 운반 기능을 수행해 고객에게 더 나은 철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역무원의 업무를 경감하는 역할을 합니다. 모바일 앱 코레일톡과 승차권 QR코드 정보를 연계해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한 점이 특징입니다. 승객이 광명역 도착 20분 전에 코레일톡으로 로봇을 호출하면 로봇이 지정 장소에서 미리 대기합니다. 이후 승차권 QR코드를 로봇 카메라에 인식한 뒤, 캐리어 등 수하물을 로봇에 싣고 로봇 화면에서 목적지를 선택해 자율 주행으로 운반하게 합니다.

Q. 승객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A. 로봇 역무원은 11월 한 달 시범 운영 기간에만 운영했습니다. 아직 로봇이 생소한지 많은 고객님이 머뭇거리다가 운영 도우미에게 사용해도 괜찮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로봇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고 나서는 철도 승차권 정보와 연계한 수하물 운반, 에스코트 안내 기능을 신기해하시며 굉장히 편리하다는 반응이었어요. 특히 아이들이 가던 길을 멈추고 관심을 보이기도 해서 뿌듯했습니다.

Q. 로봇 역무원이 서비스를 제공하기까지 많은 부서와 협력했겠네요. A. 물론입니다. 공동 개발에 참여한 자율 주행 전문 기업 트위니와 한국철도공사 관련 부서인 미래전략실, IT운영센터, 여객사업본부, 디자인센터, 광명역, 수도권광역본부 관계자분들의 협조와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무엇보다 연구원 내부에서 몰심양면으로 지원



승객분들이 로봇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고 나서는 철도 승차권 정보와 연계한 수하물 운반, 에스코트 안내 기능을 신기해하시고 굉장히 편리하다는 반응을 보였어요. 아이들이 가던 길을 멈추고 관심을 보이기도 해서 뿌듯했습니다.

해 주셨고, 여러 연구원분의 관심과 격려가 큰 힘이 되었습니다. 지면을 빌려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Q. 책임연구원님이 앞으로 진행하실 연구가 더욱 궁금해집니다. 2024년에 꼭 이루고 싶은 것이 있다면요? A. 이번 시범 운영 결과 나온 개선점을 반영해 철도 역사 내에 로봇을 상용화하는 것이 최종 목표입니다. 로봇 역무원 개발 사업은 2026년까지 단계별 검증을 거쳐 경기도 광명·충북 오송·부산역에 상용화할 예정이고, 헛 GPT를 도입한 인공지능형 대화 기능 등도 추가할 계획입니다. 이외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 R&D인 '교통 약자를 위한 도시 철도 역사 내 맞춤형 스마트 내비게이션 개발' 과제도 꾸준히 연구 중입니다. GPS를 지원하지 않는 철도역 내에서 모바일 앱을 이용해 스마트폰으로 내비게이션 길 안내를 제공하는 기술이지요. 이러한 연구가 결실을 거두어 고객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철도를 이용하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랍니다.

지구촌 소식



축제 & 행사

+ 스위스 관광청 크리스마스 마켓과 테마 기차 여행

황홀한 불빛이 거리를 가득 메우고, 기분 좋은 글뤼바인 향기가 풍기는 스위스의 크리스마스 마켓으로 떠난다. 취리히 구시가지 니더도르프의 아기자기한 불거리, 거대한 크리스마스 리스로 변신한 루체른 프란치스카너브루넨 분수대가 가슴을 벅차게 한다. 여흥은 기차 여행으로 이어간다. 스위스 트래블 패스를 쥐고 몽트뢰에서 출발하는 치즈 트레인과 초콜릿 트레인, 베른에서 출발하는 캄블리 쿠키 기차와 글로비 익스프레스에 오른다.

문의 www.MySwitzerland.co.kr(스위스 관광청)



투어 & 액티비티

북마리아나제도 로타섬에서 새해맞이 마라톤을

추운 날씨에서 벗어나 온화한 풍광을 즐기며 마라톤에 참여한다. 북마리아나제도의 섬 로타가 2024년 1월 13일 '로타 마라톤' 대회를 연다. 한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4시간 반이면 닿는 사이판과 경비행기로 30분 거리인 로타는 약 85제곱킬로미터(약 2600만 평) 면적을 지닌 작고 깨끗한 섬이다. 첫 개최를 앞둔 로타 마라톤은 지역의 아름다움을 알리기 위해 기획한 행사다. 풀코스, 하프 코스, 5K 코스가 있으며, 남녀 각 1~3위를 선정해 상금으로 최대 500달러를 수여한다.

문의 www.mymarianas.co.kr(마리아나 관광청)



호텔 & 리조트

캄보디아, 라오스 남국의 리조트에서 명상적인 연말 보내기

프리미엄 리조트 아만에서 한 해를 고요하게 마무리하는 여정이야말로 나를 위한 특별한 선물 아닐까. 캄보디아 전 국왕의 별장을 리모델링해 만든 리조트 아만사라에서 요가와 운동, 명상 프로그램으로 묵은 시름을 털어내고, 양코르 숲속을 걸으며 자연에 몰입하는 삼림 세러피에 참여한다. 라오스의 아만타카에서는 메콩강 크루즈 항해, 승려들과 함께하는 명상 체험 등을 준비했다. 아만이 제공하는 온전한 휴식과 로컬 액티비티로 지친 심신을 회복하고 맑은 마음으로 새해를 맞는다.

문의 www.aman.com(아만)



프로모션

면역력 비상! 겨울 건강관리를 위한 프리주비네이션

열차 좌석에 앉아 있는 당신, 손발이 시리거나 한기를 느낀다면 면역력이 떨어졌다는 신호다. 프리주비네이션으로 건강한 체력을 미리미리 관리할 때다.

평상시 건강을 과시하며 몸에 열이 많은 편이라 자부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감기에 걸려 며칠씩 앓아눕는 이들이 있다. 이와 반대로 지나치게 한기에 예민해 초겨울부터 추위를 견디지 못하는 이들도 있다. 극단적인 두 경우 모두 면역력 저하를 의심할 만하다. 젊고 건강한 몸은 체온 관리에서 출발한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할 때다.

일반적으로 체온이 1도 떨어지면 각종 대사 능력과 면역력이 저하한다. 머플러 등 방한용품을 챙기거나 따뜻한 차를 마셔 체온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추위에 맞서는 건강한 체력을 갖추려면 근육량 증가만이 답이다. 체온의 약 20퍼센트가 근육에서 비롯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근섬유 속 미토콘드리아의 수행 능력이 관건이다. 미토콘드리아는 혈액 속 지방을 연소시켜 에너지를 만드는데, 근육이 튼튼할수록 미토콘드리아 수가 증가하고, 아울러 에너지 소비가 늘어나 체온도 높아지며 면역력도 좋아진다.

프리주비네이션, 노화에 앞서 건강을 유지할 것

문제는 노화다. 미토콘드리아는 신진대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세포 소기관으로, 이 역시 나이가 들어갈수록 기능이 떨어진다. 미토콘드리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일은 세포 전반의 노화 및 쇠퇴 징후를 되돌리는 데 큰 힘이 된다. 조찬호 청담셀의원 대표원장은 건강하게 근육을 늘리는 동시에 플러스 요소로 작용하는 건강관리를 더해 보라고 제안한다. 운동과 함께 노화를 예방하는 프리주비네이션 시술을 병행하면 젊고 건강한 몸을 장기간 지킬 수 있다는 것이다. 조 원장은 프리주비네이션이 “노화 현상을 느끼기 전 건강한 체력을 오래 유지하도록 돕는 치료”를 통칭하며, “일종의 노화 예방주사”라고 설명한다.

대표적인 프리주비네이션 시술은 줄기세포 정맥주사다. 줄기세포는 자가 재생 능력과 분화 능력을 지닌 원시세포다. 손상된 세포를 회복시키고, 새로운 혈관을 형성해 혈액 순환을 돕는 데다 단백질 합성 효과를 높여 기초 체력을 끌어올린다. 나아가 난치병 치료, 치매 예방 등 다양한 효과로 의료계에서 주목받고 있다. 조 원장은 “프리주비네이션

시술은 줄기세포를 충전함으로써 몸을 젊게 깨우는 것”이라며, 건강한 상태를 오래 유지할수록 노화가 가속화하는 시점도 더 늦춰진다고 부연한다. 줄기세포를 정맥에 주사하면 체력 증진 효과를 볼 수 있다. 청담셀의원은 이 같은 줄기세포 효과에 주목, 체력 저하와 노화된 몸을 개선하기 위한 줄기세포 정맥주사 ‘청셀(淸Cell)’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성체 줄기세포를 채취해 링거로 주입, 전신 재생 작용을 촉진한다.

이 밖에 줄기세포를 타깃 부위에 집중 투여해 젊음을 잃어 가는 국소 부위 회복도 기대해 볼 만하다. 성 기능을 증진하는 ‘성셀(性Cell)’, 피부 탄력을 높이고 주름을 완화하는 ‘미셀(美Cell)’, 두피에 주사해 탈모를 치료하는 ‘모셀(毛Cell)’, 약해지기 쉬운 인대를 더 탄탄하게 해 주는 ‘활셀(活Cell)’ 등이 여기 속한다.

초겨울 건강 지키는 프리주비네이션 시술 추천

조 원장은 이와 함께 건강을 과신하지 말고 1년에 두세 번 병원을 찾아 정기적으로 건강 상태를 체크하라고 조언한다. 유전자 검사로 취약점을 미리 인지하고, 바이오마커 검사를 통해 현재 몸 상태를 파악하면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내 몸을 잘 아는 ‘단골 의사’를 만드는 것도 현명한 건강관리 비결이다. “미래 의학은 발병하고 난 뒤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젊음을 오래 유지할 수 있는 선제적 안티에이징에 집중하고 있다. 건강한 몸과 아름다운 외모를 오래 유지함으로써 활기찬 인생을 설계하는 게 건강은 물론 경제적인 면에서도 유리하다”라고 조 원장은 말한다.

청담셀의원은 ‘헬스케어 디자인’을 지향하는 의료 기관으로 줄기세포를 활용한 전신 항노화 치료에 특화됐다. 특히 한국에서 골수·지방 줄기세포를 모두 활용하는 국소수 의료 기관 중 하나다. 조선일보가 주관하는 ‘대한민국 메디컬 헬스케어 대상’ 항노화 줄기세포 치료 부문에서 5년 연속 수상하기도 했다. 병원을 이끄는 조찬호 원장은 줄기세포에 관한 연구로 의학 석·박사 학위를 받은 항노화 의학 전문가다.

청담셀의원 02-514-2225



Treasure of Korea



신비로운 상상의 동물 - 용도

넘실거리는 파도 위로 용이 솟아오른다. 꿈틀대는 용은 입을 크게 벌리며 바로 앞의 여의주를 잡기 직전이다. 주변을 구름이 겹겹이 감싸 초현실적 느낌이다. 용은 십이지신 가운데 유일하게 실재하지 않는 상상의 동물로 낙타 머리에 사슴 뿔, 토끼 눈, 소 귀, 뱀 목, 개구리 배, 잉어 비늘, 매 발톱, 호랑이 발 형상을 하고 있다고 전한다. 신통력을 지녀 비와 구름을 부르는 물의 신, 풍요의 신으로 여겼고 왕실에서는 제왕의 상징으로, 불교에서는 불법, 나아가 국가의 수호자로 인식했다. 조선 시대에는 정월 초 귀신이나 재앙을 막고자 궁궐과 관청 등 대문 양쪽에 호랑이 그림과 함께 용 그림을 붙이곤 했다. 푸른 용의 해인 2024년 갑진년이 다가온다. 국립중앙박물관은 12월 20일부터 2024년 4월 7일까지 상설전시관 곳곳에 용 관련 전시품 15점을 소개한다. 연말연시, 박물관에서 다양한 모습의 용을 만나 보자.

A Mystical Creature of Imagination - Painting of Dragon in the Clouds

A dragon soars above the billowing waves. With its mouth wide open, it is about to seize a mystical orb called Yeouiju. Among the 12 zodiac animals, the dragon is the only imaginary creature. It was believed to be the god of water, a symbol of royalty, and a guardian against evil. During the Joseon Dynasty, at the beginning of the lunar year, dragon paintings were often placed at the entrances to palaces and government offices to ward off evil spirits. Come celebrate the year-end at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where you will find 15 dragon-related exhibits at various locations in the Permanent Exhibition Hall from December 20 to April 7, 2024.

PUZZLE

<수학을 배우는 숨은그림찾기(자녀탐구)>

다섯 종류의 숨은그림찾기가 담긴 책으로 집중력과 관찰력을 기른다. 똑같이 보이는 쿼지 중에서 다르게 생긴 것을 찾고, 동물 친구가 어디 숨었는지 살핀다. 복잡한 규칙을 풀어나 보물 상자를 열 전하는 기쁨도 누린다. 아끼지 않던 그림 덕에 파즐을 풀고 나서도 자꾸만 책을 들여다보게 된다. 노란우산 유아 콘텐츠 연구소 지음 노란우산 펴냄

editor. 남혜림 자료 협조 노란우산



여기 북극곰이 얼마에게 가려면 많은 숫자 중에서 1부터 10까지의 정수를 순서대로 앞에서 건너뛰어 책오. 여기 북극곰이 얼마에게 갈 수 있도록 숫자를 찾아주세요.

*다음 페이지에서 타는 친구도 노도 진행할 수 있게끔 이므로만 찾아주세요.

*정답은 124쪽 에 있습니다.



<데이비드 호크니: Bigger & Closer(Not Smaller & Further Away)>

기술 시대의 예술 작품이 선사하는 압도적 감각에 호기심이 인다면, 라이프 트럼 서울이 마련한 이 전시를 주목해야 한다. 최첨단 음향과 프로젝션 매핑 시스템을 완비한 공간에서 데이비드 호크니가 펼치는 형형한 색채의 세계를 여섯 가지 테마로 마주하는 시간. 몸소 전시 기획에 참여한 호크니는 자신의 60여 년 화업을 회화, 사진, 사운드로 선보일 뿐 아니라 작업 방식과 의도를 설명하는 내레이션까지 맡았다. **기간** 2024년 5월 31일까지 **문의** 02-3442-6460(라이프 트럼 서울)

Culture

<황영성 초대전: 우주 가족 이야기>

남도 화단의 거장 황영성의 폭넓은 작품 세계를 돌아본다. 가족을 주제로 근원적 그리움을 탐구해 온 작가는 시골집에 모여 사는 소박한 가족에서 출발해 대자연의 온 생명으로 시야를 넓혀 가며 공생을 노래하는 '우주 가족' 사상을 확립한다. 1950년대 말 초기 구상회화 작품부터 다양한 매체의 실험을 시도한 최근 작품까지 회화, 설치, 아카이브 자료 등 110여 점을 망라했다. **기간** 2024년 2월 18일까지 **문의** 061-760-3242(광양 전남도립미술관)



© 황영성, '도넛적 풍경', 130.3x162.2cm, 캔버스에 유채, 1993(위).
© 황영성, 'Family Story', 200x200cm, 캔버스에유채, 1996(아래).



<모나리자의 집은 어디인가>

얼마 전 한국 절도단이 일본에서 훔친 14세기 고려 불상이 일본 소유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와 화제를 모았다. 그 소중한 유산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어야 정당할까? 클림트의 그림은 나치 독일이 강탈해 미술관에 걸었다가 상속인이 법정 소송까지 벌였다. 위대한 문화유산의 소유권을 둘러싼 불편하지만 흥미로운 이야기가 펼쳐진다. **김병연** 지음 **역사비평사** 펴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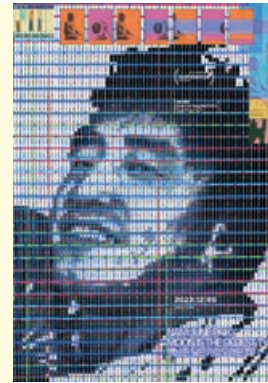
<안녕, 모두의 바다>

바다 없는 지구를 상상할 수 없다. 세계적인 그림책 작가 해리엇 러셀이 발랄하고 사랑스러운 그림책으로 돌아왔다. 바닷속 생물을 찾고, 선을 그어 가며 미로를 탈출하고, 발상을 전환해 소금병에 바다를 그려 보는 등 온갖 방법으로 바다를 읽고 배우고 바다와 노는 책이다. 우리 안에 숨은 생태 감수성이 깨어난다. **해리엇 러셀** 지음 **빨간코코** 옮김 **상추쌈** 펴냄



<장동건의 백 투 더 북스 2>

네덜란드·영국 등 유럽에서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서점을 배우 장동건이 찾아가 운영 비결을 듣고, 서점이 사회에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조명한 동명의 TV 프로그램을 책으로 엮었다. 내용에 더해, 그림 같은 풍경과 서점 사진도 즐거움을 선사한다. 온라인 시대라지만 책과 서점의 가치는 여전히 영원하다 믿는다. **장동건의 백 투 더 북스 제 작팀** 지음 **인디컴** 펴냄



<백남준: 달은 가장 오래된 TV>

비디오아트 창시자, 천재, 괴짜... 영화는 백남준을 향한 수식어에 '예언가'를 덧붙인다. 작품 'TV부처'는 스마트폰과 소셜 미디어를 이용하는 현대인의 모습과 닮았고, 그가 주창한 '전자 정보 고속도로'는 인터넷으로 실현됐다. 백남준의 작품과 영상을 집약한 다큐멘터리 영화로, 동명의 작품에서 이름을 빌려 왔다. 12월 6일 개봉. **감독** 어맨다 김 **출연** 백남준, 스티븐 연(내레이터)



<엘리자벳과 나>

마흔두 살 이르마는 삶의 기로에 놓인다. 19세기 유럽 여성은 대개 결혼을 하거나 수녀원에 가야 했기 때문. 좁은 선택지에서 벗어나 황실의 시녀가 된 그는 황후 엘리자벳을 보필하며 복잡한 감정을 느낀다. 애칭 '시시'로 유명한 아름답고 변덕스러운 황후와 이르마의 이야기가 펼쳐진다. 12월 13일 개봉. **감독** 프라우케 핀스터발더 **출연** 산드라 윌러, 수잔네 볼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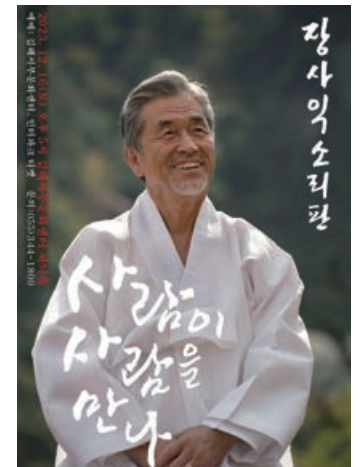


<겨울나그네>

최인호 작가의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하는 뮤지컬이 작가 10주기를 맞아 다시 무대로 돌아왔다. 의대생 민우는 다혜와 첫 사랑을 시작하며 평범한 대학 생활을 이어간다. 그러나 갑자기 찾아온 아버지의 죽음 이후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되고, 예상치 못한 사건에 휘말려 감옥에 수감되고 만다. 슈퍼주니어 려욱, 비투비 이창섭, SF9 인성 등 아이돌 그룹 멤버를 대거 주연에 캐스팅했다. **기간** 12월 15일~2024년 2월 25일 **장소** 서울 한전아트센터 **문의** 02-2105-8133

<사람이 사람을 만나>

오랜 역사의 도시 김해에서 장사의 소리판이 흥겹게 춤추고 노래한다. 코로나19로 상처받았던 사람들의 마음을 구성진 소리로 치유한다. 공연 제목은 그동안 유예한 만남을 다시 이어가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되새기자는 의미를 담았다. 특히 이번 무대에서는 서정춘 시인의 '11월처럼', 허형만 시인의 '구두', 한상호 시인의 '뒷집'을 처음으로 노래한다. 광주에서도 공연이 이뤄진다. **일시** 12월 16일 오후 5시 **장소** 경남 김해서부문화센터 **문의** 055-344-1800



<고도를 기다리며>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아일랜드 출신 극작가 사무엘 베케트의 대표 희곡을 신구, 박근형, 박정자, 김학철 등 한국 연극계를 이끈 대배우들이 연기한다. 양상한 나무 아래 블라디미르와 에스트라공은 고도를 기다린다. 그들은 고도가 누구인지, 왜 기다려야 하는지도 알지 못한다. 연기자의 대화와 행동 하나하나에 의미가 담겼다. 인물의 침묵과 기다림이 관객에게 긴 여운을 전한다. **기간** 12월 19일~2024년 2월 18일 **장소** 서울 국립극장 달오름극장 **문의** 02-2280-4115





Letters from Readers



<KTX매거진>을 보고 나서



성곽 섬 그리고 항구, 거제

경남 거제의 탁 트인 바다, 푸른 자연은 보기만 해도 마음이 시원해지더군요. 특히 장승포항의 역사를 다룬 내용이 기억에 남아요. 역시 거제는 사람 사는 냄새가 물씬 풍기는 동네인 것 같아요.

조혜원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백안길



산으로 강으로 상주기행

경북 상주의 경천섬 전경 사진을 보고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낙동강이 그토록 평화롭고 아름다운 하중도를 만들어 냈다는 걸 처음 알았거든요. 멋진 곳을 알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꼭 가 볼 거예요.

강라원 부산시 북구 효열로

독자 편지를 보내 주세요!

<KTX매거진>을 읽은 소감과 독자님의 여행 사진을 기다립니다. KTX@seoulmedia.co.kr로 독자 평과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 추억이 담긴 사진을 보내 주세요(사진은 600KB 이상). 메일에 이름, 연락처, 주소를 꼭 기재해 주세요. 마감은 12월 15일입니다.

기차로 여행하면서



하늘과 바다가 허락해야만 갈 수 있다는 경남 거제 외에도 보타니아에 다녀왔습니다. 다리가 아파 멀리 못 가시는 엄마를 모시고 여행했는데 너무 행복했어요. <KTX매거진>에서 소개한 충주 수안보 온천도 방문할 예정입니다! 박미애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가포로

독자 편지에 선정된 분께 선물을 드립니다!

<KTX매거진> 독자 편지에 선정된 분께는 무설탕 초콜릿을 코팅한 한 봉 견과 초코헬스 제로넛츠를 선물로 드립니다. 당류·콜레스테롤·트랜스지방 함량이 제로인 초콜릿 간식으로, 무설탕 초콜릿을 입힌 아몬드, 헤이즐넛, 캐슈넛이 골고루 들었습니다. 카카오버터를 넣은 벨기에산 리얼 다크 초콜릿 등 높은 품질의 원재료를 사용해 진한 맛이 특징입니다. 포장이 예뻐 선물하기에도 좋습니다.



제품 문의 02-791-0756



Information



제13회 철도사진공모전 금상 '눈보라 휘날리며'



- 110 코레일 소식
- 118 편의 시설 및 부가 서비스
- 120 열차 이용 안내
- 122 비상시 행동 매뉴얼





한국철도공사, 빈대 예방에 총력



승객의 안전을 위해 해충 차단에 힘을 쏟는다. 한국철도공사가 방역 대책을 마련하는 등 철도 내 빈대 유입을 사전에 차단한다. KTX와 전철 등 모든 열차는 매일 1회 이상 소독 및 방제를 하고 있다.

한국철도공사 한문의 사장, 국제철도연맹 직무 수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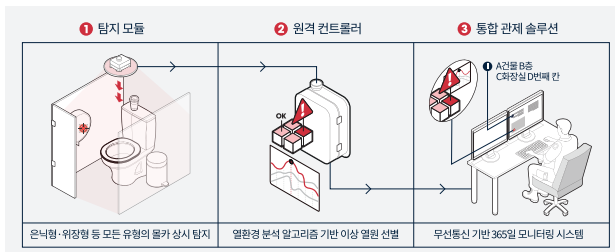
한국철도공사 한문의 사장이 지난 10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제35차 국제철도연맹 아시아·태평양 총회를 주재했다. 총회 의장에 선출된 후 첫 공식 직무 수행으로, 2024년 총회 개최지를 서울로 유치하는 등 주요 안건을 처리했다.

보이스 피싱 피해 막은 한국철도공사 열차팀장



지난 10월 서울행 KTX 열차를 순회하던 노연호 열차팀장이 울고 있는 승객을 발견했다. 승객이 보이스 피싱 범죄에 노출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대처한 덕에 1000만 원의 피해를 예방했다. 열차팀장과 승무원들은 승객을 안심시키고 위로했다.

한국철도공사, 상시형 불법 촬영 탐지 시스템 도입



한국철도공사가 수도권 전철 4개 역에서 화장실 내 불법 촬영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24시간 감시하는 상시형 불법 촬영 탐지 시스템을 운영한다. 화장실 칸마다 설치한 열화상 탐지 센서가 24시간 동작하며 불법 카메라의 온도를 감지해 즉시 해당 역에 통보한다.



코레일톡, 노인석 발매 서비스 확대 시행 역 창구뿐 아니라 코레일톡에서도 예매 가능

한국철도공사가 11월 10일부터 승차권 예매 앱 코레일톡에서 노인석 발매 서비스를 시작했다. 노인석은 인터넷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을 위해 2008년부터 운영한 노인 전용석이다. 그동안 노인석은 역 창구에서 예매가 가능했지만, 한국철도공사는 고령층 고객의 스마트폰 사용률이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해 코레일톡에서도 노인석을 예매할 수 있도록 서비스 확대 시행을 결정했다.

‘경로’로 지정하고 승차권을 조회할 시 노인석 선택 버튼이 활성화된다. 이로써 노인석 승차권을 예매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로 늘었다. 한국철도공사는 노인석 외에도 교통 약자의 철도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맞춤형 우대 예약 서비스, 장애인 승·하차 도우미 서비스, 교통 약자 우선 창구, 청각장애인 대상 채팅 상담 및 수어 서비스 등을 시행 중이다. 모든 고객이 불편을 느끼지 않고 열차를 편리하게 이용하는 그날까지 한국철도공사는 서비스 개선에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걱정 없는 철도여행의 시작 짐배송 서비스 확대

짐을 숙소로 안전하게, 두 손은 가볍게

I 짐배송 서비스 시행역

현재 서비스 시행역

부산역, 강릉역, 신경주역, 여수엑스포역, 광명역, 순천역, 목포역
※ 24년 전국 확대예정



친절 직원을 소개합니다



고객의 편지

지난 9월 늦은 밤, 서울을 출발해 경남 창원으로 가는 KTX-산천을 이용했습니다. 새벽 1시쯤 창원역에서 하차해 집에 가는 도중 열차에 태블릿을 놓고 내렸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평상시 물건을 잘 잃어버리지 않는 터라 깜짝 놀랐습니다. 태블릿에는 중요한 정보와 자료가 많아 더욱 애가 탔지요. 시간이 늦어 고객센터와 연락이 닿지 않았고, 다시 돌아가기엔 거리가 멀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열차의 종착역인 마산역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행히 역무원님과 연결되어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호실과 작성 번호를 남기면 전화를 준다고 하셨는데, 다음 날 이른 아침 물건을 찾은 것 같라며 바로 연락이 오더군요. 몇 가지 질문과 대답이 오가고 유실물이 제 것인 게 확실해지자 역무원님은 마치 본인의 일처럼 기뻐하셨습니다. 유실물을 찾아 주신 분들과 친절히 응대해 주신 역무원님,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감사한 마음을 편지로 전합니다.



부산경남본부 마산역 성호주 역무원

이런저런 사건이 생기는 역무실에서 유실물 관련 문의를 빈번하게 받곤 합니다. 작은 물건에도 저마다 사연이 있기에 최대한 주인 품으로 돌아가도록 많은 사람이 노력합니다. 저 혼자만의 수고가 아니라 각자 위치에서 묵묵히 제 역할을 하는 분들의 도움을 받아 고객님께 전달해 드린 것인데, 이렇게 정성과 따뜻함이 묻어나는 글로 인사를 해주시니 저 또한 감사한 마음입니다. 작은 노력이 고객님을 기쁘게 했다는 사실에 힘이 납니다. 마산역을 이용하는 모든 고객님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여행하시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코레일을 이용하며 기억에 남는 친절 직원이 있다면 코레일 홈페이지(info.korail.com) 고객의 소리로 언제든지 알려주세요.

간이역에서

김현기



별살이 보시시 내려앉은 간이역에
 땀방울 송송 휘감기는 끈덕진 삶의 고단함이
 훈장처럼 수북하게 쌓여 있고
 소금 꽃이 뿌얏게 피인 아버지가 보입니다
 눈부신 젊음을 송두리째 철도에 아낌없이 바치고
 잔뼈가 굳어 있는 빛바랜 시간들이
 던지시 바람에 쓸려 갑니다
 아지랑이 사이로 어슴푸레 비치는 검은 그림자
 땀직땀직 이름을 들추지 않는 침묵 끝으로
 당신의 굵은 뒷등이 짝하게 밟힙니다
 어디선가 꽃물이 든 들꽃 씨방이 툭툭 터지고
 늘 착하게 살아가는 서민들의 발이 되어 준 철길을 보듬고
 오랜 기다림에 익숙해진 열차처럼 겸허히 사신 아버지
 조심스럽게 몸을 맡긴 연장을 드높이 들고
 철길이 어긋나지 않게
 흔들림 없이 철도를 꼬장꼬장 내려치십니다
 죽어서나 반나절 평평 울어 누울 자리에
 촌촌하게 한 소쿠리 꿈을 쏟아 담고
 한 사람의 생애가 호젓하게 깊어 가는 밤에도
 당신의 그림자를 덥석 물고 계십니다
 더없이 그림고 아쉬운 것들이
 하나둘씩 소실점 넘어 아득히 사위어 가고

오늘도 하루의 안녕을 기도하는
 그 손끝에 닿는 아픔이 더디게만 흘러갑니다
 젊은 시절도, 초임 시절도
 묵묵히 번드러운 숨결을 불어넣고
 침묵이 미덥게 놓인 철길은
 철도 노동자 아버지의 크나큰 보람이었습니
 천천히 들어서는 막차의 기적 소리 어둠에 묻히고
 저는 잠시 종점으로 가는 간이역에 서서
 미처 가라앉지 못한 기억들을 펄떡 떠올립니다
 아버지의 젊음과, 사랑과, 눈물과, 아픔이 묻어나고
 하나같이 처음이어도, 끝이어도
 인생이 마치 두 갈래 철길과 같았던 아버지
 울곧게 놓인 철길을 자박자박 밟으며
 이젠 내가 침묵을 단단하게 고이는 한 개의 자갈이 되어
 선내가 풀풀 나는 마음 한 자락을 툭툭 털어 드리고
 아버지의 철길을 오래도록 지켜 주고 싶습니다

제9회 철도문학상 수상작
 한국철도공사 사장상(최우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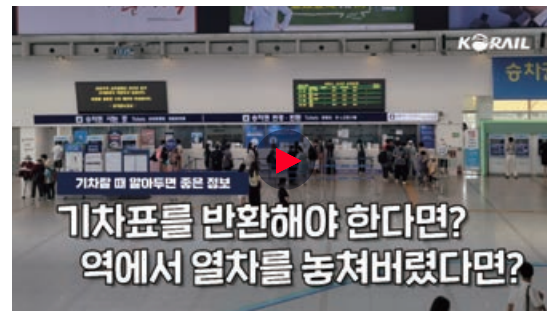
KORAIL SNS



경강선 전철 타고 아이랑 가기 좋은 곳_수도권 전철 경강선으로 아이와 함께 여행 가요! 한국철도공사 명예 기자가 알려 주는 코스!



ITX-마을 운전실 타고 동해에서 청량리까지_ITX-마을을 타고 강원도 동해역에서 서울 청량리역까지! 태백선의 가을 풍경을 만끽합니다.



기차표를 반환해야 한다면? 역에서 열차를 놓쳐 버렸다면? 알아 두면 좋은 환불 위약금 제도, 영상 하나로 깔끔하게 소개합니다.



열차 번호, 타는 곳 번호 그리고 호차 번호는 무엇일까? 기차 관련 숫자들! 숫자에 숨은 비밀은 무엇일까요? 숫자로 기차를 알아봅니다.



KTX는 천안아산역, 1호선·장항선은 아산역_KTX 정차 역인 충남 천안아산역. 수도권 전철 1호선과 장항선에도 아산역이? 헷갈리지 않고 이용하는 법!



내 생애 가장 젊은 날 나는 KTX 타고 여수로 간다_전남 여수 여행, KTX 승차표 반값으로 할인받고 알뜰하게 떠나세요.



* QR코드를 스캔하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여행이 있는 주말, 해맞이 명소 정동진 여행

업무나 학업에 집중해 바쁘게 하루를 보내다 맞는 주말은 더욱 소중한 게 느껴진다. 허투루 쓸 수 없는 소중한 날, 의미 있게 지내려 여행을 떠나는 사람이 적지 않다. 주말에 떠나는 여행을 사랑하는 이에게 희소식이다. 한국철도공사가 '여행이 있는 주말' 캠페인에 동참한다. '여행이 있는 주말'은 매월 마지막 주말을 여행하는 날로 지정해 주말 단기 여행을 독려하는 캠페인이다. 선택적 주 3일 휴일제 문화를 확산하고, 여유

있는 삶을 정착시키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함께 진행해 왔다. 한국철도공사가 준비한 상품은 10월 착한 여행, 11월 야간 관광, 12월 해맞이 등 매달 다른 테마로 기획해 더욱 흥미롭다. 2023년 마지막 주말, 해맞이와 함께 알찬 여행을 기획해 보자. 기차 여행 상품은 레츠코레일 홈페이지(www.letskorail.com) 또는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동진역

바다와 가장 가까운 역으로 역사 안에서 푸른 물결과 떠오르는 해를 한 번에 조망하는 대표적인 해맞이 명소다. 전국 곳곳에서 강원도 강릉 정동진역으로 향하는 해돋이 열차를 운행하는 덕에 접근성이 뛰어나 연말연시에 일출을 보려는 여행자로 북적인다. 드라마 <모래시계>에 등장했던 소나무, 정동진역 레일바이크, 기암괴석이 비경을 자아내는 정동심곡바다부채길 등 둘러볼 만한 여행지가 가까이 자리한다. 2020년 강릉선 연장으로 KTX가 정착하는 정동진역 역사에 여행을 목적으로 방문하는 고객에게 기념 입장권도 발매한다.

정동진 해맞이 무박 2일 여행



12월 마지막 주 휴일, '여행이 있는 주말'에 정동진으로 해맞이 여행을 떠난다. 12월 29일 23시 30분경 서울역을 출발해 30일 새벽 정동진역에 도착하는 무박 2일 여행 상품이다. 푸른 바다 위로 떠오르는 붉은 해를 바라보며 남은 2023년을 마무리하고, 곧 다가올 새해에 대한 설렘으로 마음을 채운다. 컴컴한 새벽, 정동진에 도착한 후 이른 아침을 먹고 강릉과 동해 중 원하는 지역을 선택해 해맞이 장소로 이동한다. 일출이 아름답기로 이름난 강릉 섣크루즈 조각공원, 동해의 추암촛대바위가 보이는 곳에서 소원을 빈다.

왕편 새마을호(임시 열차) 29일 서울역 23:30경 출발 → 30일 정동진역 04:50경 도착

복편 새마을호(임시 열차) 30일 정동진역 13:00경 출발 → 서울역 18:20경 도착

일정 조식(4개 메뉴 중 택일) → 해맞이(① 동해 추암촛대바위 ② 강릉 섣크루즈 조각공원) → 지역 관광(① 동해 천곡동굴, 도재비골, 목호시장 ② 강릉 안목해변, 아르떼뮤지엄, 중앙시장)

편의 시설

일반 객실

Passenger Compartment

<p>좌석 간격 Seat Space</p>  <p>KTX 930mm</p>	<p>등받이와 시트 조절 Seat Adjustment</p>  <p>의자 팔걸이 버튼을 누르면서 등받이를 뒤로 젖히고 시트를 앞으로 미십시오.</p>	<p>이동통신망 Free Wireless Internet Service</p>  <p>열차 내에서 무선 인터넷을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p>	<p>충전용 콘센트 & USB 포트 Socket & USB Port</p>  <p>열차 내에 콘센트가 설치되어 있습니다.</p>
--	--	--	--

특실 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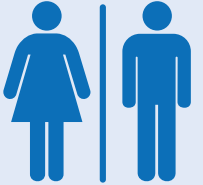







First Class Service

<p>좌석 간격 Seat Space</p>  <p>KTX 1120mm</p>	<p>등받이와 시트 조절 Seat Adjustment</p>  <p>의자 팔걸이 버튼을 누르면서 등받이를 뒤로 젖히고 시트를 앞으로 미십시오.</p>	<p>식음료 Refreshment</p>  <p>특실 이용객을 위한 셀프 서비스 물품은 KTX 3, 4호차와 KTX-산천 4, 14호차에 있으며 특실 생수 자판기는 KTX 3, 4호차 지정 장소에 있습니다.</p>	<p>KTX 미니 도서관 KTX Mini Library</p>  <p>단행본은 KTX 4호차와 KTX-산천 3, 13호차, 잡지·신문은 KTX 3, 5호차와 KTX-산천 3, 13호차 지정 장소에 비치되어 있습니다.</p>
--	---	--	--

AMENITIES

편의 시설

Amenities

<p>화장실 Restroom</p>  <p>KTX 1, 2, 4, 6, 8, 11, 13, 15, 17, 18호차와 KTX-산천 3, 5, 6, 8, 13, 15, 16, 18호차와 KTX-이음 1, 6호차와 ITX-새마을 1, 4, 6호차와 ITX-청춘 3, 6호차에 화장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p>	<p>장애인 관련 시설 For the Handicapped</p>  <p>전동휠체어석과 장애인용 화장실은 KTX 2호차와 KTX-산천 1, 11호차와 KTX-이음 3호차와 ITX-새마을 3호차와 ITX-청춘 3호차에 있습니다.</p>	<p>수유실 Breast-Feeding Room</p>  <p>유아 동반 고객을 위한 수유실이 KTX 8, 16호차와 KTX-산천 4, 14호차와 KTX-이음 4호차와 ITX-새마을 6호차와 ITX-청춘 6호차에 있습니다.</p>	<p>물품 보관소 Luggage Storage Section</p>  <p>각 객차에 위치한 수화물 보관대에 여행용 가방 등 큰 물건을 보관할 수 있습니다.</p>
<p>자동심장충격기 AED: 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p>  <p>자동심장충격기는 KTX 4, 10, 15호차와 KTX-산천 4, 14호차와 KTX-이음 3호차와 ITX-새마을 3호차와 ITX-청춘 3호차에 마련되어 있습니다.</p>	<p>자동판매기 Vending Machine</p>  <p>음료 및 스낵 자판기가 KTX 5, 9, 11, 13, 16호차와 KTX-산천 2, 6, 12, 16호차와 KTX-이음 3, 4호차와 ITX-새마을 3, 4호차 지정 장소에 있습니다.</p>	<p>의약품 First-Aid Medicine</p>  <p>KTX 열차 내에 상비약이 준비되어 있어 승무원에게 요청하면 필요한 약품을 제공합니다.</p>	<p>금연 No Smoking</p>  <p>역 승강장과 열차 안은 모두 금연 구역입니다. 안전한 열차 운행과 건강을 위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p>

1분 열림 버튼
Open-Button(1mins)

1분 열림 버튼 The Button to Open the Door for 1 Minute
각 객실 출입문 위쪽에 위치하며, 누르면 1분 동안 문이 열립니다.

열차 지연 배상 안내

천재지변을 제외한 한국철도공사 귀책 사유로 KTX 및 일반 열차 (ITX-새마을, ITX-마을, 누리로, 무궁화호, ITX-청춘)가 20분 이상 지연된 경우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서 정한 금액을 배상해 드립니다(지연 승낙 승차권 제외).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지연 발생 시 익일 자동 배상

현금으로 결제한 경우
지연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전국 역 또는 레츠코레일 홈페이지·코레일톡 계좌 이체 신청

KTX 및 ITX-청춘 N카드 이용 안내

모바일 앱 할인 카드인 N카드를 구간과 횟수를 지정해 구입하면 승차권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KTX 및 ITX-청춘을 자주 이용하시는 고객님의 해당 할인 카드로 교통비를 절감해 보세요!

구입 경로 및 이용 안내
코레일톡 앱 → 하단 할인·정기권 탭 → N카드(안내는 ①참고)

* 자세한 사항은 철도고객센터(1544-7788, 1599-7878)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KTX 공항버스



6770번, 광명역 ↔ 인천국제공항(T1, T2)

운행 시간
(광명역) 오전 5시 20분~오후 8시(20~30분 간격)
(인천국제공항 T2 기준) 오전 6시~오후 10시(20~30분 간격)
소요 시간 (T1↔광명역) 약 55분, (T2↔광명역) 약 80분
타는 곳 (광명역) 서편 4번 출구 4번 정류장
(인천국제공항) T1 1층 8B번, T2 지하 1층 45번 정류장
승차권 구입
(인천국제공항 → 광명역) 인천국제공항 버스터미널 매표 창구, 터미니GO 모바일 앱
(광명역 → 인천국제공항) 전국 기차역, 코레일톡 등

레일플러스 교통카드 길라잡이

Rail+

철도 회원이 KTX 승차권을 레일플러스 교통카드로 구매 시 1퍼센트 추가 적립, 모바일카드는 KTX 마일리지 전환 사용 가능
교통카드 구매처 편의점(CU, 이마트24, 스토리웨이)
모바일카드 다운로드 '레일플러스' 스마트폰 앱 (Android, iOS)
사용처 전철, 버스, 기차, 택시, 유료 도로, 편의점 등
충전처 전철·기차역, 편의점(CU, 이마트24, 스토리웨이) 등
* 자세한 사항은 레일플러스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레일플러스 교통카드 종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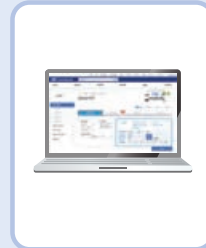


railplus.korail.com
QR코드를 스캔하면 레일플러스 홈페이지로 연결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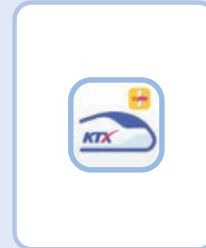
열차 이용 안내

승차권 구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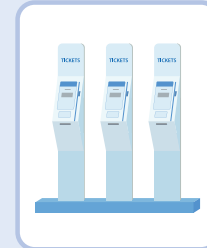
- 열차 출발 1개월 전부터 열차 출발 20분 전까지(코레일톡은 열차 출발 전까지) 구입할 수 있습니다.
- 결제 금액 5만 원 이상 시 신용카드 할부 결제가 가능합니다.
- 결제 후 스마트폰 승차권, 홈티켓으로 직접 발권할 수 있습니다.



레츠코레일 홈페이지
(letskorail.com)



'코레일톡'
스마트폰 앱



승차권
자동 발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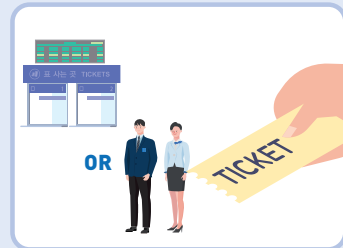
기차역 내 창구
또는 승차권 판매 대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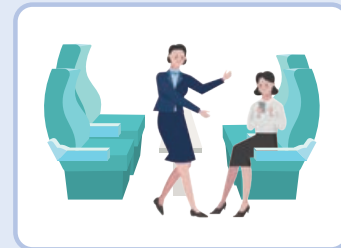
'네이버' '카카오 T'
스마트폰 앱

승차권 분실

- 회원번호, 신용카드 등으로 승차권을 구입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금액 반환이 가능합니다.
입석과 자유석 승차권, 분실한 승차권이 변경 또는 반환된 경우, 재발행한 승차권을 반환 또는 변경하거나 도착역 전에 내린 경우 승차권 반환 불가능



역 창구, 열차승무원에게 운임·요금을 다시
지불하고 분실한 승차권 재발급



열차승무원에게 분실 승차권
미사용 확인 요청



역 창구에서 승차권 금액 반환
(최저 반환 수수료 제외)

승차권 반환

- 승차권 반환 시에는 환불 청구 시각, 승차권에 기재된 출발역 출발 시각 및 영수증 금액을 기준으로 위약금을 공제한 금액을 환불해 드립니다.

구분	출발 전		
	1개월~출발 1일 전	당일~출발 3시간 전	3시간 전 경과 후~출발 시각 전
월~목요일	무료		5%
금~일요일, 공휴일	400원(구입일 포함 7일 이내 환불 시 감면)	5%	10%

구분	출발 후(역 창구에서 환불 신청)		
	20분까지	20분 경과 후~60분	60분 경과 후~도착
월~목요일			
금~일요일, 공휴일	15%	40%	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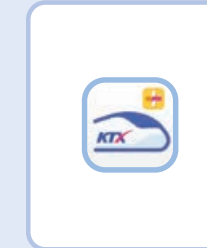
PASSENGER GUIDE

Ticket Book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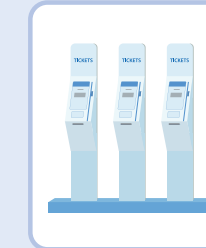
- Tickets can be purchased one month in advance and up to 20 minutes before departure (before departure in KORAIL Talk application).
- Installment option available if paying more than KRW 50,000 by credit card.
- Tickets issued as smartphone ticket or home ticket after pay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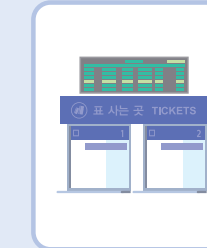
Let's KORAIL Website
(letskorai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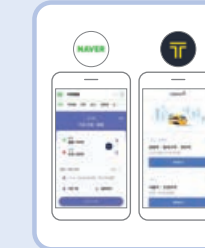
KORAIL Talk
Mobile App



Ticket Vending
Machi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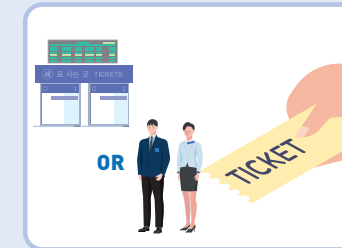
Ticket Booth
or Ticket Retail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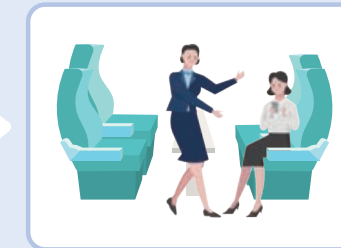
NAVER · KAKAO T
Mobile App

Ticket Loss

- Refunds may be provided for ticket purchases made using the KORAIL membership number or a credit card.
Not applicable to standing tickets, change of lost tickets, change of reissued tickets, and unused sections from alighting before the destination station.



Pay fees at the ticket booth
or to the on-board crew to
reissue your ticket.



Check with the on-board crew that
your lost ticket is unus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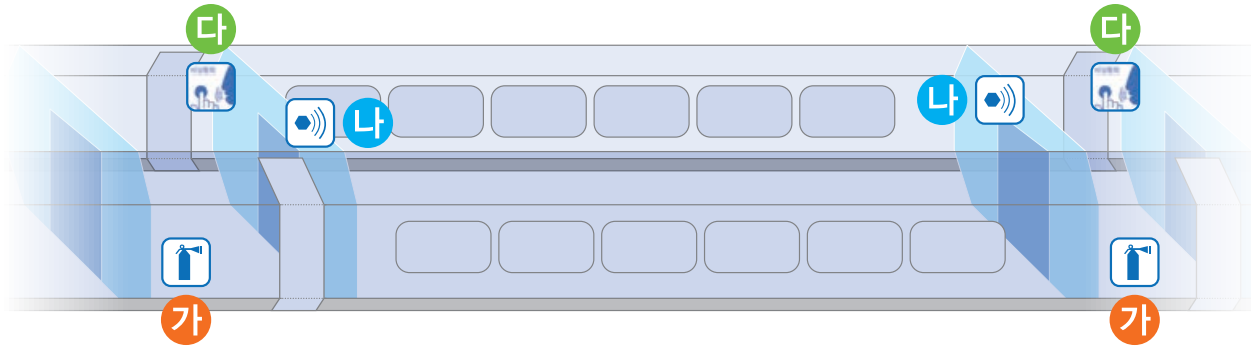
Receive a refund for your lost
ticket at the ticket booth.
(excluding service charge)

Ticket Refund

- Ticket refund value is calculated based on the time of refund claim, departure time specified on the ticket, and original price of ticket on the receipt. Note that a service charge appl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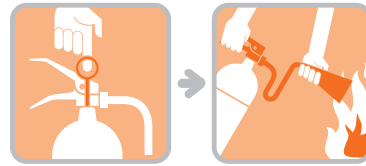
Classification	Before Departure		
	1 month-1 day prior to departure	Day of departure-3 hours prior to departure	3 hours-before departure time
Mon-Thu	Free		5%
Fri-Sun, holidays	KRW 400 (Free within 7 days from date of purchase)	5%	10%

Classification	After Departure (Request refund at ticket booth)		
	Up to 20 minutes	20-60 minutes	60 minutes-arrival time
Mon-Thu			
Fri-Sun, holidays	15%	40%	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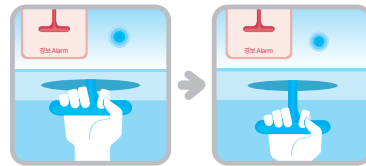
가 소화기 사용 요령
How to Use a Fire Extinguisher

- 승강문 옆 수화물실 아래에 있는 소화기를 꺼내 안전핀을 뽑는다.
Take out the fire extinguisher from the box next to the exterior door and pull the pin.
- 불이 난 장소에 골고루 분사한다.
Spray evenly at the area that is on fire.



나 비상 알림 장치
Emergency Alar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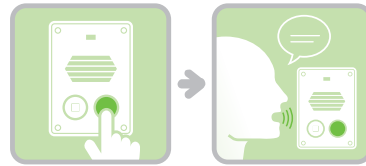
- 객실 내부 출입문 상단의 적색 손잡이를 아래로 당긴다.
Pull down the red emergency alarm handle located at the upper part of the interior door.
- 비상 경보음이 객실 전체에 울린다.
The emergency alarm goes off.



다 승무원 통화 장치
Contacting the Train Crew

KTX | KTX 산천 | KTX 이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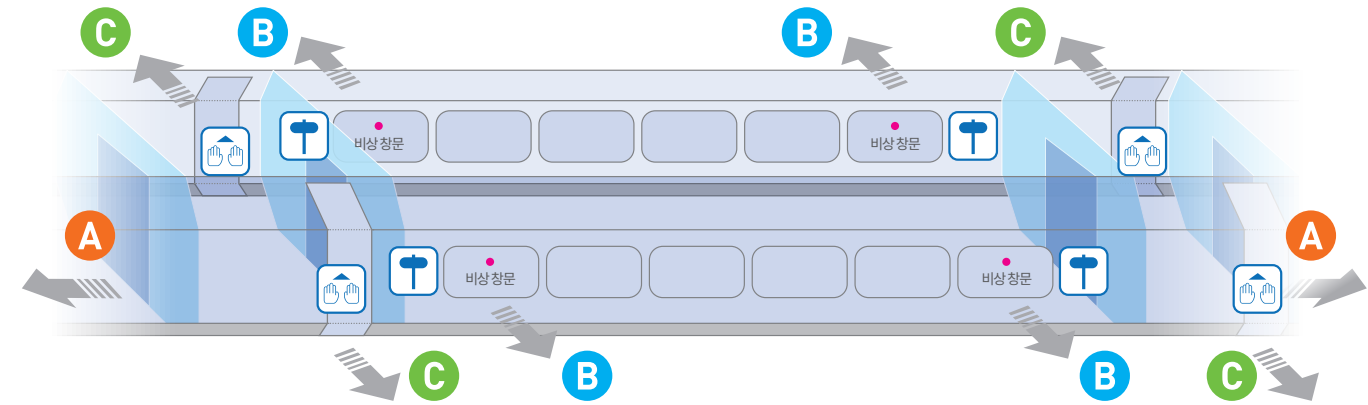
- 승강문 옆의 버튼을 누른다.
Press the intercom button next to the exterior door.
- 승무원이 응답하면 상황을 알린다.
Notify the train crew of the situation.



ITX 새마을 | ITX 향촌

- 승강문 옆 또는 객실 안에 있는 승객용 비상 호출기 커버를 연다.
Open the emergency intercom box beside at the door or inside the car.
- 마이크를 꺼낸 후 적색 램프가 켜지면 마이크 왼쪽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상황을 알린다.
Take out the microphone. Once the red light is on, press the button on the left of the microphone and inform the situation.

QR코드를 스캔하면 기차 내 설비 사용법과 비상시 행동 요령 영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A 다른 객차로 대피
Escape to an Unaffected Car

승무원의 안내에 따라 다른 객차로 안전하게 대피한다. 부상자, 노약자, 임산부가 먼저 피신할 수 있도록 돕는다.
Follow instructions of the train crew and move to an unaffected car. Provide assistance to evacuate wounded, elderly people and pregnant women first.

A 터널 탈출 요령
Escape from a Tunne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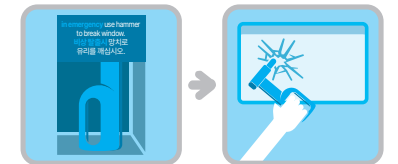
터널 내 비상사태 시 자세를 낮추고 비상 유도등을 따라 가까운 터널 입구로 탈출한다.
Follow the emergency exit light to go out the tunnel exit.

A 비상 사다리 위치
Emergency Ladder Location

KTX: 5호차, 14호차 | KTX-산천: 2호차(일부 편성 4호차)
KTX-이음: 1호차, 6호차 | ITX-새마을: 4호차

B 비상 창문을 통한 탈출
Escape through Emergency Window

- 승강문 탈출이 불가능할 경우 객실 양쪽 끝에 있는 비상 탈출 망치의 보호 커버를 깨고 망치를 꺼낸다.
If you cannot escape through the exterior door, break open the glass cover of the emergency hammer box at both ends of each car and take out the hammer.
- 양 출입문 쪽에 있는 비상 창문 유리를 망치로 깨고 옷으로 창틀을 덮은 후 그 위로 나간다.
Break the emergency window at both ends of each car and exit. Put clothing over the windowsills to protect yourself from broken glass.



C 승강문을 통한 탈출
Escape through Exterior Do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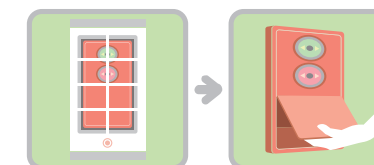
KTX

- 승강문 옆 위쪽 비상 열림 장치의 뚜껑을 깨고 위 손잡이를 아래로 돌린다.
Break open the glass cover of the emergency release levers next to the exterior door and pull the upper handle down.
- 아래 손잡이를 앞으로 당기고 승강문 밖으로 밀어낸 후 옆으로 밀고 나간다.
Pull the lower handle down and push the do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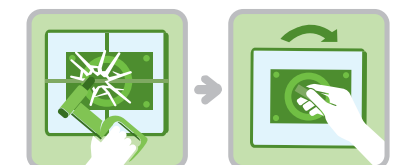
KTX 산천 | KTX 이음

- 승강문 옆 위쪽 비상 열림 장치의 뚜껑을 깨다.
Break open the glass cover of the emergency release level next to the exterior door.
- 핸들을 2회 당기고 승강문을 밖으로 밀어낸 후 옆으로 밀고 나간다.
Pull the handle twice and push the door.



ITX 새마을 | ITX 향촌

- 승강문 옆 비상 열림 장치의 뚜껑을 깨다.
Break open the emergency door release box.
- 손잡이를 오른쪽으로 돌리고, 승강문을 밖으로 밀어낸 후 옆으로 밀고 나간다.
Pull the lever to the right. Push door forward and to the side.





Epilogue



역사 덕후, 그림 덕후, 철도 덕후의 새해 소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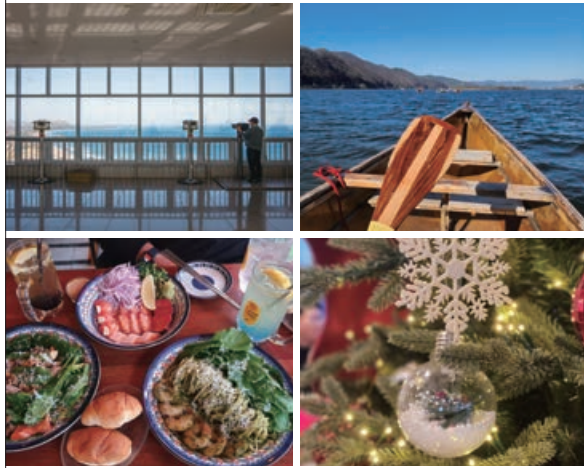
강원도 고성 DMZ박물관으로 향하는 길, 민통선을 통과하고 규철 실장님이 문득 물으신다. “북한 안 가 봤지?” 네에? 세상에, 실장님은 예전에 개성공단 입주 기업을 촬영하러 여러 번 방문하셨다고 한다. ‘출근’길, 임진각 부근을 지날 때 어른신들이 망연히 북쪽을 바라보시는 모습이 마음에 남았다고. 그리움을 달랠 길 없어 마냥 나와 계시던 분들. 통일전망타워에서는 북한으로 이어지는 도로와 철길이 선명하다. 북한 기차가 고성 제진역에 닿은 2007년 5월 17일 뉴스는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길은 정비됐건만 여러 사정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다. ‘역사 덕후’로서 개성이 궁금하고, ‘그림 덕후’로서 정선의 <금강전도>와 금강산을 비교해 보고 싶으며, ‘철도 덕후’로서 기차 타고 북한을 여행할 날을 기다리고 있다. 푸른 바다에 소원을 빌었으니 곧 이루어지기를. **김현정**

세상에 나쁜 계절은 없다

삼복더위에도 ‘뜨아’가 절실한 누군가에게는 9월 말부터 4월 초까지가 심리적 동절기다. 겨울을 싫어했다. 겨울엔 가장 겨울다운, 여름엔 가장 여름다운 풍경을 수집하는 일이 생업이건만. 연약한 면역 체계는 번번이 혹독한 계절의 변화에 무너졌다. 담요를 뒤집어쓰고 코를 훌쩍이며 키보드를 두드리던, 아아, 쓸쓸한 겨울날의 마감 풍경.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새부터인가 겨울이 좋아졌다. 강원도 강릉 정동진의 집채만 한 겨울 파도에 발을 적셨을 때, 전북 완주 대둔산 자락에 함박눈이 벨벳처럼 내려앉았을 때, 충남 당진 왜목마을에서 강풍을 온몸으로 헤치고 떠오르는 해를 마주했을 때. 살아 있음을, 존재함을 베풀처럼 깨치는 순간은 언제나 겨울이었다. 강원도 춘천을 취재하면서 또 한 번 겨울의 위력을, 아름다움을 실감했다. 작은 목소리로 조심스레 고백한다. 겨울이라 행복해요. **강은주**

감사한 시간

서울에 정착한 이후 줄곧 은평구에 거주했다. 처음 살았던 셋방은 불광천을 마주하고 있었고, 틈만 나면 천에 갔다. 커피 한 잔 들고 계단에 걸터앉아 유유히 흐르는 물을 바라보거나, 활기찬 사람들 사이에 섞여 걸었다. 수없이 오가던 불광천의 옛 이름이 연서천이며, 연신내가 여기서 유래한 지명이란 사실을 ‘맛집 탐방’ 칼럼을 취재하면서 알게 됐다. 과연 연신내엔 골목마다 빛나는 개성을 가진 식당과 카페가 많았다. 특히 지역을 사랑하는 주인장들 덕분에 신나게 인터뷰를 진행했다. 정다운 이웃과 만나 마음이 절로 넉넉해졌다. 더불어 그동안 이처럼 즐거운 취재 기회를 허락한 <KTX매거진>에 감사드린다. 단어 하나도 소중하게 적는 편집팀, 다정하고 멋진 디자인팀, 교정·수정 선배, 사진 실장님, 광고팀에도 인사를 남긴다. 좋은 분들과 함께할 수 있어 기뻛고, 감사합니다. **옥송이**



선물

‘세계 도시 이야기’ 기사를 작성하다 떠오른 기억입니다. 여섯 살 무렵이었어요. 크리스마스가 어떤 날인지도 잘 모른 채 선물에 대한 기대를 안고 잠들었습니다. 새벽에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려 눈을 떴어요. 누군가 방에 들어와 포장지로 잘 감싼 선물을 머리맡에 놓고 나가더군요. 다음 날 아침 일어나 포장을 뜯으니 그토록 원하던 인형놀이 세트가 있었습니다. 산타 할아버지가 놓고 갔다는 말씀과 함께 엄마가 웃으시더라고요. 어린 저는 산타 할아버지가 보내 주신 선물에 하루 종일 신났답니다. 연말이란 으레 그렇습니다. 시간 내어 사랑하는 이를 만나고, 맛있는 음식을 나눠 먹으며 안부를 주고받지요. 곁에 있는 이 덕에 선물이 없어도 선물을 받은 것 같은 기분이 드는 12월이네요. **남혜림**

Puzzle 105쪽 ‘퍼즐’ 정답



2023 지역문화 활력촉진 지원사업
[고흥문화생활지대]



생기 가득한 고흥 생활

라이프 스타일 페스티벌

2023. 12. 13.(수) ~ 12. 15.(금)

고흥군민회관

